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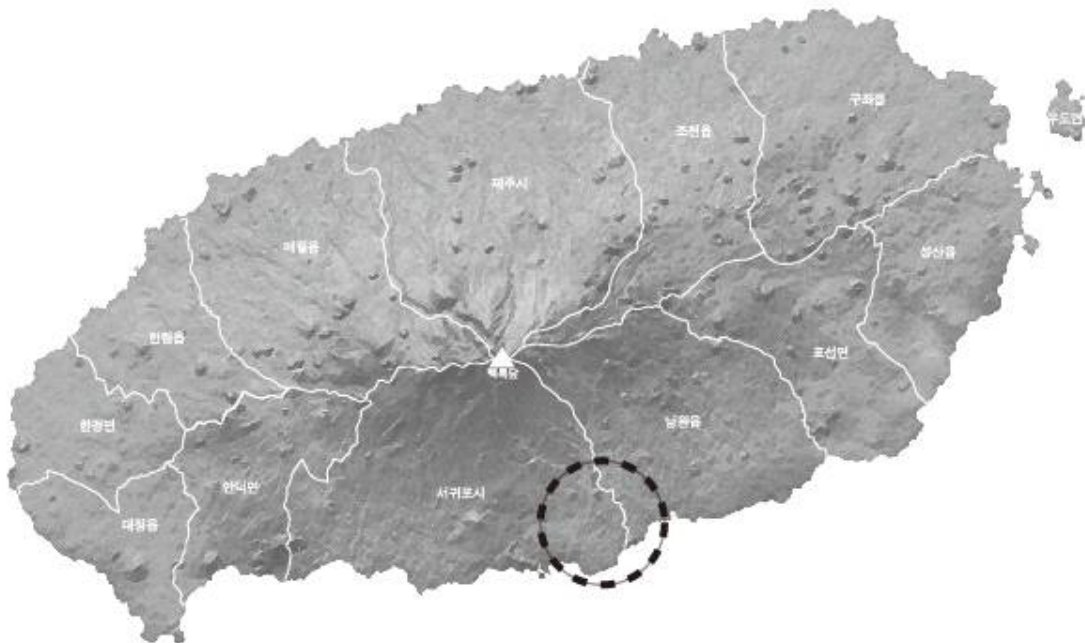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91-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최연미
조사지점 서귀포시 보목리

7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7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서귀포시 보목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3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3. 밭일	35
5. 바다일	49
7. 식생활	63
10. 세시풍속	103
13. 민간요법	125
2. 제보자 일생	19
4. 들일	40
6. 의생활	58
8. 주생활	85
11. 놀이	112
제2절 어휘	
1. 인체	145
3. 친족	158
5. 음식	167
7. 생업	181
9. 민속	196
11. 자연	199
13. 식물	216
2. 육아	152
4. 의복	162
6. 가옥	176
8. 수와 단위	193
10. 신앙	199
12. 동물	206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서귀포시 보목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강진우 (남, 1934년생)
 김금전 (여, 1938년생)
 양정삼 (여, 1922년생)
 한춘화 (여, 1929년생)
 현원후 (남, 1936년생)
 이정선 (여, 1939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강진우	00:23:38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1)	강진우	00:34:16	○
	구술 2. 제보자 일생(2)	김금전	01:11:29	○
	구술 2. 제보자 일생(3)	양정삼	00:15:09	○
	구술 2. 제보자 일생(4)	한춘화	00:20:41	○
3. 밭일	구술 3. 밭일	김금전	01:11:29	○
4. 들일	구술 4. 들일	강진우 김금전	00:37:53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이정선	00:31:22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1)	양정삼		○

	구술 6. 의생활(2)	한춘화	00:25:50	○
	구술 6. 의생활(3)	현원후 한승옥	00:07:09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1)	양정삼	01:07:53	○
	구술 7. 식생활(2)	현원후 한승옥	00:19:40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1)	현원후 한승옥	01:06:39	○
	구술 8. 주생활(2)		00:11:20	
9. 신앙	구술 9. 신앙	현원후 한승옥	00:05:49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강진우	00:37:13	○
11. 놀이	구술 11. 놀이	강진우	00:49:25	○
12. 통과례	구술 12-1. 출생	한춘화 양정삼	00:32:16	×
	구술 12-2. 혼례			
	구술 12-3. 상례	강진우	00:40:31	×
	구술 12-4. 제례	한춘화	00:20:01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1)	강진우	00:09:18	○
	구술 13. 민간요법(2)	강진우 김금전	00:52:13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강진우 김금전	00:18:46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1. 얼굴과 머리	김금전	01:05:25	○
	어휘 1-2. 상체	강진우 김금전	00:18:21	○
		강진우	00:09:36	○
	어휘 1-3. 하체	강진우 김금전	00:29:37	○
2. 육아	어휘 2-1. 발달	강진우 김금전	00:25:55	○
	어휘 2-2. 재롱과 놀이			
	어휘 2-3. 생리와 질병	양정삼 한춘화	00:43:01	○
3. 친족	어휘 3. 친족	한춘화 양정삼	01:12:01	○
4. 의복	어휘 4-1. 옷감과 세탁	양정삼	00:54:31	○
		한춘화 양정삼	00:23:03	○
	어휘 4-2. 복식 어휘 4-3. 바느질과 도구	한춘화 양정삼	01:14:18	○

	어휘 4-3. 바느질과 도구	한춘화 양정삼	00:05:06	0
5. 음식	어휘 5-1. 주식 어휘 5-2. 부식 어휘 5-3. 별식 어휘 5-4. 부엌과 그릇	한춘화 양정삼	02:03:30	0
	어휘 5-4. 부엌과 그릇	한춘화 양정삼	01:07:51	0
6. 가옥	어휘 6. 가옥	강진우 김금전	01:22:41	0
7. 생업	어휘 7. 생업(1)	한춘화 양정삼	01:17:51	0
	어휘 7. 생업(2)	한춘화 양정삼	01:55:14	0
	어휘 7. 생업(3)	양정삼 한춘화	00:33:36	0
	어휘 7. 생업(4)	한춘화 양정삼	00:56:39	0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한춘화 양정삼	00:32:35	0
9. 민속	어휘 9-1. 통과 의례		00:04:33	0
	어휘 9. 민속		한춘화	00:57:10
10. 신앙	어휘 10. 신앙	양정삼	00:15:25	0
11. 자연	어휘 11. 자연(1)	한춘화 양정삼	01:32:28	0
	어휘 11. 자연(2)	한춘화 양정삼		0
	어휘 11-2. 바다	강진우	00:12:17	0
12. 동물	어휘 12-1. 가축	한춘화 양정삼	01:16:58	0
	어휘 12. 동물(1)	한춘화 양정삼	00:54:28	0
	어휘 12-5. 바다동물	한춘화 양정삼	01:22:56	0
13. 식물	13-4. 바다식물	양정삼 한춘화	00:33:36	0
	어휘 13-1. 풀	양정삼 한춘화	01:40:13	0
	어휘 13-1. 풀 어휘 13-2. 꽃	양정삼 한춘화	00:47:14	0
	어휘 13-2. 꽃 어휘 13-3. 나무	양정삼 한춘화	00:58:40	0
	어휘 13-3. 나무 어휘 13-4. 열매	양정삼 한춘화	01:53:05	0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최연미, #: 강진우)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해 얘기 해 주십서.

101001 # 보목리는 약 한 4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현재 여기 그 우리 마을이 형성된 여기가 아니고 저쪽 동북쪽으로 저 고막구지라해. 여기 지형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뭐 처음 거주하다가, 그 이쪽 보는 제지기 오름이라고 이서, 오름에서 물 내리는 것이 뭐야 그 풍수지리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해, 사름이 많이 죽어가니까, 이걸 안 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구전이.

그 이쪽으로 옮겨서 내 다리 잇는디, 내 동쪽을 보목리라 헛고, 서쪽은 사름이 점점 많아가니까 서쪽은 남포리 라고 해났어요. 남포리라 하다가 나중에 그 보목리로 확정 졌는데 그 불목리라는 이름이 예 처음 이렇게 구전에 의해 헛 것 때문에, 여기 저 보리수나무.....

101001 @ 아, 계난 그런 것들 잇잖아예? 보리수를 불레낭개라고 하잖아예? 그러면 지금 구전돼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표준어로 하지 마시고예, 그냥 불목리 말로 고라줍서.

101001 # 불레낭들이 하노니까 불레낭이라.

보통은 예날 어른들은 불레낭개 라고 헛주게. 저 쪽 동쪽 성산포 쪽에 가도, 불목리 라면 모르고 불레낭개 라면 알아요. 불레낭은 그 보리순데 계난 그 많다고 해서 불레낭개라고 헛는데, 그 중간에 어른들이 말하는 거 보면 불레낭이 많아서 보목리라 헛것이 아니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저 쪽 산에서 보면 앞에 쭉섬이 썰섬이라고 헛는데, 섬이 이서서 거기선 화체라고 해서 불이 솟는 형체다 이겁니다.

화체, 아 저 불은 나무가 상대해야 해서 보목리지형은 나무 형체고 앞에는 섬은 불 형체다 이겁주. 게서 불에는 나무가 상대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보목리라 처음 이름 지었다는 그런 그 학술지에 나오는 말허는 건 믿을 만 한 말인데 이제 그거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없고 무지 그자 불레낭이 많으니까 불레낭개 처음 헛다 이렇게 헛는데 그런 식으로 불목리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 재는 것입주.

101002 @ 알아수다, 그러면예 그다음엔예, 불몽리 마을은 주로 그 성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수과?

101002 # 성씨? 성씨는 처음에 어느 성씨가 먼저 들어왔는지 잘 모르고, 여기 제일 한 씨가 성씨가 먼저 들어온 걸로 하자, 잠정적으로 자치적에서 한 씨, 그다음엔 강 씨, 이 씨, 양 씨, 한 씨가 제일 많고, 한 씨는 30%로, 그다음엔 강 씨, 이

씨와 양 씨가 비등합니다. 자기네끼리는 이 씨가 많다 양 씨가 많다하는데 비등하고 대충 큰 성은 네 개 성씨로 되어있주.

101003 @ 그렇구나에? 옛날부터 주로 불몽리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명 살아수과?

101003 # 보목리 주민들은 농사하고 어업이주.

101003 @ 농사짓고 바당에서에 하고에 그 농사를 지었다면 어떤 농사를 지어신고예?

101003 # 옛날에는 조, 보리, 감자, 대충 이 농작물이주.

101003 @ 바다에서는?

101003 # 바다에서는 주로 배 해서 고기 잡고 잠수들 소라 미역.

101003 @ 잠깐만에 어~, 예를 든다면 지금 저가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어 채록이라에? 그렇게 헛을 때.....

101003 # 사람 말 즐기라.

101004 @ 그리고 불목리 주변에는 오름이랑 내, 바위, 굴, 이런 것들이 잇잖아예? 어떤 것들이 잇는지 한번 고라봐줍써예?

101004 # 이 옆에는 저 쉼섬이라고 하는데 쉼섬이라고 하고, 여기는 제지기오름 제제기오름이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 본향당이 이십주게. 본향당. 1년에 한번 부인들이 정월 음력정월 열사흘 날, 그른 거의 다 보목리 여자분들 만 재물, 거의 다 가다시피 1년에 한번.

101004 @ 본향당을 한번 저희들과 같이 가주십서예? 사진 좀 찍어 놓게예.

그 다음엔예 본향당은 굴로 되어 이수과?

101004 # 네. 굴로 되어잇주.

101004 @ 내창 같은 건 어수과? 내.

101004 # 내? 보목리 중심으로 가운데로 내가 , 보통 재단에는 한 마을을 두 개로 내 갈라지는 게 몇 군데 안되주게. 보목리는 유독 가운데로 부락이 양쪽으로 형성이 되어서 딱 중앙에 내가 이서.

101004 @ 혹시 저 축항으로 가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파?

101004 # 예. 거기 내.

101004 @ 거기 내 이름은 뭐파?

101004 # 정술내

101004 @ 정술내에 정술내 내가 지나당 보난 막 그거 옛날에 내창모습이 아니라 막 공사해가지고 험선계만, 그런 거 가지고 마을회에서 뭐렌은 안헤마썸?

101004 # 마을회에서 그건 관에서는 뭐 하천정비라고 해가지고 내를 정비하는데, 옛날에는 거기 내창에 보목리 주민들이 반이 그 우물을 먹어십주게 그 하천 정리하면서 우물이 어서져부렀어.

101004 @ 아~ 그른 그 우물 이름이 혹시.

101004 # 그것이 정술.

101004 @ 정술, 아 그렇게 할 때 마을에서는 그냥 우물을 매꿔볼 때는 뭐런 안고란마썸?

101004 # 그 당시는 그런 개발할 때는 좋은거난.

101004 @ 기지 예? 언제쯤 경혜수과.

101004 # 여튼 7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에.

101005 @ 그믐 혹시 보목리는 어떤 기관 같은 거 어수과?

101005 # 기관?

101005 @ 예를 든다면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거 잇잖아예? 그런 거 어수과?

101005 # 보목리 지경에는 그런 거 없고 보목리 지경에는 뭐 제주대학교 수련원인가 그것도 관이렌곳는데 교육기관 그거 하나뿐.

101005 @ 아, 그거 하나짜 저쪽에 잇는 게 방송국, 보목리 아니고 하효에 속하는 거과? 계믄 방속국, 방송국은 하효, 하효에 속험구나.

101005 # 거고 하수종말처리장 잇지. 도에서 하는 거 수자원.

101005 @ 아, 맞다 거기도 보목리지예? 보목리구나.

101006 @ 이 마을엔 계들이 잇엇잖아예? 어떤 계들이 잇어수과?

101006 # 계? 제일 동갑계, 갑장들이 하는 동갑계.

101006 @ 동갑계 말고 어떤 계들이 잇어수과?

101006 # 다른 계는 영림계라고 산림계라고 하고 소나무 키와서 빨갸으로 쓰고.

101006 @ 이거는 옛날에는 낭때그녕 할 때 잇엇구나예?

101006 # 나무는 소나무 심어그녕 간벌하고 빨갸으로 사용하고 해서.

101006 @ 그거 말고 들꺾레 같은 거 계 같은 거 그런 거 어서수과?

101006 # 그거 이서십주 보목리도 여섯군데가 들꺾랑계 이서. 계원들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빌어서 하고.

101006 @ 계이름 따로 생각나는거 어수과?

101006 # 다른건 보통 들꺾랑계라고 하는데 들꺾랑계.

101006 @ 들꺾랑계가 여섯 군데가 잇엇구나예. 혹시 여자분 들이 헛던 건 어신가마썸 계가?

101006 # 여자 분들이 하는 건 주로 해녀들.

101006 @ 해녀들도 무신 계들이 이서나지 않아시카예?

101006 # 해녀는 지금 어촌계나 마찬가지로 옛날에 진흥회라고 해서 진흥회.

101006 @ 진흥회. 언제부터 진흥회라고 사용해신가예?

101006 # 진흥회는 해방직후에 진흥회라고 헛던 거 같아요.

101006 @ 무사 진흥회라고 헤신고예?

101006 # 나도 확실히.....

101006 @ 혹시 진흥회가 진응이과 아니면?

101006 # 진흥. 진흥회 농촌진흥회.

101007 @ 보목리는 어떤 풍습들이 이서나수과?

101007 # 풍습? 우리 마을 자치 생각은 그렇게 단합이 된 건 아닌데, 다른 부락 사람들이 보기엔 여기 보기를 단합이 잘 된다 얘기를 많이 해주게.

101007 @ 주로 단합대회 같은 걸 했었을 거 아니파예? 어떤 종류에 어떤 놀이들을 해나신고 예?

101007 # 실제로는 보목리가 제일 교육자, 지금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교육자가 제일 많고, 공무원이 제일 많고, 제주도내에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생각을 해주게. 사람들이 웃어른들이 경하문 자연히 따르게 마련인데, 사람들이 순해지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깐 마을에 화합도 잘되고 그 당시는 요즘은 공무원도 많지 않지만,

101007 @ 그른 뭐하명 화합을 해수과?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

101007 # 행사를 하는 건 뚜렷하게 없어요. 옛날 초가집 지으멍 동네에서 모다 들엉 집도 고치 지어주고 다른 거 집 지을 때 초가집 하게 되면,

초가집하면 실도 가서 해주고 집불도 해주고, 화재 나서 이재민 생기면 또 지어 주고, 사고나면 다 동네에서.

요즘도 마찬가지로 부조로 가서 다 물이 음료수가 정술물을 부인들은 물길어다 주는 것이 부조예요.

아, 큰일이 생기면, 큰일이 났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깐 그래서 여기서 보목리 반은 물을 지영 허벅으로 날랑 물로서 부조하는 거지.

101007 @ 그른 정술내 반은 그 물을 헛텐 하든 나머지 반은 어디서.

101007 # 나머지 반은 조근개라고 해서 쉼앞에 조근개물.

101007 @ 조근개물은 바당에서 나는 거파?

101007 # 예. 바다에서

101007 @ 바다에서 솟아나는 거마썸? 쉼 앞에?

그렇게 마을을 전체 잔치로 헛을 때 형태가 잔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신고 예?

101007 # 옛날 부락전체가 단합대회가 없었던 걸로 보고, 근래에 와서 몇 십 년 동안 일 년에 한번 4월 3일 날 보목 단합대회를 계속 하고 이십주게.

101007 @ 여자 분들이 물 길어다가 큰일을 할 수 있게끔 고치들 헛다는 거잖아 예? 아까 뭐파 새해 들면 연초에 아까 분향당 가가지고 뭘 헛텐 헛신디, 분향당 이름이 따로 어수과?

101007 # 즈늬기당이라고도 하고 분향당이라고 합주. 당이 두 군데 있는데 그거는 분향당이고 또하나는 신하밋당이라고 환자가 생기면 낮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곳이 신하밋당.

101007 @ 신하밋당은 어디어수과?

101007 # 요 포구 가는 내 옆에.

101007 @ 지금도 어수과?

101007 # 예.

101007 @ 다음에 고치 강 찍게 예.

101008 @ 보목리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이수과?

101008 # 특산물은 감귤은 판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해산물 채취 옥돔 같은 거.

101008 @ 옥돔 같은 거라고 헛잖아예? 옥돔 자체가 표준어인데 보목리에서 사용하는 말로 고라줍서.

101008 # 슬라니라고 해요.

101008 @ 슬라니 예.

101008 # 나머지 조기 같은 거. 옛날에도 조기고.

101008 @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수과?

101008 # 동네 어른들이 잡아오는 것들은 전복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복

101008 @ 또마썸?

101008 # 송복하고 구쟁기같은 거.

101008 @ 구쟁기 말고 또 어수과?

101008 @ 조개는 뭐마썸?

101008 # 오분작이.

101008 @ 그것을 오분작이라고 해수과?

101008 # 물꾸럭.

101008 @ 물꾸럭도 잇구나예.

101008 @ 성계는 뭐라고.....

101008 # 성계는 귀. 슴.

101009 @ 여기 보목리에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이수과?

101009 # 자랑할거? 어서.

옛날에는 공무원 많은 거 자랑스러워 뽐뽐했 해신디. 보목리 제일 많은데 어서십 주. 교육이나 행정 같은데 교육자들이 많았주.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 한사람이 끌어주니깐 자연히 밑에 아들이나 며느리 끌어주고, 옛날에 대통령 표창 받은 할머니가 있었다고 자식들 잘 시켰다고.

101009 @ 진짜 자랑거리인데 그분은 돌아가셨겠다 예?

101009 # 다 돌아가셨주.

101009 @ 그분의 자제분들은마썸?

101009 # 자제분들은 여기 계장으로 잇어요.

101009 @ 몇 살쯤 돼수과?

101009 # 팔십 둘.

101009 @ 그때 그분 이름이 뭐렌해수과? 계장 출신이라고 한분.

101009 # 강지영. 교육감출신도 잇고.

101009 @ 교육감출신, 그분은 안 돌아가셔수과?

101009 # 강정은 교육감은 살아있고.
 101009 @ 여기 없지예?
 101009 # 제주시 살고.
 101009 @ 강정은, 형제파?
 101009 # 강정은교육감은 형이고 동생은 강정근. 그 집안 메느리고 거의 다 선생이고 제일 많아.
 101009 @ 계문 그 집안도 자랑거리든 자랑거리구나에 같은 친척이파?
 101009 # 예.
 101009 @ 기구나에 웬당끼리 만나든 멩질에 만나든 고치 하는거마썸?
 101009 # 아니 이젠 워낙 많아부난 나눠서 하고.
 101010 @ 보목리 예, 여기 들어잇는 것만 질문 해신디 예? 특별하게 보목리는 이런 마을이다, 라고 다시 곳고 싶은 말 어수과?
 101010 # 어서.
 101010 @ 좋아 예. 여기까지만 마을에 대한 간단한 조사여수다예.

2. 제보자 일생(강진우)

102001 @ 배고프면 말씀 하십서. 호끔 더해도 돼쿠과? 보목리에서 낱고 자랐잖아예?

102002 @ 어떤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옛날기억으로 돌아가서 말씀해 주십서.

102002 # 우리집안은 자랑할 만 한 건 없고,

우리 할아버지부터 훈장이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한문서당을 후배들께 관심을, 제 부친은 처음에는 선생을 했는데, 일본에서 신문 배달하면서 고등학교 나와서, 해방 직후에 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생을 그만두고 행정계통에서 면사무소, 남원면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아내가, 4.3사건이 일어나서 마을이 4.3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니까, 그 단장을 해서 단원으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죽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 마을에는 지금은 폭도라고 해서, 한라산에 가서 숨어서 방황도 하고,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피해본 분은 없고, 사상이 틀려서 시신당한 분은 선생 어떤 분, 한분 일본 가서 공부 배웠는데, 사상이 틀렸던 모양이고, 희생자는 두 사람.

일절의 재산에 대한 피해는 우리아버지가 강력히 나갓기 때문에 한사람도 산에 폭도로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 부친이 돌아가니까 좀, 리민장, 부락 사람들이 장례를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자랑으로 생각하고.

102005 @ 일제 때 태어나신 거잖아예? 그때 얘기도 좀 고라줍서.

102005 # 일본시대에도 3학년 때 해방되니까 남원국민학교에 다니다가 서귀국

민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시대니까 한국말도 못쓰게 하고 표를 줘요. 하루에 한 장씩. 일주일에 7장씩 줘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한국말을 쓰면 표를 뺏겨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애국반이라는 자체조직인데 우리부모님이 보목리에 모여서 토요일 날 모여서 표 없는 사람은 흑사당하고 한국말 썼다고, 아무리 친구도 가져가면서 너하고 나는 한국말하면서 가자, 좋다, 하면 오, 아니다하면 표 뺏기는 거예요. 뺏긴 사람들은 매 맞는 거예요.

조금 어릴 때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이지만, 미국사람들이 들어오면 죽창으로 해서 훈련도 시키고 어쨌든 일본시대는 굉장히 지독했어요.

102005 @ 그러면 그때 당시 아버지도 선생 했다는 거잖아예? 그러면 그때 당시 아버지도 집에 와서 자식들 가르칠 때도 일본말 해수과?

102005 # 아뇨 그건 아니요.

우리아버지는 해방 후에 그때는 선생 그만둘 때고, 3 학년 때 해방되니까 우리가 느낄 때니까 그때가 다 일본사람들이 지독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지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그 정도도 몰랐다니깐. 해방 돼서 애국가도 몰랐단 말이야.

애국가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음으로 헤가지고, 가르치는 정도지 애국가가 잊었었는지 몰랐고 우리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지. 한국사람 이였다는 걸 몰랐지.

102005 @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걸 지나고 나서 자식들한테 한국사람이다, 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냐마썸?

102005 # 그런 것도 있고 우리집안에도 교장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도 또 명절 때 돌아오면 그땐 애국가를 불렀지만 일본시대에는 그런 게 일체 안 돼.

102003 @ 어머님 고향은 어딴짜?

102003 # 여기여.

102004 @ 어릴 때 그때는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놀이 하면서 지내수과? 자치기 같은 거 잇잖아예?

102004 # 놀이는 축구.

102004 @ 축구할 때도 공은이서서 마썸?

102004 # 공은 없고. 돼지 어떤 걸로. 또 새끼 꼬아서 공처럼 만들어서 운동장도 없어서 자라는 뿌리 뽑아서 운동장처럼 해서.

102004 @ 아까 공처럼 새끼를 꼬아서 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걸 새끼라고 하지 않았잖아예? 그걸 뭐라고 해수과?

102004 # 노꿓.

102004 @ 노꿓을 어떻게 마썸?

102004 # 노꿓을 꼬아서.

102004 @ 노꿓은 뭘로 만든 거 마썸?

102004 # 나뭇잎으로.

102004 @ 옛날엔 나뭇잎이 어디 이서수과?

102004 # 우리 마을 옆에 논이 있으니까.
 102004 @ 그다음엔 축구 말고는 어서수과?
 102004 # 자치기. 자치기도 이섯고 주로 자치기 많이 하고 축구도 많이 했어.
 102004 @ 여자들은예?
 102004 # 옛날 때는 베뿔락도 하고 베뿔락이지.
 102004 @ 그 베뿔락이나 이런 거 남자들이 여자들 할 때 방해는 안헤수과?
 102004 # 장난해서 베뿔락에서 다 도망헤버리고 했지.
 102004 @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충분히 들어볼게예.
 102005 @ 그다음에는 일제시대 때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서 잡아오고 헛을 때 어떤 식으로 공출헤수과?
 102005 # 공출은 이제 생각하면은 만약은 보리하면 보리, 미강 하면 미강, 하고 헛던 거 기억이 나고,
 102005 @ 어느 정도 공출한 건지 잘 모르겟수과?
 102005 # 그거는 잘, 소득이란 몇 폰 자세히 잘 모르고.
 102005 @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공출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헤본적도 없고 마썸?
 그 당시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 일본사람들한테 하면 면에서 와서 하고, 주재소, 이제말로 경찰, 주재소에서 왔다면은 일본순경들이 칼 차서 다그닥 다그닥 하면, 무서워서 숨고.
 102005 @ 예전에는 순경이라고 안하고 다른 말로 헛마썸?
 102005 # 순사.
 102005 @ 순사라고 헤수과?
 102005 # 경하고 또 제기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거의 다 옛날에는 그 녹그릇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102005 @ 그리고 그 옛날에 집집마다 큰그레 작은그레라고 헤가지고 잇섯는데 삼촌네 집에도 그게 이서수과?
 102005 # 이섯주. 간단하게 시리 콩 놓는 거 잇섯는데.
 102005 @ 삼촌네 집에도 그게 이서수과?
 102005 # 예.
 102005 @ 지금 삼촌네 집에는 어수과?
 102005 # 돌 두 개, 적은그레 지금 방에 이서.
 102005 @ 지금도 이수과?
 102005 # 방에 혼 말 잇고 몰그레 똥도 잇어요. 보리도 한 번 하고.
 102005 @ 공출할 땐 예를 든다면 감자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수과?
 102005 # 감자는 잘 생각 안 나고. 보리 같은 것은 실어 갖고, 감저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공출이라고 안하고 한군데 팔아서. 근데 지금 말하면 농협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공출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생산 농물이 보리였기 때문에.

102005 @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은 잘 안 가져간마썸?

102005 # 해산물은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미역이여마썸. 그래서 미역 많이 해서 팔면은 제값을 받지 못했던 걸로 기억나요.

102005 @ 일본에서 제값에 사가지 않은 거마썸?

102005 # 그 당시에는 그 일본 조합에 마른 미역을 팔면은 제값을 안주고 착취한 것 같아요.

102005 @ 다른 뭐 생복이나 구쟁기 같은 거는 안 가져가고마썸?

102005 # 그런 거는 여기도 옛날에는 전복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2005 @ 어머니는 물질 안해나수과?

102005 # 옛날에 했지.

102005 @ 하기야 옛날에는 자식들에게는 이런 말 안 해놨지예? 어머니가 물에 들명 제일 고달프다 라던가 일제 강점기에 자기가 물질 해 온 것을 그냥 가져가버린걸 들어본 적은 어수광?

102005 # 우리어머니는 전업으로 안하고 구제기하고 전복 잡는 사람은 매일 바다에서 생활하는데, 여기는 미역해체를 하고, 미역을 일정기간 날짜를 정해서 공동으로 미역을 채취하는데 그날은 전업이 아닌 사람도 가서 헛고, 요즘은 뭐 전업 아닌 사람은 가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총동원해서 남자들은 다가서 미역채취하면 운반하고 몇 백 명 모여.

그 행사 때는 미역해체 한다면은 학교 다닐 때는 안하는데 동쪽들 보며는 미역해치 하면 남자들 시켜 조퇴해서 가는.

102005 @ 미역 해치를 하고 미역 해치행 가면 미역 한 돈을 똑같이 받아수과?

102005 # 자기 한 것만큼 받아서.

102005 @ 한 것만큼 받아수과?

102005 @ 공출에 대해서는 보리밭에 안한 걸로 알고 잇고 그때 나룩 같은 것은 잘 안해수과?

102005 # 나룩은 그 당시에 20명 정도밖에 논이 없었어요.

102005 @ 삼촌네도 해나수과?

102005 # 우리는 그 당시엔 없었고.

102005 @ 나룩밭에 가서 일한기억도 없고 마심?

102005 # 일은 남에 일해준건 기억나고, 나무도 심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농고니까 나무도 심고 학교농장에서.

102006 @ 아까 그 낱고 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4.3에 대해서 얘기해 줘신디예? 봤거나 겪었거나 들은 거마썸.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줍서.

102006 # 우리가 중학교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는데, 산에서 폭도 못 들어오게 성이, 흔적이 한군데 지금 잇는데, 몇 십 미터 남아 잇는 흔적이 잇는데, 전부 성은 없어져 불고, 아무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그 짝으로 벼짝으로 만든 등태 해가지고 성담을 날르면서 어른들하고 같이헛어. 학생의 부의가 없

엇어. 한 집에 한사람이 뛰이고 학생이 부역이 아니고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기어나가서 그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설자리가 그러한 거지. 그렇게 성을 쌓고 밤에는 또 우리가 어른들과 헛어. 우리 마을엔 성문이 한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밤이 되면 보초 사는데, 그 우리가 학생 때도 어른들하고 같이 가서 볶도록 보초사고, 폭도들이 와서 그 창으로 찌를까 봐서, 두꺼운 이체로 말하면 방어복식으로 숨 놔서, 창 안 들어가게 시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면 그 것을 입어서 보초를 사고 학생들은 공부할 생각이 없었주. 그 당시는. 참 죽느냐 사느냐 이거여.

102006 @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다녀시민 어느 중학교에 다녀수과?

102006 # 서귀중학교.

102006 @ 서귀중학교를 다닐 때 동창생이나 같은 반 그 벗들이 흑시나 4.3때 죽음을 당한 경우는 어서난마썸?

102006 # 죽은 뭐는 없었주. 게서 하다가 중학교 때 3학년 6.25가 전쟁나니까 지원해서 혈서를 쓰명 막 군대에 간 친구들은 이섯고. 4.3사건 때 우리 동창이나 희생강한 건 어섯주. 그땐 막 어린 때니까. 그 6.25 터지니까 막 그 혈서, 학교 끝나니까 막 가서 이제루 말하면 이제 시청에 가서 혈서 손을 잘라서 군대 가겏다고.

102006 @ 무사 그추룩 헤신고예?

102006 # 북한이영 중국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싸와야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포기해서 군인 가서 씹겏다는 거여. 나라를 지키겏다고.

102006 @ 단순히 나라를 지키겏다고 행 싸와시카예? 아니면 4.3 때 어떤 그.

102006 # 그런 영향이.

102006 @ 막 뭐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흑시나 또 빨갱이로.

102006 #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여기는 지금 폭도, 산에 올라간 사람이 우린 공산당으로 생각했단 말이주. 이제 그런 사람들도 4.3 유가족으로 다 보상도 받고 하는데, 우린 사상관계는 모르고 그런 4.3사건 때 막 그런 그 어려운 일 다 겪어나니까 이건 공산당허고 씹는 정신이 잇겏지요. 학생 때 지원해 간다는 것이 혈서 쓰면서.

102006 @ 그 때 삼춘도 군대 가수과?

102006 # 아, 그때 난 안 가고.

102006 @ 그 때가 몇 살 썸 돼수과? 50년 전쟁 때가.

102006 # 그 때가 혼 몇 몇 살 때, 아직 쭈무 살도 안 될 때.

102006 @ 아까 그 말씀 중에 선생 하던 사람 죽엇젠 헛잖아예? 그 사람은 보목리 사람이어수과?

102006 # 예 보목리 사람.

102006 @ 원래 보목리마썸?

102006 # 원래 여기 보목리가 고향인데 일본 가서 공부해 온 사람인데 공부할 때 이 사상 그런 계통에 뭐가 이섯는데, 여기 와서도 선생 허면서도 우리 담인 선생꼬지 헛는데, 우린 그런 거 사상 같은 거 몰랐단 말이여. 우리 어릴 때라서. 그

당시 4.3 때 사상 그 책임자 되다시피 한 사람이 여기 서귀 정방폭포에 살아났어요. 이 뭐 그 사람이 가끔 보민 그디만 간단 말이에요. 보고도 우린 몰라네. 그자 우리 담임선생이고 여기 사람이고 하니까 사상은 몰르고 그 왜 자꾸 그 어른네 집에 가서 영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알안 보니까 그 분도 죽었는데.

102006 @ 그 분은 누구봐?

102006 # 여기 잇는 사람? 한행유라고.

102006 @ 그 한행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업 때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켰다던가?

102006 # 아니 그런 거 어서.

102006 @ 아니면 행동에 뭐 막 나쁜 짓을 한다든가.

102006 # 아니 그런 거 없고, 우린 그런 것도 일체 몰랐고,

102006 @ 경해신디 그냥 단순히 사상이 안 좋텐 헤가지고?

102006 # 그런데서 같이 어울려서 그런 거지. 학교 안에다 우리 뭐. 예기해도 그 당시 뭐 어려노니까 사상이 뭔지 뭐 몰랐을지 모르고.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나 기억나는 건, 학교생활 말고는, 보통 보며는 그 그런 계통으로만 땡기면서 같이 어울려 다녔던 같애.

102006 @ 그 분은 뭐 장가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어수과?

102006 # 아니 지금 여기 부인은 살아 이십주.

102006 @ 자식은마씨?

102006 # 자식은 아들 하나 잇다가 아들 죽어 불고 홀로 할머니 혼자 사는다.

102006 @ 혼자 사는다 지금 연세가 잘도 많으키여예?

102006 # 지금 할머니가? 지금 혼 구십 다섯인가? 구십 혼 너댓 웨엄주.

102006 @ 지금 사람들 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이수과?

102006 # 그 할머니예? 할 수 이십주.

102006 @ 그 분 성함을 좀 가르쳐 주십서.

102006 # 양정삼.

102006 @ 이 분, 양정삼 할머니는 뭐 하명 살암수과?

102006 # 얼마 전 까지는 잠수 헛주 잠수.

102006 @ 아이들은 몇 명 이서나수과?

102006 # 아이, 아덜 하나 이서 나신디 교통사고냥 옛날에 죽어부니까. 이 할무니도 남편이 어떻게 죽어신디 모를 꺼여.

102006 @ 교통사고 나그네 손지도 안 냉겨 죽어부런마썸?

102006 # 예.

102006 @ 어틸 때.

102006 # 총각 때.

102006 @ 잘도 힘들어시키여예? 경행 재혼도 안행 계속 혼자 살고예? 지금은 먹고 사는 거 해결 헤마썸?

102006 # 먹고 사는 거는 발이 이서나신디 밑으로 양자, 양자는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발 하나 작은 거 이서나신디 지금은 팔앗는지 어떤지 몰라도.

102006 @ 물질 허명예?

102006 # 지금이야 물질 안 흐주 마는 주로 물질해서.

102006 @ 오늘 작업 끝날 갈 때 집만 좀 그르켜 줘서.

102007~ 102009 @ 여자삼춘이랑 결혼 할 때 중매결혼 हे수과 연애결혼 हे수과? 여자삼춘은 할머니가 키엇던 헛지예?

102007~ 102009 # 건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 헛 때?

연애라고도 할 수 잇고 중매라고도 볼 수 잇주. 연애라고 할 수 잇지. 나도 그 당시 교회 텅길 때니까.

102007~ 102009 @ 무사 교회 안 다녔수과?

102007~ 102009 # 중학교 때부터 총각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 다니명 결혼 헛는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제사 관계 때문에.

102007~ 102009 @ 아, 맞아. 교원 제사 허지말렌 허지예?

102007~ 102009 # 우리 형님이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그 당시 그 노태우대 통령 1년 후밴디 13기.

우리형님은 육사 나오니까 죽도록 군대생활 헛거니까 나보고 제주도로 가서, 군대 생활 나도 제주시에서 헛어요. 여기 제주도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사 고튼 거 알아서 허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주.

102007~ 102009 @ 그러면 여자 삼춘이 제사음식 안 헛니까?

102007~ 102009 # 메뉴리가 다 허는 디.

102007~ 102009 @ 게민 여자삼춘은 절도 안 헛니까?

102007~ 102009 # 절? 메뉴리가?

102007~ 102009 @ 아니, 여자삼춘이 제사상에 절 안 헤마썸?

102007~ 102009 # 아니 여자들은 제사상에 절도 안 허고.

102007~ 102009 @ 보목리는 여자가 절 안헤마썸?

102007~ 102009 # 안 해.

102007~ 102009 @ 아, 기파?

102007~ 102009 # 제사에 여자들이 거들어 주기는 하는디 절은 안 허여.

102008 @ 사주는 봐그네 결혼 हे수과?

102008 # 사주? 우린 그런 거는 안보고 결혼 헛주. 날도 안 보고.

102009 @ 그때당시 결혼 헛 때 혼수품이나 예물 같은 건 이서수과?

102009 # 예물, 예물이 없엇던 거 같애.

102009 @ 반지 같은 것도 주고받지 안헛예?

102009 # 아니, 반지도 안 헛거 답아.

102009 @ 그 여자삼춘이 고아처럼 커서 여자삼춘이 할머니가 여자삼춘을 키웠던 헛잖아예?

그르는데 애기 때부터 자라는 걸 계속 봤겠구나예? 옆에서.
 102009 # 누가? 나가?
 102009 @ 예.
 102009 # 고아. 어릴 때는 여기서 살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서귀포 장사 허니까 그 고무신 장사.
 저 이모부가. 거기 가서 어린 때부터 신부름하면서 살았지. 거기 가서. 경허다가 바로 우리 옆집이 외할머니 집이다. 주로 외할머니가 키와줬주.
 102009 @ 아,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고. 경헛구나게. 계도 올 때 혼수품으로 이불은 헝 와실 거 아니짜?
 102009 # 아, 이불 헛나혀고 퀘 헛나.
 102009 @ 퀘예? 그 퀘는 아직도 이수과?
 102009 # 예. 옛날에 잘허민 이불 하나에 퀘 하나고 웬만허민 이불 호나.
 102009 @ 이따가 애기 끝나민 퀘 사진 좀 찍우쿠다예.
 102010 ~ 102016
 102010 ~ 102016 @ 결혼식은 어디서 헤수과?
 102010 ~ 102016 # 옛날 마을회관. 지금도 잇주만.
 102010 ~ 102016 @ 사진도 찍언마썸?
 102010 ~ 102016 # 예. 찍언.
 102010 ~ 102016 @ 사진 이수과? 이따가 사진도 찍게예.
 102011 @ 그러면 결혼 현 다음에 신혼살림은 어디서 헤수과?
 102011 # 그 당신 여기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살던 밖끄레. 안팍끄레 나신디 그 당신 밖끄레. 고치 살앗주.
 102011 @ 밖끄레예. 이 집은 지은 지 오렌마썸?
 102011 # 이거 76년도.
 102011 @ 이 집 지으멍 여기로 이사 오신거짜?
 102011 # 예.
 102011 @ 그르든 그때부터 이제까지 산거마썸?
 102011 # 예.
 102011 @ 그때 이 집 지영오멍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정 산거마썸?
 102011 # 예.
 102012 @ 아이들은 몇 남 몇 녀 짜?
 102012 # 2남 3녀. 위로 딸 셋. 밑으로 아들 둘.
 102012 @ 아이고 어머니 잘도 걱정 헤시키여예. 옛날이라부난예.
 102012 # 아, 예.
 102013 @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를 특별하게 구박하는 건 어서수과?
 102013 # 없언,

102013 @ 어서수과?

102013 # 다털 고아출신이라는 걸 알아노니까 구박 할 수가 없었지.

102013 @ 고아 출신인데도 그처럼 선뜻 결혼해야지 헨 건 몇 년 정도 사귀난 결혼 해야지 허는 생각이 듭디가?

102013 # 몇 년 정도? 헨 1년 정도도 안 되실 거여. 제대해 와서 얼마 어성 결혼 헤시난.

102013 @ 여자삼춘은 처녀 때 막 고와난 거 님아예? 지금은 얼굴에 막 뿔 낫주 마는.

102013 # 고와서 헨 게 아니여.

102013 @ 동네난 헤수과?

102013 # 허허 예.

102014 @ 지금 그 3녀 2남 다 결혼 헤수과?

102014 # 2남 3녀 다 결혼 헛어요.

102014 @ 첫 딸은 몇 살이고 막내는 몇 살이과?

102014 # 큰 딸은 60년 생이고 막내는 70년 생.

102014 @ 10년 사이에 다섯을 나시난 계속 두 살 터울로 낫구나.

삼춘네는 형제가 몇 이어수과?

102014 # 우린 스남 이녀. 스녀 이남.

102014 @ 그 중에서 막내가 아들이엇구나예?

다 지금 살아 계션마썸? 형제들?

102014 # 지금은 누이동생 하나 잇고 나하고 둘.

102015 @ 지금 며느리가 둘이고, 사위가 셋인데 명절 땐 다 잘 모입니까?

102015 # 예.

102015 @ 어디 제주도 살암수과, 육지 살암수과?

102015 # 딸들은 우리 마을에 둘이, 큰 딸은 도순이, 여기 가까운데 다 이서.

102015 @ 아유, 다행이다예? 아들들은마썸?

102015 # 아들허고 며누리는 여기 하효, 가까운디 둘이 살고.

102015 @ 며누리허고 사위들은 문제없이 삼춘네 한티 잘헤마썸?

102015 # 예.

102015 @ 다행인게예? 계민 손지는 다행 땃싯과?

102015 # 외손지 깁지 허민 딱 열 사람.

102015 @ 외손지 성손지 까지 다 합쳐그네예?

102015 # 예.

102015 @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그림거나 막 생각나는 어떤 것들은 어수과?

102015 # 옛날에 우리 부친이 굉장히 엄헤노니까, 말도 못헛어요. 무서와서.

102015 @ 어머니마썸?

102015 # 어머니 뿔 진짜 깔끔허고, 뿔 마찬가지. 철저허고.

102015 @ 어머니 몇세에 돌아가셔수과? 삼촌 몇 살 때?
 102015 # 83세에.
 102015 @ 그며는 삼촌이 한 원이나 예순 될 때 돌아가셔수과?
 102015 # 예.
 102016@ 특별나게 메뉴리 안티 뭐 하고 싶은 말은 어서마썸?
 102016# 뭐 잘하니까 뭐, 특별하게 뭐 할 말 어서. 잘하니까.
 102016 @ 다행이우다예.
 102016 # 돈 없어서 못사는 게 문제지 마음만 들면 되지 뭐.
 102016 @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은예.

2. 제보자 일생(양정삼)

102001 @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삼촌 부모님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나신지 고라
 줘서.
 102001 # 태어난거사 첫동네서게.
 102001 @ 볼목리 첫동네서예.
 102001 # 응. 볼목리 첫동네서 이디 시집을 왔주게. 동카름으로.
 102001 @ 동카름으로예. 몇 남 몇 녀 중에 머렌혜수과?
 102001 # 팔남매에서 막내.
 102001 @ 팔남매 막내에서 아들?
 102001 #아들 셋.
 102001 @ 아들 셋에, 넷마씨?
 102001 # 다섯 아니라.
 102002 @ 아 맞다예. 그중에서 막내예? 그 당시에 부모님은 뭐혜수과?
 102002 # 아 노동밖에 더혜게. 촌에서.
 102002 @ 노동예? 어떤 어떤 농사 지언마씨?
 102002 # 조, 보리 그때사 조, 보리 막 헐 때주.
 102002 @ 배는 혜수과?
 102002 # 바당에 배?
 102002 @ 예.
 102002 # 안허고게. 첫동네는 바당에 배 헌사람이 벼랑 드물주게. 일루 내려강
 아래가 바당에강 하주.
 102004 @ 아버지는 원래 볼목리렌 하셨지예? 어머니는 법환리고예?
 102004 # 응.
 102004 @ 그면 혹시 삼촌 어릴 때 기억 되살려봅서. 어렸을 때 뭐하멍 놀아수
 과?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이 종류.

102004 # 종류사 옛날엔 흑자과리도 허고게, 경해낫주게 그거밖에 무시거. 바당에도 가고 그거.

102004 @ 흑자과리 할 땐 어떤 식으로 놀아수과?

102004 # 흑자과리 두린땐 이, 막 흑모양 헤그네 물 놔그네 요런 폴꿈치로 똑 허게 지르민 동글랑 허지이, 그민 솟이렌 허멍, 아주 옛날엔 경허멍 문.

102004 @ 솟 행 뭐헤수과?

102004 # 뭐헤서게, 그자 방디가 그거주 두린땐.

102004 @ 그 솟에 경행 뭐 슬마먹으멍?

102004 # 슬마먹으멍 헤서게, 기자 허는추룩 흑으로 요런 폴꿈치로 꼭 눌르멍 솟이여 솟이여 헤낫주게. 그거 무신 들러그네 어떻 자과리 헤나서게.

102004 @ 그런 거 말곤 다른 건 어수과?

102004 # 다른거 무시거게? 바당에 이제 흐꿈 텅기다네 기자 바당일도 난 잘못 헤여.

102004 @ 기지예? 그리고.....

102004 # 바당에 텅기멍 저 섬에도 가고 물질허레 거기도 가고 이디 섬도 휘어 가고 휘어오고.

102004 @ 물 쌀 때마씨? 들 때마씨?

102004 # 물 싸고 들 고.

102004 @ 물 쌀 때도 들 때도 상관어시 그 섬까지 가수과?

102004 # 오게. 테왁 짚으민게. 옛날엔 낭도 여성 썩섬에 강, 낭 헤당 이꼬지 요 목에꼬지 꼬서오주 휘어그넝.

102004 @ 그 흑시 썩섬에는 어떠한 낭들 이서신지 기억남수과?

102004 # 하간낭들 해주게. 대랑 무신낭이랑 이디시는 낭이랑 하.

102005 @ 그때가 일제 강점기 때지예?

102005 # 우리 저 할 때? 일제 강점기멍 말멍, 이제 옛날에사 나무도 어서그넝 고지강 저당 헛주게, 저 한라산 강 저당. 지게로.

102005 @ 맞수다게.

102005 # 지게로 몇 번 가와신디.

102005 @ 아, 지게로 갓다와수과?

102005 # 오게 지게로. 영~ 행.

102005 @ 지게말로 또 영 지는 그걸 뭐렌합니까? 우리 긴긴한 그거.

102005 # 지게벧귄 더 이서? 등으로 옛날에사.

102005 @ 등으로 영 묶어가지고 짐지는 거.

102005 # 게매 지게로 낭헤영 무꺼그네, 이뤘 낱, 지게로 저그넝 움직이고.

102005 @ 아, 지게로 헛구나예? 질빵이파 머파? 무시거.

102005 # 그 배? 배로도 지주게.

102005 @ 배로도 젓지예?

102005 # 응. 베로도 지고, 지게로도 지고.

102005 @ 그때 일제 강점기에 물에도 들고 영 허면, 소라나 생복 같은 거 잡으면 그 일본사람들이 몇 개는 가져가고 이런 건 어서수과?

102005 # 기자 받아 가주게. 바당 강들 구쟁기영.

102005 @ 그걸 일본사람들이 반양가마씨?

102005 # 기자 이디사람이 몬 받는 사람이 받아그네 아저가주게. 제국시대엔 경 안헨디, 이젠 막 경헨저.

102005 @ 아 계민 제국시대엔 어떻게수과?

102005 # 옛날엔 경 안해서 나만 몰라도. 우리 물에 들기 전인.

102005 @ 해방될 때가 몇 살쯤 돼수과?

102005 # 해방될 때 알아지크라. 해방사 8월에 뵈주만은 이.

102005 @ 그때가 시집간 때파?? 시집 가수과?

102005 # 그때 시집 갈 때주게. 시집 가그네게, 일본서 미국 비행기 오라그네 막행, 느랑가불민 또 요만석한 거, 전깃다마 꼭 전깃다마 닳은 거, 폭! 하게 알르레 떨어지민, 기자 세멘집이고 아무집도 얼랑얼랑 불 붙어그네, 놀레영, 그때 우리 오라비엇주. 8월에, 정월 초신에 오나네, 불,노레영 죽어지카부덴 광팡 헤가난, 계난에게 자꾸 사흘돌리로 그거 떨어지민 놀레영, 소마, 벨집이여도 다 카고고 허난, 노레영 정월에오난, 팔월드레 나난 십일 광복절 되어네.

102007 @ 그때는 아이 낳을 때파?

102007 # 딸, 배에서 나서 배에서.

102007 @ 아 배에서 나수과?

102007 # 배도 일본가는 배, 군대 왕, 딸도 나고, 다른 사람, 아들도 나고, 배에 노레영들 죽어지카부덴 일본서 오단보난 아기배 맞추는 걸게.

102007 @ 아 배에서 나수과?

102007 # 응.

102012 @ 아이고 그럼 그 딸은 어떻게수과?

102012 # 죽어빚주게.

102012 @ 몇 살에 때 마시?

102012 # 세 설 뎡가? 우리 아방이 학교 선생이랏주게, 일본 가네 몬 밧 폴양강 공부행 오랑, 옛날도 이디 오라동 서귀포국민학교부터 한 오년 헤실거라. 난 한 스물셋에 나신디, 그거 딸 흥나 나네. 학교선생질 허난 아기도 그때 그 막 무시거헤네, 저 학교 선생이나네 육학년 맡으주게. 하강것들 먹을 거 조립하는 학생들 선생들 대접하젠 먹을 거 가져 왕, 오랑 게, 먹는 가운데 밥 헨 주당게, 반찬이영 헤그넝 주젠 헤부난 아이는 어떻게, 어디 체시강 보난 데영, 데영. 그뎡 약도 어션.

102012 @ 아 뜨거운 물에 데여불엇구나.

102012 # 응. 상 알르레 들영 어떻 그 알르레사 들어가신지 돌아헿길 때.

102012 @ 아이고.

102012 # 그땐 약도어서 옛날에난.
 102012 @ 아이고 잘도 속상해서켜예.
 102012 # 약 어시난게, 이제사 까짓 거 살지만은 약이 어신 때라.
 102012 @ 계민 그다음에는 아이를 언제 나수과?
 102012 # 언제사 나신지 기억이.
 102012 @ 그 딸아이가 다쳐 사고 나서 죽어버렸잖아예? 그다음에 아들 나수과 아니면 그때 이미 작은 애기가 이서수과?
 102012 # 아들 나긴 낫주게.
 102012 @ 그다음에 마씨?
 102012 # 응. 아들도 낳다네 혼 스무남쯤 되나네 돈도 엇고, 공부도 허구족 허고, 학교도 하지 못하곡 허난 지냥으로 아파네 죽어빚주게.
 102012 @ 아이고 잘도 속상해서쿠다게. 기면은 그때 아들아이 낳 때는 선생님 은 살아계실 때 마씨, 돌아가실 때 마씨?
 102012 # 산 때주게.
 102012 @ 산 때긴 혜수과? 계민 물애기 때 돌아가셔수과?
 102012 # 혼 서너설에. 두 술 아님 세 술일 거라. 자글자글 걸을 때나넨.
 102012 @ 아이고, 그 둘인 거 나동 떠나젠 허난 잘도 속상해서켜예.
 102012 # 나 어디장 오랑보나네 막 감지 놀 때라, 오월 달에 유월 달에가 감지 노난, 아베아들이 놀렌 혜동 오라보난 도랑가불고.
 102012 @ 애긴 혼자 여기 있고?
 102012 # 애기 맡겨도그네 여기 시집이 이시난.
 102012 @ 계난 마지막 얼굴, 말도 못해봤구나예?
 102012 # 마지막 말도 안에봤주게게.
 102012 @ 바로 그날로 저기 배 태웁 가부러신가마씨?
 102012 # 아니 갖다네 오랑, 아무 췌도 어신걸로 혜네, 어디 가네 혼 멧 달 살 당 오랑 이디 사노렌 허난, 막 이디 전쟁 크게 일어가난게, 그때는 돌아 간 거주게. 다 경헌 사람들이주. 아무 췌도어시 나도 갖당 이디왕 이 집 지성 살단 사노렌허난 막 소못.....
 102006 @ 아 한국 전쟁때마씨? 6.25 전쟁 때?
 102006 # 한국계.
 102006 @ 아이고 경헛구나예. 경헹 어떻헹 샅디가?
 102006 # 어떻헹 살아게. 그럭저럭 헹 살앗주게.
 102006 @ 맞수다게.
 102006 # 그럭저럭 헹 이제도록 살앗주게. 그때사 무신 췌어신 사람 췌어신 사람해서게. 아무, 춤, 학교텅기는 눈치도 나타나지 안 허고, 온, 볼목리 혼사람 허난, 하효사람들도 이사람 동창이나 벗이나 한사람들 문 심어가네. 니네 벗은 누게넹 혜 그네 이치가 그건 거주게.

102006 @ 맞수다예. 옛날에 그때는 경찰들이 데려가수과 군인들이 데려 가수과, 아니문 서청들이 데려 가수과?

102006 # 경찰들이 허지안해서. 나사 봐서게 심어가는 거.

102006 @ 동네사람들이 뭐렌 고라주지 았읍디가?

102006 # 동네사람들이 뭐 경 쉽게 데려가느냐게? 곱양잇다그네 오랑 그런 사람들 어떻게 헤신지 난 모르주. 이런 거 저런 거.

102009 @ 그때 당시에는 게른 시집갈 때, 말씀 해 줏잖아예? 이불 두 채 행 왓덴예?

102009 # 응. 나가 볼목리서 두 채 행 강.

102009 @ 이불 말고 다른 거 헌건 어서수과?

102009 # 다른 것들사 그때 옛날이난게 무시거 헨가게?

102009 @ 맞수다예.

102009 # 이불밖엔.

102012 @ 경허면 아이고 선생도 돌아가시고 아들하나 키우면서 뭘 헤그네 먹고 살아수과?

102012 # 뭘행 먹고 살아서게. 일도허고게 바당에도 물질도 잇당하고, 물질은 크게 못허주게. 경허멍 어떻게 살다보난.

102016 @ 계난 물에 몇 살까지 물에 들어집디가?

102016 # 혼 칠십까지 들어저실거라 칠십 몇 깐지.

102016 @ 아이고, 알아수다. 그런게 중요해가지고, 볼목리에서 계속 살면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살면서 우리 제주말은 어떻게 썼는지 이게 알고 싶엇거든마씨.

2. 제보자 일생(김금진)

102002 @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어수과?

102002 # 아버지는 본 고향이 공천폰 디, 거기 살면서 해녀들을 물질 시키젠 육지로 모집 헤그네 물질 다닌 디, 우리 어머니가 큰 어멍 이신디, 나 흐나 나그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닐 너미 뭐헤네, 첨 육지강 살당 나흐나 낭 내부난. 이디 외할머니영 살멍 세 살로부터 열 네 살 까지 학교도 못다니고, 아이고 울어점저. 외할머니영 살멍, 여기서 농사하단. 이모네가 서귀포 나가멍 고치가젠 헨, 곳지 나갓주. 그때는 이모부가 옛날 노물씨 장사 그 거 하면서 육지로 가니까, 아버지가 대전에 가서 종묘사를 허니까, 이젠 거기 길을 알아가지고 저 애기 아버지도 혼번 노물씨를 헨, 우리 친정아버지 한티 보내수다게. 게 보내난 그 노물씨 값도 못 받고, 아버지가 풀아 먹어부런 안권.

계난, 이젠 결혼 험 때도 아버진 안 오고, 큰어멍에 오빠가 첨, 와네. 이 외할머니

네 집에서 결혼 허니까, 이모도 도와 주고, 오라방도 큰어명도 이서네 도와주고 해네, 큰어명도 이불 흔 채 해주고, 할머니도 흔 채 해주고 허난 이불 두 채 헛주마는, 그 때, 어젠 흔 채로 헨 어젠 사진 찍어 갖구나 예? 거난?

102002 @ 이불은 못 찍고 예, 이불은 어디신지 몰란 퀘만 찍어수다.

102002 # 이불도 그 바끄레 그 단수에 기냥 솜이불이난 다시 태와네 만들어단 단수에 그냥 잇주게.

102002 @ 아, 거 이수과. 나중엔 다시한 번 찍게 예.

102001 # 계난에 그런 정도로 생활 허단에 열여섯 살 때 우리 이모부가 부산에 가서 고무신, 고무신을, 이제는 2만이 아장 불르민 오는 디, 그땐 본인이 가그네 문수를 차근차근 뿔 문짜리 뿔 문짜리, 이제는 뿔 미리로 나오주 마는, 그 땐 155몽 170몽 그런식으로 나오난, 무조건 가마수에 담양 오민, 서귀포 판자집에서.

낮에는 여기 왕 밭농사 허곡, 열여섯 살 때부터 밤에는 강 촛불 켜그네, 전기도 어신 판자창고 요메니 헌디서,

겨민 그걸 진열도 못헿 가마수, 온통 열 가마수 이상 갖다 느민, 뿔문 도렌허민 그걸 가마수에거 다 꺼네 봐사 어느 문수가 이 가마수에 들어 신가 헤영, 그 거 풀명 헤네, 열아홉살 되나네, 나냥으로 이모부 고무신 때레 안 가도, 나냥으로 부산도 뿔 번 가 오고, 서면 쪽에 공장 이시난 그디 가 오고, 또 그 고무신 팔면서 서귀포 장날 허고, 남원 중문 장날은 같은 날이고, 서귀포는 틀린 날이난, 남원일 이모부가 가민 난 중문이 가고, 나가 남원이 가민 이모부가 중문이 가고, 경헿 고무신을 풀민, 이모분 강 막걸리 먹당 보민 고무신 수입을 못뿔 오고, 나는 얼마 풀양 오민. 이모부는 참 좋은 어른이라수다. 다 돌아가부러수다 마는. 이거 영 헤그네 조캐가 하영 폴아 와시난 뿔 할 돈 떼영, 이제추룩 적금 통장 잇고 양, 어디 저금 허는 디 이시민, 나 돈 하영 모얏주 마는. 기자, 난, 거 아심니깡 허영 기냥 난 고찌 허곡, 돈 계산도 나대로 다 허곡, 부산 갈 때도 나대로 돈 얼마 챙겨 가곡 허명 헤네.

이젠 흔 스물두 설은 나나네, 이제 공천포 우리 오라방이이 이서수다. 그 오라방이 이제 시집 가렌 허명, 이제 열아홉살은 나사 오라방네도 날 좇아 와십디다게. 아버지안티 들어네, 이제, 볼목리 이마저만헿, 누이동생 잇젠, 좇아 가보렌 헤연, 우리 오라방네도 아덜만 큰어명넌 아덜만 네 개난 딸이 어시난 나 좇아 온거라 마썸. 경헤네, 허난 나 그때 열아홉 뿔사 나 좇아 와시난, 나가 남저라시민, 학교도 못 가고 군대 갈 정도민, 호도 어서나수다.

경허나네, 호는 그때 물질 갈 때에 2찌, 저 토산 어른 김 씨나네, 그 알로 기자 호적을 올린 이시난 2라, 어머니 돌아가부난, 이제 그디서가, 그 집안도 딸만 이신 집이난, 그 집안 환경이 양제 들젠 허나네, 나가 호적에 이서부난, 호적을 이제 떼가렌 헤네, 이제 볼목리 좇아 와시난, 나 스물셋 넘어네 흔 스물다섯도 넘은 때에, 경허난, 난 호적 어시나네, 첨, 이 아방이영 결혼헤네, 큰 아이 나나네 양, 올리젠 허나네 호 어시난 호를 기냥 만들어 놔비십주게,

102007 @ 뿔 살 때 결혼 हे수과?

102007 # 스물세 설에.

102012 @ 큰 아인 멧살 때 난마썸?

102001 # 스물세 설에 나네. 계난, 그 땐 헐 수 어시, 난 호 남저라시민 병력도 뉘헐꺼고, 무신 소리 험시닌 헤네, 그 호 관계로 헤네, 토산서 와시난 막 싸와 나수 다게.

경허네 이젠 현디, 그 불목리 똥 잇젠 아버지한테 들은 그 나, 츠지레 온 그 오라 방도 막 젊은 때 돌아가불고 암으로 또 그때 경헨허난, 나만 그자 외롭게 시리 오라방덜 이서도 일본도 살고 공천포도 살명 서울도 살고 헤도 뉘헤네 현디.

그자 그럭저럭 허단 이디서 시집은 가난, 허난 시어멍 허고 우리 큰어멍이 애기가 어쉽디다게. 큰동세 허고 이디 집에 아방허고 아주버니 허고 들이 뿐인디, 애기 어시난 그 어른이 이젠, 서울 장교로 육사 나완 장교로 이시멍 이디 어머니영 아버지영 모성 살라 허는 식으로 헨, 이디서 모성 사나네 걸름밭 헐 때도 나가 들어서, 시집은 간 보나네 받은 이서도 농사 허쟁도 안 허고, 기자 시누이덜 두 개 이쉽디다.

시집 안 간 시누이 두 개 이시난, 그 시누이 이젠 흐민, 걸름밭 허젠 흐민 새백이 일어냥, 도통에 득세기 질왕, 그 걸름 내영, 새백이. 보리씨 헤영, 보리 갈젠흐민 그 보리씨를 걸름 우에 막 빼영 뉘아 마썸. 땅 위에 걸름 떠다냥, 계민 저 아방은 꺾헤줘도 시누이덜은 원 그런 걸 생각을 안헨 흐민, 우리 시어머니가 성질이 바뻡 양, 막 무시거 허민 헤도 시어머니한테 꾸중 혼 번 안 들어뵘 살아수다.

큰어멍은 애기 못나가네 경, 애기 못나는 거엔 꾸중 들어네 스뉘 무시거엔 헤나수다 마는, 난 그럭저럭 헨 살명 그자 아방 침, 처음 연애 헐 땐 원, 사름이 닳아 뵤나 안 닳아 뵤나 말이 어쉽디다게. 경허민 이 제주병사구에 이서그네, 군인 침, 휴가 와그네, 여름썸 저녁 때 왓당 아침 갈 때는, 난 또, 아침은 아방이 휴가 와그네 흐루라도 시에레 넘어 가젠 허민 걸영다닐 때우다게. 울로 묵은 길, 걸어다닐 때 난 아방은 걸어그네 저레 넘어 가고, 난 또 고무신 밤에 강 풀아그네 이레 왕 이모네 밭농사, 밭농사 꺾헤젠, 이젠 또 저 이레 걸영 오곡 허민, 경헤도 말 흐마다 안허곡 기자. 무신 전화가 이서나수과 무시거기 이서나수과?

강,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나민 밤이 인척이나 만나지민 흐쉴 아장 말도 곳곡 양, 경허멍 허멍어멍 침, 이루어져네, 결혼은 헤집디다 마는, 그런식으로 나 산 거.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이서시민 나도 공부라도 헐 뉘 디, 이 보목국민학교 그 땐 바로 이 터우다. 우리 서넉뵤, 그디 헐 때에 이디 허민, 이모네 애길 나민 애기 업어그네 학포 갈주게 나가, 이제 외할무니넨 이디고, 외할무니네 집에 살명, 이모네 이제 애기 나그네 허민 이디 어병 가민, 답님은 이제 강읍장, 석하읍장 이라수다. 연날애. 그 어른이 허민 날꺾라 “애기 집에 들여 나뉘 와” 허민 양? 모수왕 기냥 와불고, 흐번은 또 애기 업영 갖다네, 하도 가렌 헤가관테 “애기 울지 앓으면 나 공부 흐끔 허쿠덴” 영 헤연 책 봐가난 책 확 빼돈 “집이 가!” 허난 와네 양?

102001 @ 무사 경헤신고 예?

102001 # 애기 들양 갖젠마썸게. 다른 학생들 안티 이제 다른 뭐를 모범 배와주지 말렌 허멍, 그추룩 헤네 이제 학교도 못다니고 헤어네 침 허는 디, 피난민덜 온때에 제일 먼저 침, 51년도에 양? 피난민덜 오나네 저 밑에 이제 묵은 교회 이서수다. 우리 손으로 지어네, 헝다네 이레 침 뉘헌디, 이거 교회 뉘헌지도 64년 이우다게. 올리끄지 헝민 64년 되수다게. 그 64년 동안 기자 뭐 허젠, 교회 막 다니젠 허난, 다니멍 헌디, 그 교회를 지서네 어떻어멍 허는 것이 침, 교회도 나가지고, 경헝저 아방도 교회에 막 다니다네, 군대 갖다 오난 안 다넛디다 게.

군대 갖다 와네 헝꿈 다니단, 나영 결혼 허난, 할망네가 큰메누리 서울 이시난, 우리그라 식개 멩질 허렌 허멍 양? 헤가난 나 자신도 양? 교회 다니멍 시부모 허는 거 거절허지 못헤네, 기냥 식개 멩질 허멍 침, 이때 꼬지 살멍 헤어네 이수다 마는, 책을 멘들젠 허민 나가 즈근즈근 다 곱아사 책을 멘들건 디, 아피 현 것도 곤곡 뒤에 현 것도 곤곡 헤점수다.

102013 @ 팬찮수다. 시집살이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넘어가기로 하고 예?

3. 밭일(@: 최연미, #: 김금전)

보리농사

103002 @ 보리를 지엇던 헝 게 마는 보리농사 짓젠 허민 처음에 어떤 무신걸 준비헤사 됩디가?

103002 # 보리농사 허쟁헝은‘ 금년에 현 보리를 네년에 갈쟁 허민, 보리씨를 밧이 멧 췁이민 밧이 백오십 췁이 현 말지기민 현 말지기에 보리씨를 얼마 놔두느냐, 이런 식으로 신경 써그네 보리씨를 현말지기에 멧말 드는 거, 이런식으로 허민, 백오십췁 이민 현말지기난, 헝 말지기엔 헝민 보리씨도 현 말,

103003 # 겨민, 새백이 그 돛걸름을, 연날 돛통, 도새기 질루는 디, 그걸 많이 헤그네, 바당에 가그네 몰망도 헤다 놓고, 보리 갈아나민 보리냥 그걸 도통에 담아놔, 바당에 강 그지기엔 현 몰망, 그걸 즈물아당 그 보리냥 우이 놔사 걸름이 하여영 되어그네, 네년에 보리 갈거라 허민, 그 걸름을 모이젠 허민, 걸름밭 헝 때 되민 이제 그 걸름을 다, 소시랑 헤그네 곱체, 연날 영현 곱체, 그런거 헤그네 곱체에 담으멍, 지게에 저그네, 올레 베끄레 펜펜헌디 문딱 저다 낱.

그 우위 보리씨 빼여그네, 또 그뎌 무신 비로도 없극 무시거난, 보리씨 빼영, 췁벌어그네, 막 불러, 불러그네 그 걸름을 이제 문 오려와그네 막 사름으로 불러, 저레 밧드레 날라가젠 허민, 담지 조케시리, 그날 다 못담양, 오늘 걸름 내민 헝났왕낼 담양. 그뎌 구루마도 엇곡, 등짐으로, 돛걸름 멩텅이엔 헤그네, 요만이 현, 하르방덜, 찍으로 현 멩텅이엔 헤그네, 돛걸름 멩텅이엔 헤그네 요만현 거 이서나서. 그런 거 헝 담아그네, 밧 먼딘 췁 헤영 구루마에 메와그네, 연날 구루마도 그, 연날 무신 군인덜 완 뉘 헤난, 벻정 구루마엔 헤그네, 바퀴 큰 거 이서나네 그런 걸로 빌

멍, 웨이시민 그런 걸로 싯경 강, 밭이 강 또 사름으로 저내곡, 구루마 못들어 가민, 경허멍 침, 보리농사도 허곡,

그 보리 헤어그네 갈민, 겨울에 이정도로 겨울에 허민, 그 뭐가 그 보리가 눈올 때 납작허게 허젠 블라 마썸, 포기를 영영 흐끔 포기 안게, 보리를 이추룩 요만큼 자리민, 추운 때 땅이 폭삭 헤부난, 그 땅 놀루젠 보리 블라주어그네 흐민, 보리가 잘 되영 흐민 보리밭이 그거 검질 흥번 메는 체 헤그네, 그걸 헤영 또 이제 오월 장마 때 웨어가민, 그 보릴 비쟁허민, 이제 침,

하영 헤어도 늡 못빌민, 그 땀 늡도 빌지 안 허곡, 기자 집 식구 끼리 가그네 보리 흐끔 비다그네 침, 더우민 와불곡, 헤영 이녁만씩 작업을 헤영 허는디,

그 보리 헤그네 오늘 비민 물류와그네 널 썸엔 묶으젠 허민, 비오민 젖어불민 그거 또 묶으지 안 현 때 비와불민, 영영 또 뒤집어 놔그네 텃사냥, 텃사놔그네 그걸 헤영 흐끔 물빠지민 묶어당, 집이 와그네, 또 그때 저, 보리 클이엔 헤그네, 영 사그네 영영 홀트는 거 이서나서, 경행 홀트는 거 헤그네 홀타그네, 드께로 두두리곡 헛주게.

보리농사, 경허단 나중엔 이제 침, 매타기덜 기계, 운반 허는 거, 그거 나그네, 홀탕 내불민 왕 그거 두두려 주곡 헤신디, 그 후에는 또 발달이 뭐냐면은, 기자 낭차 영영 메기민 또 보리 문딱 홀타지곡, 또 두두려지곡 허는 기계도 나와나곡, 경 보리농산 그추룩 헨 헤먹엇주게.

103004 @ 보리는 언제쯤 갈아수과?

103004 # 보리는 음력으로 동짓월에 갈민 오월달에 보리비곡.

103005 @ 아까 말씀 ㄱ를 때처럼 보리 갈젠 허민 남자 삼춘이 왕 거들어 줘야 되는데 혼자 만히 했다는 게 아니파예? 혼자서.

103005 # 아니 아방도 거들엇주게. 경허곡 보리갈젠 허민 웨 빌어그네 밭을 갈아야 할 거난.

103005 @ 웨 빌영 갈 때는 남저 삼춘이 했다는 거 아니파 예?

보리씨 뿌릴 땐 어떤식으로 뿌려수과?

103005 # 걸름에, 걸름을 옛날 돛통에서.

103005 @ 아까 걸름 헐 때 아예 씨를 서꺼그네 헤수광?

103005 # 걸름을 돛통엿 거 이추룩 영 굴체에 담양, 이추를 이출룩 흥짐씩 저당 노민, 즈근즈근 저당 노민, 이걸 스키랑으로 영영 굴루와, 이런 디 안 들어간 디, 골라 놔그네 그 우트레 씨 뿌령, 씨 뿌려그네 웨 헤영, 막 블리당, 밭자국 나게 허당, 또 어느정도 허민 또 이걸 두집어, 두집어 낱 또 블리주게.

103005 @ 그렇게 하기를 흥 매칠정도 헤여 마썸?

103005 # 그건 저 아침 새백이 그 걸름을 아침 일찍 허민, 빨리 허는 뭐는 기자, 걸름 하민 흐썸 텃시간 걸리곡, 경아녀민 흥 나절에 다 허주게. 나절에 헤그네, 가까운 밭덜은 그날 더러 저다 노곡, 뒷날은 웨 빌어그네 아세 걸름 영영 이런 땅에 노민 솟웨로 영~ 판이로 그 걸름을 막아.

103005 @ 판이 치명 흑으로 걸름을 영, 막아주는 거 아니파 예?
103005 # 응. 응.
103005 @ 아, 경헛구나.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103006 # 보리 종륄 슬오리엔 헤그네 꺾데기 어신 거 있고, 질오리엔 헤그네 그, 공판 허는 거. 맥주보리엔 헤그네.
103006 @ 그거는 푸는 거 예?
103006 # 응 푸는 거. 맥주보리, 그 질오리는 폴아도 되고, 슬오리는 안 폴앙 양 식으로 떡곡. 건 꺾데기 어신 거주게 슬오리.
103007 @ 보리 볏을 땀, 혼자 볏아수과? 아니면?
103007 # 혼자도 불르곡, 둘이도 불르곡, 땀 시간 안 블라.
103007 @ 아, 기파?
103008 @검질은 아까 대충 영 땀땀 헛게 마는.
103008 # 검질은 보리밭딘 혼번 메곡, 또 핫쫄 크민 그, 대우리, 그거 나민 그거 기자 땀기땀 뽀곡, 그거 보리씨 흑시 이서그네 씨 잘못 허민.
103009 @ 보리밭에 검질들, 아까 대우리라던가 또 어떤 종류의 검질들이 이서 수과?
103009 # 검질?, 보리밭딘, 경 심허게 나지는 안허는디, 기자 그 이제 어른들은 진쿨이엔 허주게? 가릿가릿헌 거 보리낭에 올라 오는 거. 그런 거 검질 윈.
103009 @ 대우리 허고 진쿨 예?
103010 @ 그 다음 보리 수확 헛 때 오월 쫄 헌덴 헛짚우파 예? 게민 보리벨 때, 그걸 어떻 베어그네, 어떻 묶어그네 어떤 식으로 그, 보리씨를 털어수과?
103010 # 보리, 비민, 그거 영영 비어그네, 영영 혼쫄쫄 영영 즈근즈근 느민, 흐 루 돌류왕 무꺼야 웰건 디, 비나 와불민, 또 강, 이추록 다 뒤집어, 뒤집영 몰야그네, 그걸 이만큼쫄 무끄는 사름 따루, 이추록 모아주는 사름 따루, 사름 이신디, 어 신딘, 이녁냥으로 모아노몽 묶으곡, 경헛그네 마당 널른디민 마당에서 멍석 깔곡 헤영 흘타느민, 그걸 비나 오민, 그때 진작 도께질 헤영 두두리질 못허민 또 땀그곡, 그 보리타작 헤그네 헛 때는 식구가 다 나사그네, 영~ 썰어라도 주곡, 도께로 두드리는 사름도 잇곡.
103010 @ 보리가 빌 때쫄은 비가 자꾸 올 때 짚아예?
103010 # 비 자주 올 땀 게민 게난.
103010 @ 혼 땀칠 정도 말려사 그걸 걸어져마쫄?
103010 # 거난, 비 자주 와가민, 거 보리 뒤집어그네, 비 맞앙, 흐루쫄 이시민 빨리 무꺼당 집에 와그네, 영 동글랑허게 놀 누렁 보릿단을 이추록 올려냥, 놀누렁 느람쫄 더꺾당. 날 좋민 그걸 흘타그네 두드려 부는 거.
103010 @ 경헛구나 예?

103011 @ 아까 도깨질 헛넨 헛짚우파? 도깨질 헛 때 그 때면은 흐루에 그걸 다 도깨질 헤집디가?

103011 # 흐루에 얼마 못허여. 한딘.

103011 @ 기지 예.

103012 @ 도깨질 다 헛 다음엔 이제 보리쌀을 만들어야 될 거 짚우파예?

103012 # 보리 허민게 그 ㄴ시락, ㄴ시락 ㄴ름에 불령, 보리, 벳나그네 몰라사, 물방엿간 연날에 이서나서, 서귀포.

103012 @ 서귀포까지 가수과?

103012 # 응. 서귀포에 정 가그네, 물방엿간에 가그네 흐김 동강, 그 보리 해당, 또 명석에 널영, 그거 몰루민, 그디 체, 보리 꺾테기 그걸 어땡, 불려그네 체 걸러 동, 또 보리쌀을 이제 ㄴ레에 벌닝, 경허그네 밥덜 헤 먹어낫주.

103012 @ 서귀포에 그 물방엿간 보고 연날에 뭇렌 ㄴ라수과?

103012 # 연날 말로 물방에.

103012 @ 거기서는 물을 이용해서 방에를 돌려수과?

103012 @ 돌린다음에 와서는?

103012 # 돌린다음에 이디 와그네 명석에 널어. 널영 영영 흐 두어 시간 몰라가 민, 꺾테기 허극 쓸허곡 구분데게 시리, ㄴ름에 또 불려, 불리민 꺾테긴 꺾테기대로 쓸은 쓸대로 나오민 이제 기냥 그걸 또 영~ 돌리민, 멧돌에.

103012 @ 멧돌을 뭇렌 헤수과?

103012 # 고레.

103012 @ 고레엔 ㄴ라수과?

103012 # 정 ㄴ레.

103012 @ 정 ㄴ레엔 ㄴ라수과? ㄴ레도 보난, 여기 죽은 거 있도, 여기 우녕빳디 큰 것도 잇짚우파 예?

103012 # 우녕빳디 큰 건 동네에, 동네에 옛날, 보리도 그 것에 헤영 굴곡, 조 나오민 조도 굴곡 헤난 거주. 돌아가멍덜. 경헤난 거, 저거.

저~ 밀엿거 아방이 기념으로 이레, 늣덜 다 싯거 가베가난 강 아저다 논거 고.

103012 @ 저거 만으로는 보리를 다, 못헤수과? 물방엿간 까지 안 가그네.

103012 # 물방엿간 어실 때 돌려난 거주게.

103012 @ 물방에 안 썩 서귀포에 강 한꺼번에 곱아올 때가 언제쯤이파?

103012 # 이승만 때도 닳고, 박정희 때도 닳고.

103012 @ 죽은 방에로는 무신 거 곱아수과?

103012 # 멧돌? 멧돌론 서귀포 강, 방엿간에 강 헤여오민, 숙박으로 ㄴ름에 불령, 멧돌에 영영 굴멍, 쓸을 깨연 먹엇주게. 보리쌀을 통차로는 안 먹엇주게.

103012 @ 기지에?

103012 # 경허영 멧돌에 영영 굴민, 체 이서이, 체.

체도 흘근 거 잇곡, 줌진 거 이시민, 경헤난 그 체로 민 굴령, 아랫 건 허극, 우잇

건 흘그민 또 허국,

103012 @ 경헛구나예? 저거 멧돌 말고 다른 거 이서나지 안 헤수과?

103012 # 멧돌말곤 무신거 어서나신디?

103013 @ 보리쌀로 밥헛 먹어낫잖우파 예? 보리쌀에 주로 뭐 섞영 밥 헤먹어나 수과?

103013 # 연날 보리쌀 헤그네 첨, 뭐영 곶아그네 잘 헤영 향에 담양 낫당, 가을 나민 조, 좁쌀 헤다그네 ㄹ찌, 좁쌀, 보리쌀 섞영 먹으민 막, 잘사는 집이엔 허국, 보리쌀 어시민 감저 허국, 좁쌀 낱 밥헛 그걸로 살앗주게.

103013 @ 혹시 개역은 안 멘들어 먹어수과?

103013 # 개역도 해당 먹고, 이디서덜 브리 뷁아그네, 저 멧돌에 곶앙도 먹고.

103013 @ 여기서도 기냥 개역이렌 헤수과?

103013 # 응 개역.

103013 @ 그 개역에 다가 밥을 영 비벼그네는 안 먹어봐수과?

103013 # 밥도 비병 먹고, 들게 먹젠 허민 사까린도 낱 먹고. 개역은 이제도 밥에 부병 먹업주.

103014 @ 게민 예? 아까 그 보리를 물방엿간에 강 곶아그네 오면 브름에 불리민 쌀 말고 체는 그냥 버려수과 아니면 다른 걸로 사용헤수과?

103014 # 보리체는 쉼덜, 쉼덜 농사짓젠 허민 밧 갈 때, 것 허는 거.

103014 @ 쉼 맥이는 거로 사용헛구나 예.

103014 # 응. 쉼 맥이는 거.

103014 @ 보리찍은 마썸?

103014 # 보리찍은 걸름용.

103014 @ 아, 아까 돛통에 놔그네 걸름 한다는 거 예?

103014 # 응. 걸름. 쉼 길루는 딴 그, 쉼막 안에도 깔아주어야. 쉼똥 싸민, 것도 걸름.

103014 @ 맞수다 예. 보리 ㄹ시락은 뭐에 써수과?

103014 # 그건 기냥 불 테와그네, 그건 또 불치, 그것도 걸름으로 썻주게.

103014 @ 그 불치로는 또 어떤 다른 농사에 사용 헤수과?

103014 # 불치는 아무 농사에도 썻주게.

103014 @ 맞아 예.

103014 # 그뻐 무신, 비료가 어실때난.

103015 @ 보리농사 지으멍 잊어불지 안 헤여 허는, 헛만한 기억 어수과? 뭔가 특별난 기억, 추억.

103015 # 보리농사 허멍 기억 나는 건 무시거, 처음 돛걸름 낼 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허코, 경헛도 헛시민 다 헤어져그네, 아이고 다, 일 다텻져 헤도, 일을 농사, 보리, 돛걸름 내영 보리 뭐 허민, 촌에서는 초가집 이시난 이제 세, 지붕 우이 일 거, 세 비레도 탱기곡, 이제 또 땡감, 낭허레도 탱기곡, 겨울에, 경허난 이제는 미깡

만 허난, 땡기땡 미짱냥 끝나민 농약이나 여름에 흔 여나문 허민 경 신경덜 안 쓰는 디, 그땡 일년 네네, 기자 콩 슈아그네 장 담젠 낭지레 땡기고, 땡냥 어서그네 보리냥으로 때는 딴 보리냥으로 때어도, 요레 지게 정 나가그네, 낭덜 해당 짓젠,

난 저, 쏘섬에 강도 낭 헤와나고, 시어가그네 이만큼 묶어그네, 그 우위 테왁 올려놔동 낭 밀리민 이레 올 수 이서.

103015 @ 경해낫구나 예?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 길러나수과?

104001 # 길러놔주게.

104001 @ 소 길러시민 어떤 식으로 길러신지예? 그리고 또 소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잇섯던 곳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옛날엔 소가 아니고 쉼라 헤신디. 쉼라 길르는 거에 대해가지고 시작부터 밧같이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쉼라 어떻게 길러수과? 송아지는 어떻게 구입헛으며.

104001 # 송아지는 우리가 그 쉼라 사가지고 그 쉼집은 쉼양이라고 해서 길르고, 겨울에 그 쉼양에서 풀 맥이고, 여름에는 목장에 올리고. 쉼양에서는 출이렌 헌 거. 두척 감자골. 8월달에 산에서 풀 베영 말려다그넹.

104001 @ 그 풀이렌 한 건 뭐짱?

104001 # 산에 기냥 출. 쉼출. 역세도 비고. 어릴 때. 비어당 말려다그넹, 영 늘 누영 낫당 겨울에 그거 주고. 감자 신거나민 고구마 짝을 무꺼다그넹 늘누렛당 그것도 주고. 조 갈아난 거 조낭.

104001 @ 조낭을 옛날에는 뭐렌 고라수과?

104001 # 조칙.

104002 @ 키웠던 쉼 종류는 어떤 거 키워나수과?

104002 # 쉼는 바깥쉼영 암쉼영 두가지로.

104002 @ 털 색깔은 어떤거짜?

104002 # 노란 거. 누린 거.

104002 @ 바깥쉼가.

104002 # 바깥쉼가 밧 가는 거. 암쉼가 새끼 나는 거.

104002 @ 계난 아까 솟소를 머렌 고라수과?

104002 # 바깥쉼.

104002 @ 바깥쉼에 흑시 빨 모양 어떤 모양인지 그림그로 그려지쿠과?

104002 # 우리들은 척박도릭이라고 이 빨이 앞으로 아니고 뒤로헤난 거. 우리 쉼가. 그거를 척박도릭. 빨이 뒤로 난 거.

104003 @ 그다음에 쉼을 이용할 때 암췌는 어떤데 이용했고, 바깥췌는 어떤데 이용해수과?

104003 # 암췌는 새끼 나오고 조밥 될릴 때 허고, 돛걸름 될릴 때도 허고. 바깥췌는 밧 같고. 조밥 될릴 때, 돛걸름 될릴 때 같이 하고. 구르마 굴릴 때도 바깥췌가 하고.

104004 @ 췌 사왕 막 거칠 수 잇잖아예? 그럴 때 어떻 길들여수과?

104004 # 거치를 췌집이 허민. 키우는 사람이 좀 처음엔 심란해도 나중뉘민 순하게 만들 수 잇주게. 가르치멍. 가르키멍 출 줄때도 영 달래고. 머리 쓸어주고. 겨울엔 집에 무꿍당 물 맥이레 내에 거주게. 경헐 때 놈의 췌 만나민 찢리불젠 헤도 그걸 꼭 잡아그네 어떻형 강 먹영왕. 그 췌막에 강 벨 때도 사람곳뜨민 알아들으렌 다시는 경허지 말라. 영 머리 쓰다주멍 애기 달래는 식으로 경해가면 흐뎡 풀어지는 소도 잇고. 이 힘 이서가민 더 건방지게 놈이 췌 봐지민. 나가 우리 췌 묶으고, 할아방이 판사람이라. 판사람이민 소를 무껴가민 우리가 겁나는 거라. 경헐 어떻어 멍헐 물먹어 오민 어떻 사람한티 달래듯 말 고르멍 출도주고. 경허그네 어떻어 멍하민 길들여그네 사람이민 자꾸 머헤가민 풀어지듯이.

104004 @ 췌가 밧같이 할 때 라든가 돛걸름이나 그런거 뺏을 때는 필요헐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잇잖아 예?

104004 # 앓을 땐 겨울에.

104004 @ 앓을 때는 그럼 췌왕에 그냥 내부러 나수과 들판에 내부러 나수과?

104004 # 췌왕에. 겨울에는 췌왕에.

104004 @ 그러면 옛날에 막 들판에 췌 놓양 키웠잖아예? 그건 어떤 췌파?

104004 # 그건 여름에.

104004 @ 들판에 놀 땐 우리 췌만 아니라 다름 사람 췌도 갖다 낫잖아 예? 게민 그 관리 하는 사람을 뉘렌 고라수과?

104004 # 케지기. 목장을 케렌 헛주게. 개인 케도 잇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케도 잇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케지기렌 헤서. 그 사람한티 자기네 췌를 색깔은 어떤 거 다 얘기해 노민 그 사람은 다 찍엇다가 누구 췌가 아팠덴 헤민 또 연락헤 주고.

104004 @ 우리 제주도에서는 췌태우리렌 헤가지고 소 맥이레 다니는 사람들 잇섯잖아예? 삼춘네가 어릴 때 췌태우리 직접해보진 앓아수과?

104004 # 헤반.

104004 @ 게민 할 때 놈의 소랑 같이 봐줘수과? 목장에 안강?

104004 # 응. 목장에 안가그네 동네별로 소를 몇 개 헤그네. 아침 딱 몇 사람이 조짜그네 하루에 나가는 사람이 들이 아니면 서이 썩 조짜그네 나가민, 이 보목경우엔 산이 없주게. 게민 내에 강 췌 들이몰아동 우에 길에들 아жат당, 소 저디까지 올라가민 밖으로 몰양 내비동 놈이 감자도 파먹고 경헤나서.

104004 @ 그 내에 췌들이 먹을 거 이서마썸?

104004 # 어. 이서.

104004 @ 여기선 내렌 혜수과 내창이렌 혜수과?

104004 # 내창.

104004 @ 쉼은 보통 몇 달쯤 집에 왕 키워수과, 아니믄 암췌가 낳은 다음에 새 끼부터 키워수과?

104004 # 흐뎡 큰 거 사당. 우리 사오자마자 농사할 때 써시난.

104005 @ 그때 혹시 그 췌가 몇 살이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104005 # 췌는 저 세 살 되믄 살혹, 네 살 되믄 날혹이렌 하는디, 보통 살혹부터 날혹까지가 농사에 이용.

104005 @ 아. 옛날에는 한 살도 한 살이렌 안헤그네 뭐렌 고라수과?

104005 # 두 살 때는 닥안, 혼 슬, 두 슬은 닥안, 세 슬은 살혹, 네 슬은 날혹.

104005 @ 그믄 보통 일헛던게 살혹이영 날혹때예? 그러면 다섯 살은 머렌 고란 마췌?

104005 # 다섯 살 이상은 모르크라.

104005 @ 게민 다섯 살된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나수과?

104005 # 늑어불민 팔아불엇주.

104005 @ 판다면 저기 고기용으로 파는 거마췌? 다섯 살 되면예?

104005 # 응. 다섯 살도 되고 일곱 살도 되는데. 이용 못하면 팔아부는 거주게.

104005 @ 그럼 겨우 췌를 이용해 먹젠하면 2년이나 3년 밖에 못헛마췌?

104005 # 아니 그 집이서 일 부릴 수 잇는 건 일곱 슬도 되고.

104005 @ 아 게민 보통 일곱 살까진 헤긴 헛예?

104005 # 어어. 겐디 다섯 슬까진 일 실컷허고 여서 일곱 슬 그 정도 되어 가민 은 소장시들 와. 경하민 그 돈하영 받아지민 폴양 또 사고 헛주게. 어린 췌 데려왕 바꿔가기도 하고.

104005 @ 네 살까지는 날혹이엔 하고 다섯 살부터는 이름이 따로 이서나수과?

104005 # 이서나신디 잇어부런.

104006 @ 췌쟁기가 이섯잖아예? 췌기는 이름을 명칭을 머렌 붙여 나수과?

104006 # 잠대.

104006 @ 잠대에서 손잡이는 머렌 고르고 이름들이 다 잇잖아예? 뭐뭐가 이서 나수과?

104006 # 버섯, 벳.

104006 @ 벳은 머짜?

104006 # 벳은 흑 묻으면 발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버섯은 앞에 가는 거고. 췌기몽쿨. 몽쿨은 이추룩 구부러진 걸 몽쿨이렝 허고. 저 길쭉하고 소 뎡기는 거는 설척. 영 손잡이 이신 거는 잇어부런.

104006 @ 끝에 땅 갈아지게 된 끝에 부분은 마씨?

104006 # 버섯. 버섯은 땅 갈아지게 췌 앞이 거고. 벳은 팡 이랑 만드는 거 흠

불으민 밧가는 사람이 발로 짝 굶으는 거.

104007 @ 길마도 잊지예? 그 쇠 부분에 쟁기가 잇고 길마가 잇고 멩에가 잇고 한테 길마는 뭔지 모르쿠과?

104007 # 길마는 뭐 영영하는 거 줄인가? 길마렌 한건 길 고르치는 거 일로 당 것당 절로 당것당 하는 거 아니? 양쪽 방향 조종하는 건 부리배라고.

104007 @ 이것이 길마거든마썸.

104007 # 아, 쉼질메, 짐 시끌 때 쓰는 거.

104008 @ 그다음에는 멩에 잊지 예? 멩에는 그냥 멩에렌 혜수과?

104008 # 멩에. 목에당 행 땡기는 거.

104008 @ 다른 말 없고예? 멩에도 부분 부분 이름이 따로 잊지예?

104008 # 모가지 하는 건 적레렌 혜서. 줄은 줄대.

104009 @ 거민 이제 쉼출 같은 걸 먹이젠 하면 개인 목장도 잇고 단체 목장도 잇텐 헛잖아예? 그럼 그 목장관리는 그 케지기가 다 관리하는 거마썸?

104009 # 우리가 쇠를 여름에 두 돌 정도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당시에 보 리 닷말이면 닷말. 샅을 줘서. 그 사람이 목장에서 관리해 주는 거. 또 우리는 가끔 씩 진드기 약 허레 열흘에 한 번씩 올라가고.

104009 @ 아 게민 진드기 약은 뭘로 혜수과?

104009 # DDT, 그건 근래고, 옛날엔 비누 같은 걸로 한 거 같애.

104009 @ 비누로 소를 목욕시킨마썸?

104009 # 주고 그 목욕 말고 밑에만 수소 가운 거 그 부랄 같은 디 이런 디만 닷고.

104009 @ 아 췌어주는 거구나예? 약을 뿌리거나 그건 아니고예? 그럼 쉼 한 마 리당 보리 닷 말을 갖다 주는 거짱? 아니면 소 전부행 보리 닷말이짱?

104009 # 아니 혼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동네서 여러 군데니깐 우리가 저 사람 한테 강 부탁하자 하민은 여기 이 동네에서 열사람 혜서 짜서 가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혜서 개인이 닷 말이면 닷 말씩 얼마씩 주기로 약속혜서.

104010 @ 그 소를 기르면서 예? 어렸을 때 추억 같은 거 고라줍서.

104010 # 쉼은 산에 두 달 동안 부탁해서 관리를 혜돌라 하면은 한라산으로 도 망가서 찾지 못할 때. 그땐 주인한테 연락을 오민은 여기서 친구나 몇 사람씩 한 두 사람 가지곤 안 뵈고, 몇 사람씩 빌어서 가서 막 뒤져서 이실 만 현디, 내창 같은 디 혹시 물먹으러 갖는가, 그런데다가 찾으러가는 거 쥬로 어려운거여.

104010 @ 그럼 찾으러 갔던 이야기 좀 들려줍서. 어떻행 찾았으며.

104010 # 찾으러 가면 저 이렇게 그 산에 올리민은, 여름에 뭐 집도 없고 하니 깐 비와가면은 나무 이시민 나무아래서 비를 견디지만은, 목장 같은 데 나무 없을 때 다 비 맞고, 햇빛 맞고 하민 그 털색깔이 변헤비어, 자기네 쉼은 노렌색인디 나 중엔 하얀 쉼이 뵈버려. 색깔이 바래서. 경 그런 거 때문에 사고 때문에 쉼을 넘어 가면서도 자기네 쉼줄도 모르고 그냥 갈 때가 많아. 게난 그 햇빛 맞고 비 맞고 혜

노니깐 노란색 췌가 하얀색으로 변해버리면 자기네도 잘 모를 때가 이서.

104010 @ 경행 어떻행 츠자수과?

104010 # 아 뭐, 자세히 보민 쪽 끼어 이성 찾다보민, 이거 틀림없다 헤가민 나 중에 확인해 보민 그것이 자기네꺼. 그럴 때가 췌 잃어버령 찾을 때가 막 한라산으로 올라가버리면 그 참 찾아오기 힘들고, 하루 이틀 못 찾을 때 많아요.

104010 @ 경행 아예 못 찾아본 적은 어수과?

104010 # 못 찾아 본적은 엇고. 경헤고 추우면 췌는 추우면 내려오게 된 거니까.

104010 @ 아 경행 내려와마썸?

104010 # 아 집에까진 안와도. 목장 관리하는 사람이 다 알게 돼요.

104010 @ 혹시나 아예 잊어버린 사람은 어서나수과?

104010 # 췌? 잃어버리진 않에.

104010 @ 계도 결국은 다 찾고 예?

104010 # 잃어먹은 사람은 없고 산에 내창에, 산에는 내창이 깊으니까 물 먹으레 갖다가 잘못해서 넘어서 죽는 췌는 이서.

104010 @ 아이고 경허민 잘도 잘도 속상 하켜예? 췌 살 때 처음으로 췌 샷을 때가 두 분 결혼 했을 때파? 하기 전에는 삼춘네 집은 췌 안 사난마썸?

104010 # 그전에는 췌가 어섯고. 우리이제 살 때 농사 짓젠하난 샷지.

104010 @ 그때 혹시 돈 얼마 쥐난 거 모르쿠과? 췌 한 마리에 얼마?

104010 # 그거 기억이 살 때는 모르겠는데 풀 때는 14만원 기억이 나는 디.

104010 #2 살 때는 오만원에 사설거우다. 오만원에 사난 소 아이고 좋은 거 샷 췌 하명.

104010 @ 오만원이면 만일에 쌀을 산다면 몇 말썸 살 수 잇는 거파?

104010 # 보리쌀 흔 말이 어떻헤나신고?

104010 @ 보통 보리쌀로 기준해 나수과? 근쌀 말고?

104010 # 아니 근쌀로 거래하긴 힘들고 여긴 주로 보리로 헤난.

104010 @ 거른 오만 원 췌 살 땐가 했을 때 보리쌀 몇 말썸 갓당 줄 정도로 헤수과?

104010 # 보리로 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보통 농사를 감저하고 허니깐 이 둘을 모은 거지.

104010 @ 몇 년썸 모아수과?

104010 #2 뭐 그거 기억이 나쿠과? 결혼헤네 혼 육년 정도 잇당 사시난.

104010 # 결혼헤도 십년은 돼설거여. 농사 지을라면 췌가 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원이이엇단 말이여.

104010 #2 육 년 썸엔 소를 사수다 결혼 헤그넝.

104010 @ 그때는 저 바깥췌만 산마썸?

104010 # 바깥췌. 거 하나도 겨우 구헷주.

104010 @ 거민 암쇄는 언제쯤 구해집디가?

104010 # 암쇄는 우리는 안 해반. 여기는 보통 암쇄는 잘 안 해여.

말 기르기

104011 @ 쉼은 여기까지 하고예, 몰도 길러봐수과?

104011 # 몰은 안 길러반.

104011 @ 혹시 이 동네에서 몰 길렀던 사람 이신가예?

104011 # 에 몰길른 사람 많아.

104011 @ 그분을 저한테 조금만 소개를 해주십서예?

빨감

104022 @ 그다음엔 빨감이라예. 지난번에 빨감에 대해 들어신디예, 앞에 쉼에 서 헛던거예?

104022 # 빨감은 여기는 주로 지들커.

104022 @ 지들커는 어떻 구해수과?

104022 #2 지들커는 이녁 산 이신 사람들도 이녁 산에 강 딱 헤오지 안 허고, 만약에 겨울에 돛걸룻. 걸음내영 돛골룻 밧이렌 헤지민, 지들커 허레 저 내 꼬지 가그네, 낭빨레기에 헤그네, 그 내에 영 못쓸 낭들 처나민, 빨레기만 남은 거 나데 아정강 뚜드령 쟈그네 거 해당 짓고, 그거 못헤오는 사람은 보릿대도 짓고, 그추룩 저추룩 허당. 저 쉼에도 그때는 마음대로 다닐 때난 쉼에도 강 해당 짓고, 쉼에는 별로 몇 사람 안 거주만은. 가시로는 지게저그넝 계속 혼 며칠씩 다니주게. 경 하고 우린 하도 어려우난. 우리는 구루마가 이서서이. 거난 구루마 아저네 저 토평 위 중낭부리렌 한 내 이시난. 그디가네 낭을 비는디 구루마호나 행 쉴거가나 헤시네. 낭은 무신 낭이나 하면 가시릉낭. 가시릉낭 알아져?

104022 @ 가시름 낭 행 올 땐 쟈낭 짤랑 와수과?

104022 # 응.

104022 @ 쟈낭 행 왕 말려가지고 헤넛구나예?

104022 #2 쟈낭 행 와그네 딱 놀우렁 놔두민 몰라이.

104022 @ 아까 나대가 뭐파?

104022 # 요즘 나대렌 하는 거, 어어. 길쪽 허고 손잡이만 뭐 감아그네 하는 거. 손도끼추룩 나무즈룩 현 건 엇고.

104022 @ 톱은 아니고 이렇게 치기만 하는 거마썸? 손도끼 비슷한 거구나 예?

104023 @ 혹시 쉼이나 몰똥 행 왕 몰려가지고는 안 해나수과?

104023 #2 몰똥 곱은 건 주서와도 쉼 곱은 것도, 쉼 같은 거 주서 와서, 쉼 때울 때 헤난. 쉼도 쉼똥 땡 하고, 몰똥도 므른 거 주서당 허고. 또 집에서 집에 꺾 몰르지 안 허고. 집에꺾 걸름으로 쓰고.

104023 @ 쉼도 다 거름으로 썬예? 그다음엔 솔잎도 곱어나수과?

104024 # 응.

104024 @ 솔잎 굽을 땐 주로 어디 가그네 굽어수과?

104024 #2 어. 솔잎 굽을 땐 우린 이 가까운디 소낭밭들 이시난. 이디강 혼 밧이 굽어와나민 저디강 허고 허당, 쥬 하영 굽어오는딘 상호. 상호 전분공장 옆인디 이. 근찬이네 살던 디가 무시거렌 험수과. 도라미.

104024 @ 옛날엔 그걸 그냥 솔잎 굽으레 간덴 해수과?

104024 # 응. 솔잎 굽으레, 글쟁이 아정강.

104025 @ 아까 나무는 가가지고 저 가시랑낭 썩낭 헛덴하고 예?

104026 @ 솥 같은 거도 구워수과?

104026 # 솥도 구워바서.

104026 @ 솥 구울 땐 어디 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혼 번 고라줘봅서.

104026 # 솥은 우리 살던 집에 옛날 고목. 그 옆이다가 쪽나무 같은 큰 고목 잘라서, 작게 잘라서, 우영에 파서, 장작처럼 처음에 이 나무를 쭉 세워가지고, 그 불 붙이는 구멍, 경행 나중에 장작을 쭉~ 세워 놔뵤, 위에다 흑심으로 덮어서, 위에당 불 붙여가민, 혼 일주일정도 하민은 나중에는 흑을 헛사불민.

104026 @ 일주일 정도 불을 때는 거민.

104026 # 불 때레. 아니 불 붙영 내불민, 만약에 불 이것이 만약 흑덮은 낭이다, 굴 파그네 이디 나무 세왕 흑을 다 덮어, 이만이 불붙일 구멍만 뵤기민, 이디 불 붙이민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경행, 흑 내리와동 까맣게 탄 솥 주서 낫주.

어느 정도 되민 불구멍을 막아버리면은 그 이상 타도 안하고. 너무 타버리면 솥이 아주 가루되부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저 경험 잇는 사람이 허여. 그래서 우리 집이서도 우리 부친이 직접해서.

104026 @ 아, 그럼 그 집 주변에 흑을 판마썩?

104026 # 응, 우영에.

104026 @ 막 산에 강 하는 게 아니라 우영에 강 예?

104026 # 솥 팔젠하는 사람은 대대적으로 허고, 가정에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도 세우는데 이추록 하나두개가 아니고, 이방에다 세워가지고, 통나무 이정도 세워가지고, 이정도 둘레에서 그다음에 흑으로 짐올려. 구멍은 이만큼 뿔렁 불붙영 내불면 몇 시간 어느 정도면 닻갯다 싶을 때 불구멍을 막아버려.

104026 @ 그 솥은 어떤데 사용하젠 만들어수과?

104026 # 보통은 가정에서는 화로에 불도 살라주고. 이걸 많이 헛지게.

104027 @ 그 뿔감을 하러 갔을 때 뿔낭 할 때 흑시나 특별한 기억 같은 거, 추억. 그때 뿔낭하레 갔다가 이런 일 잇섯다, 할 만한 거 이시민 고라줍서.

104027 # 지들커렌 해봐야, 산에 만약에 불이 낫다하면은 그 낭들은 전부 죽어부리면은, 요이 가니깐 다서 여섯시에 가버리면은 배고프니깐 여기서 마중가는 사람이 이서야 뵤여. 그럼 중간에 감자 썩 가져가그네 간식용으로 아져가서, 중간에서 만난 중에도 그거 몸대로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시커먼 타던 나무 가지, 전부 가

서 저, 나대로 짤라서 지게다 지고 오는데, 거시서 거리가 멀어노니까, 여기까지 오질 못하니깐, 아침 새벽이면은 교대로 해서 저오고, 굉장히 여기 땀감이 이런 저 바닷가 해촌이라부니깐 땀감이 굉장히 귀했어요.

104027 @ 그때 그 추억마씨. 누구랑 지들커 허레가신디 이런 일 잇었다, 기억호나만 고라줍서.

104027 #2 동짓날에 콩 솥젠, 나가 지게지고 우리 저 야네 고모 돌아가빋주마는, 헨 고치가네, 요~ 밑에 할머니도 돌아가불고, 동지저네. 그 할머니네 나무지레 갖다와시난 “다시갈 때 나 데려갑써” 허난, 아침 일찍와네 “조케이 나 낭하레 감썸” 하명 고치 간디, 동지날이난 얼어서 양. 내 넘어그네 강. 낭을 행 올거난 내 넘어 가네. 낭 행 왕 정 가는디, 돌 매끈한 거 볼르난 얼음 얼어네 자빠져부난 풀 꺾어 낫주게. 경헨 하르방 마중가도. 마중 올거라 행, 그 낭을 흐꿈도 털어내지 아넨 약으로 다 정 내려와난.

104027 @ 계난 삼춘은 마중 와십디가?

104027 #2 마중완.

104027 @ 지금 같아시민 남자가 할거신디 예전엔 여자어른들도 막 낭 꺾으레 다녔썸예. 보통 콩 솥젠하민 보통 몇 말 솥아수과?

104027 #2 콩 서 말도 솥아 나고. 아이들 키울 땐 소말 더냥 솥아서.

104027 @ 겐, 서 말 솥젠하면 하루가서 지게 하나 해 온 걸로 솥아전마썸?

104027 # 남아.

사냥

104028 @ 그다음엔 지달이라 든가 노루같은 거 꿩같은 거 잡을 때 그거 여쭙볼게예. 보통 볼목리에서는 그런 짐승들 잡젠하면 어떤 거 어떤 거 잡아나수과?

104029 # 여기는 주로 꿩벉기 어서. 꿩하고 족제비.

104029 @ 흐꿈 산에까진 안가보고마썸?

104029 # 산에 꼬지는 안가보고.

104029 @ 꿩 잡을 땐 어떤 식으로 잡아수과?

104029 # 여기서는 꿩코 놔가지고.

104029 @ 꿩코예? 꿩 코를 놀 때 그.....

104029 # 꿩 코는 어떻게 놓냐하면은 그 일메다 정도 노꼬끈.

104029 @ 끈, 뭘로 만든 끈마씨?

104029 # 끈으로 뭐 이리저 찍누룩 꾸던지. 이쪽에다 딱 고정시키고, 중간에다가 이 가는 명주실, 명주실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 쪽 묶어서, 열 개민 열 개를, 그기다 머냐, 조, 조를 거기다가 뿌렁 내부르민은 꿩은 와서 그걸 발로 굽다가, 그 고리에다가 그 코에다가 발 걸리민 뒷날에 하루에 한번 돌아보니깐. 그런 식으로 잡아먹고, 또 저, 치라고 해서 나무하나 꾸부려서. 소나무 요마는 그는 거 꾸부려가지고.

104029 @ 그 나무 구부린 거 아까 뭐렌 고라수과?
 104029 # 치. 덧을 치라고 하는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조코구리 매달아노민
 평 와서 특하민은 확하게 모가지 걸어놔서 나무에 매달렝 경되부러서.
 104029 @ 참새라든가 다른 새 같은 건 안해나고 예?
 104029 # 새 같은 건 저 족제비, 족제비들을 많이 잡아.
 104030 @ 족제비 덧은 어뎡 뉘나수과?
 104030 # 족제비 덧은 저 소나무 가지 이렇게 한 거 가지고, 그 왕대 엮어서 안
 에다가, 아까 뎡기민은 우에는 저 어제 고렷돌 같은 돌, 족제비가 그 밑에 들어가서
 뎡겨, 따면 탁 내려앉으면은 그 돌로 지들려서. 그래서 왜 족제비를 많이 잡냐면.
 족제비를 그 당시 붓. 글쓰는 용으로 붓. 그 용도로 비싸게 많이 받아가니까. 돈 벌
 라고 그걸 많이들 헛어요. 족제비 하나에 얼마씩 사가니까.
 104030 @ 그거 얼마에 사가냥 거 혹시 기억남수과?
 104030 # 그것도 기억이 안나. 그걸 잡아서 뭐 먹을라고 한건 아니고.
 104030 @ 이건 혹시 일제 때파, 해방 후과?
 104030 # 해방 그때부터.
 104030 @ 해방 전에는마썸?
 104030 # 해방 전에는 어려부난 모르고.
 104030 @ 해방 때가 삼춘 어떤 때과?
 104030 # 해방 때가 3학년이니까. 국민학교 3학년. 그전에는 어려난 모르고. 해
 방 후104030 가 쥔 많이 헛어요.
 104030 @ 족제비가 잇섯고, 평 잇엇고, 노루는 아이에 안 헤보고예?
 104030 # 예.
 104031 @ 지달이는 안 헤봐수과?
 104031 # 지달이도 우리가 안 헤봤는데 여기서는 개 길르는 사람은 지달이도
 잡고 헤나서.
 104031 @ 개도 잡아그네예?
 104031 # 어.
 104032 @ 족제비 잡아가지고, 몇 마리썸 잡아 나신지 기억 남수과?
 104032 # 기억이 안 나고.
 104032 @ 족제비 한 마리를 팔면 그때는 돈으로 줘수과?
 104032 # 어 돈으로.
 104032 @ 그럼 그 돈으로 뉘를 할 수 이서수과? 그 돈이면, 뉘를 살 수 이서수
 과?
 104032 # 그때는 뉘 사먹을 것도 어실 때고 주로 뉘 작기장이니 자글자글 사던
 지 하던 거 같따.
 104032 @ 혹시 그럼 그걸로 공책 하나라도 살 수 잇을 정도마썸?
 104032 # 작기장 살 정도.

104033 @ 혹시 족제비 잡을 때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뭐 예. 뭐 어시쿠과?
 104033 # 특별한 기억은 없고 하튼 그거 그 당시에 족제비도 많고, 많이들도 잡고.
 104033 @ 그럼 하루에 한 마리만 잡아마썸?
 104033 # 한사람이 하나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몇 일에 한 번씩 받으래 와요. 족제비 사례.
 104033 @ 알았습니다.

5. 바다일

105001 @ 바닷에선 주로 어떤 일 험수과?
 105001 # 바닷에서 무시거게 옛날에는 감태 행 즈물았지 마는 이제는 그자 소라 고105001 동 구제기. 구제기 잡암수다. 전복도 잡고.
 105001 @ 전복을 여기서는 전복이렌 안행 다른 말로 뭐렌 고람수과?
 105001 # 생복.
 105002 @ 듬복이나 감태는 이제 아이에 안 잡암고마썸?
 105002 # 이제는 그런 건 어서저불고.
 105002 @ 바닷에서 어서저부런예?
 105002 # 바닷에서 어서저비언. 바닷에 어시난 즈물질을 안헤여. 게난 그런 거는 돌망 같은 거 감퇴는 이제 어서저불고. 이제 우리 한다는 거 구제기 잡는 거. 이제 생복.
 105002 @ 오분재기는?
 105002 # 오분재기도 어서저비언.
 105002 @ 옛날 오분재기는 뭐렌 고라수과?
 105002 # 조개.
 105003 @ 것도 어서저불고예? 구쟁기 잡고, 혹시 게는 안잡암수과? 쟁이.
 105003 # 쟁이는 물에 들어강은 안해도 과수로는 잡암네. 이래 돌 일러서.
 105003 @ 불목리에서는 쟁이보고 뭐렌 고릅니까?
 105003 # 쟁이, 이제는 게렌 고릅니다 만은 쟁이.
 105003 @ 쟁이는 안 잡암수과?
 105003 # 물에 들어강은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보목리에서는.
 105003 @ 그럼 쟁이잡는 어른도 이서마썸?
 105003 # 가끔.
 105003 @ 집에서 그냥 떡젠마썸?
 105003 # 응. 떡젠 잡는 거.
 105004 @ 그다음에는 예. 구쟁기도 어떤 종류가 이수과?

105004 # 아니 종류는 엇고. 그냥 크고 작은 건 그런 건 이서도.

105004 @ ㄹ메기나.

105004 # ㄹ메기는 돌 일렁 잡는 거. 이제 물에 들면은 물에 들엉 쉬어그네, 주워오는 거. 수두리. 보말. 춤ㄹ메기. 그런거

105004 @ 보말들이 춤ㄹ메기 또 어수과?

105004 # 금붓.

105004 @ 또 다른 건 어수과?

105004 # 다른건 엇고. 우리하는 건 그거주게.

105005 @ 그면은 예, 쟁이 종류들 알아지쿠과?

105005 # 쟁이 종류들 돌쟁이, 옆쟁이, 춤계, 그거주게. 쟁이 끝은 건 물에 들어 강 솜같은디 가그네 강 잡는 거는, 이추록 흘근 거주만은 우리추록 가에 거 돌 일렁 잡는 거는 돌쟁이라고 토크이.

105005 @ 계민 먼 바당 강 배로 잡아오는 거는 뭐렌 ㄹ람수과?

105005 # 그건 역쟁. 근데 그건 이디 제주도엔 엇고. 육지에 나는 거주.

105006 @ 흑시 예? 밤에 햇불을 이용해서 잡는 건 어수과?

105006 # ㄹ메기, 춤ㄹ메기. 햇불, 옛날에는 이런 쥌, 그 기신세 묶영가그네 영들러그네 ㄹ메기를 잡앗주 만은 이젠 이디 안경 이선계게. 그런거 썩 강들 잡암주게. 밤에, 밤ㄹ메기.

105006 @ 밤ㄹ메기말곤 햇불 말고 잡는 건 어수과?

105006 # 계메, 밤ㄹ메기, 춤ㄹ메기

105006 @ 다른 건 없고?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뭐 김녕엔가 어디서 문어인가? 물꾸럭인가? 뭐.

105006 # 아, 물꾸럭. 이제는 문어렌 허주만은 옛날엔 물꾸럭.

105006 @ 경, 물꾸럭은 안 잡아판마썸?

105006 # 그건 난 아니행 땡겨부난 모르주 만은, 물 쌀 땡 ㄹ메기 주시러 밤이 안경 썩 가민 그 물꾸럭도 나오민 심주만은 남자들은 강 심넨 헨계.

우리는 밤인 바당에 가보지 아넨계. 낮에는 이 밀감 다 헤비동, 다 철 거시된 저명질이나 넘으면은 이제 가그네 바당에 가그네 그 돌 일렁 춤ㄹ메기도 잡고, 쟁이도 잡고.

105006 @ 계난 저가 물어보는 것 중에는 예. 삼춘이 하는 것도 잇주만은 삼춘 아닌 동네사람들 하는 것도 고라줘사 뉘마썸계.

105006 # 동네사람 하는 건 뭐 무시거?

105006 @ 아까 예를 든다면 불 들렁강 고메기 잡는 거나, 물꾸럭 잡는 거, 다른 건 또 어서수과?

105006 # 해삼도 잡고계, 철날면은 해삼은 아무 때나 엇는 거난. 물꾸럭은 흑시나 땡기다그네 잡주만은.

105006 @ 구쟁기나 생복말고 성계종류 뭐파? 그런 건 안헙니까? 귀나.

105006 # 귀는 이제 혈 철이 아니주게.

105006 @ 아 그걸 철 때 잡았수과?

105006 # 응 그건 스월 달 오월 달. 장마 때.

105006 @ 그건 무시겨 무시겨 이수과?

105006 # 그건 숨. 붉은성기. 성기가 아니고 귀. 붉은 귀. 숨. 검은 귀. 그런 거 주.

105006 @ 그축행 잡는 거 예?

105006 # 이제는 성계영 해주만은.

105007 @ 혹시 불목리에도 원담 쌓아그네 저 꿩기 잡는 거 이수과?

105007 # 이젠 어서.

105007 @ 옛날에는 어떻 해나수과? 걸 고라줍서.

105007 # 옛날에 영 원 다와그네, 경허민은 물 이제 든 때는 이제 고기들이 그 래 나와그네, 그 원안에서 돌당, 이제 물 싸가면은 그것이 나가질 못해그네, 그 담 에 이 돌고망에 다 접저지는 거주게. 경허민은 사람들이 가그네 그거 영 손들영 몰 앙 심고.

105007 @ 그거 해난 기억 남수과?

105007 # 옛날에 해낫주만은 요즘은 안햐주게.

105007 @ 그때는 여기 불목리도 그거를 원담이렌 해수과?

105007 # 원담은 이서. 여기도 아직도 이서.

105007 @ 그럼 언제 한 번 그거 사진.....

105007 # 이젠 헐어져비서. 꺾메기들 잡으멍 막 헛싸부난.

105007 @ 게도 흔적은?

105007 # 흔적은 이서.

105007 @ 그럼 나중에 그 흔적은 고라줍써예.

105007 # 사진 찍어가젠?

105007 @ 예.

105008 @ 게서 그 원담은 아예 보수 같은 것도 안하고예? 혹시나 하민 꿩기 잡 히지 않을까 예?

105008 # 아니. 이젠 괴기 잡힐 돌이 꺾메기 잡으멍 막 이래저래 헛싸부나네. 그거는 엇고게. 혹시 물 들 때는 들어왓주만은 누게 그거 심으레를 안 감주게. 요즘 은 막 고기들이 많이 나그네. 막 일로절로 낡 사오는 때문에 돌담고기 주시레는 안 가주게.

105009 @ 혹시 불목리에도 멜도 들었수과?

105009 # 멜도 들어.

105009 @ 지금 혹시 멜 잡으레는 안 감수과?

105009 # 안가, 것도 멜 드는 철이 이서부나네.

105009 @ 멜 들면 그때도 멜도 잡고예?

105009 # 멜도 잡고.

105009 @ 그 멜 말고 혹시나 그 잡혔던 꿩들 이름 기억나는 거 이수과?

105009 # 멜 말고 무시거 큰 고기들은 아니 나고, 무시거 존존헌 고기도 다 잊어버졌져.

105010 @ 낚시 줄 이런 거는 남자들한테 물어봐야 할건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혹시 낚시대라든가 따로 하는 마을은 어수과?

105010 # 무사게 저 이제 물싸면 보들락 낚으레 가곡, 또 우럭도 낚으레 가고.

침대 그 대막대기, 막 큰 이제 고기 잡는 그 침대 아니라도 대 헤그넝 영 행, 그것에 줄 줄라매그넝 강, 던저그넝 영 행 놔두민 보들락도 올라오고. 골생이도 올라오고. 우럭도 올라오고. 경하주게.

105011 @ 그럼 그때당시에 대나무로 만들 때 대낭이나 낚시줄로 사용해났던 건 뭘로 사용 해나수과?

105011 # 정술.

105011 @ 정수는 뭘로 만들어마썸?

105011 # 노꼴. 옛날엔 노꼴으로 헛주게. 술 거 머시기, 고기에 잡는 노꼴, 그건 면일거라. 그건 남자어른이 잘 알거라.

105011 @ 낚시를 또 다른 말로 불목리 말로 어수과?

105011 # 어서, 처음부터 낚시렌 써나나네.

105011 @ 계민 옛날에 낚시를 어떻 구해신고예?

105011 # 옛날에는 우린 여자라부나넌 어떻 구한줄은 모르고, 그 갈치 낚으레 다니는 낚시도 아니고 요 췌마난 요마난 한 거주게. 이제 그 바당에 가그네 솔라니 낚아오는 입에 영 보민 췌끌락헌 낚시가 입에 들어이서, 그런 낚시로 이제 그 고기를 낚앗주게.

105011 @ 옛날에도 그런 낚시가 이서수과?

105011 # 옛날에도 그런 낚시 이서.

105011 @ 그럼 췌로 된게 이서나수과?

105011 # 췌로 된 게 이서.

105011 @ 아 이서낫구나예.

105011 # 어. 이서.

105011 @ 뽕똥은 어떠한거파?

105011 # 뽕똥을 이제 그 뽕똥. 연철로 된 뽕똥.

105011 @ 뭐 다른 무슨 나무 열매도 아니고예?

105011 # 아니아니, 그런 건 그 침대로 헤그네 영 고기 낚을 때는 뽕똥 어시 기자 헛주게. 뽕똥 어시 그 술만 줄라매그네, 낚시 줄라매그네 그것에 니껍 꿩영 돌그망에 강, 영~ 요만한데 사그네게 요디 물 싸면은 요디 돌우에 사그네 영 들어치민 그 느껍 줄라매그네 흐민, 이레 고기가 올라오주게.

105012 @ 그면은 혹시 저 작살로는 고기 안 잡아봐수과?

105012 # 작살로는 나 고기 잡안. 소살로. 그때는 소살 그 썰로 요만한 한 썰로 헤그네, 요기 영 비늘을 영 요디 영 내고 요디내고 헤그네 삼각형으로 영 거시기 헤그네 호민, 들어가민 안 나올 정도로, 그날 고기를 그 이런 대나무 헤그네 썰에 행, 영 드리몰양 낚곳으로 감양, 잔뜩 감양 하면은 그 고무 옛날에 고무줄, 빨간 눈 친 헤그네 영 늘렁 강 딱 쏘으면 쏘아지주. 나도 막 많이 쏘아난.

105012 @ 주로 무신 고기 쏘아나수과?

105012 # 논쟁이, 다금바리, 북바리.

105012 @ 그냥 보는 건 다?

105012 # 응. 보는 건 다. 구릿도 잘 쏘아나고. 나 옛날엔 막 고기 잘 쏘아난.

105012 @ 계민 이젠 무사 안햐수과?

105012 # 이젠 고기도 엇고. 그 작살들 아정뎡기명 막 휘갈아노난 이젠 고기가 어서. 논쟁이 끝은 거나 잇다 헤도 이젠 작살 아정뎡기기도 실프고.

105012 @ 작살로 고기를 딱 잡을 때 어떻게 잡아수과?

105012 # 영 헤그네 가그네, 탁 하게 시리 영 언덕에 가그네, 들어가민 이제 강 영~행 강 바리민, 쉬영 강 바리민은 그것이 사람신드레 영~ 바려, 고기가, 영~ 바리민 그것이 영 옆지울 때가 잇주게. 경허믄은게 그 소살로 영~ 늘려, 바깥에서 늘리왕 가그네. 그 물속에 들어 가그네, 그자 탁 노민 잡아지주게.

105012 @ 아 화살로 뭐 쏘으듯이 헤마썸?

105012 # 응. 쏘으듯이.

105013 @ 고깃배 종류는 어뎡어뎡한 거 이수과? 볼목리에.

105013 # 난 그 동네도 안 슬고 허난 무신, 고깃배 종류는 뭐 자리돔 뜨레 뎡기 는배, 또 갈치남으레 뎡기는 배, 솔라니 남으러 뎡기는 배, 그거주게, 뎡마루 강 자리 거리민 잇거오고.

105013 @ 아 지금도 경험니까?

105013 # 요즘은 안하주만은. 이제 봄나가믄.

105013 @ 뎡마로 강 잇거오는 건?

105013 # 자리 그디서 많이 거리민 또 잇거당, 가에 왕, 퍼도그네 또 가고 또 가고 허주게.

105013 @ 자릿배나 다른 솔라니 잡는 배나 배 종류가 달라마썸?

105013 # 아니야니. 배는 거의 딱 같고, 배 이름만 다르주.

105014 @ 종류들이 해삼물 하는 것들을 생복이니 구쟁기니 이신디. 혹시 미역 같은 건 또 뭐 이수과?

105014 # 미역. 미역말양은 어서.

105014 @ 작년에 예 우리 친구가 뭐 헤다 쥐신디 그 이름이.

105014 # 톨.

105014 @ 톨 말고 마썸.

105014 # 청각.

105014 @ 청각은 안험수과?
 105014 # 청각은 날 철이 이서부난. 오월 달 나사. 지금은 안혜여.
 105014 @ 청각이 볼목리에 하영 나는생이라예?
 105014 # 응 하영나. 하영 날 뎨 막 하영나. 장마가 오래 저나민 막 많이 나그네.
 105014 @ 미역도 게민 지금도
 105014 # 아니 지금 흐썰 짝곰 이시민은 3월 뉘민은 즈물양 오주게. 이녁 먹을 거는 많이는 안 해도.
 105014 @ 이제 바당에 미역은 하영 잇지안혜 마썸?
 105014 # 아니. 나질안혜여.
 105014 @ 볼목리에서도 미역이렌 안혜영 메역이렌 험수과?
 105014 # 응 메역.
 105015 @ 그다음엔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
 105015 # 태확 있고, 피창, 골게. 쫘마난거 무시거 가멍 물꾸럭이라도 봐지민 심어오고.
 105015 @ 또 다른건 어수과?
 105015 # 다른건 엇고.
 105015 @ 테확에 영 그물 비슷한 건 뉘렌험니까?
 105015 # 어음. 망사리.
 105016 @ 지금은 고무 옷을 입잖아 예? 그전에는 어떻게수과?
 105016 # 속옷, 소종이, 보목리에서도 우리 소종이렌 험. 소종이 위에 하얀 물적삼. 아이에 옛날엔 물적삼도 안 입영 소종이만 입어네 험주게.
 105016 @ 해봐수과?
 105016 # 나 해뵈.
 105016 @ 언제부터 고무 옷으로 바뀌져수과?
 105016 # 그거 몇 년도산지 알아지크라? 막 오래서.
 105016 @ 한 뿔설 썸 험던 거 기억 안남수과?
 105016 # 아이고 그거 기억안 나.
 105016 @ 물질 험 때 옛날 그 소종이 입어그네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이수과?
 105016 # 아이고 막 차이 잇주게. 옛날에는 소종이 입영 할 때는 강 얼어그네 그 물건도 얼마 안혜그네 놔볼주 만은. 요즘은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상.
 105016 @ 그면은 잡아온 것들도 지금이 예전보다 하영 잡아마썸?
 105016 # 하영 잡주게. 구쟁기가 요즘은 뉘 잘 잡는 사람은 혼 이백키로씩. 그 때는 혼 이키로 삼십키로. 그정도 밖에는 안혜연.
 105016 @ 흐루에 이백 키로를 잡아마썸?
 105016 # 아니아니. 혼 물기 하민 사흘이나 나흘이나 들면은 이제 잡는 사람들

은 혼 이백 키로씩.

105016 @ 그럼 돈으로 따지면

105016 # 요즘은 돈 얼마 안가.

105016 @ 아 돈 얼마 안가마썸?

105016 # 응. 삼천칠백 원 조합정 하젠하난 수수료 떼불고 하민 얼마 안헨게.

105016 @ 한 달에 몇 일정도 일해집니까?

105016 # 물질? 혼 달에 두 번이주게. 혼 물기나 두 물기나네.

105016 @ 계난 며칠?

105016 # 혼조금에 나홀 들 때도 있고, 사홀 들 때도 이잇고.

105016 @ 거민 수입은 얼마정도 돼마썸?

105016 # 돈으로 따정은 게 우리 나 저무는 건 돈 얼마 안해. 우리정도는 육십 키로 오십 키로하민 그거 뭐 계산 해봐게. 그 뭐 삼천팔백 원이렌 해도게 얼마 안가는 거주. 계난 그거 잡아그네 옛날 치룩, 우리 옛날에는 이제 구제기 잡아그네, 서귀포에 정도 풀레 나가고, 경 헛주만은 이젠 조합에서 오랑 떠도 그걸로 아이들 공부시키지는 못헤여.

105017 @ 아까 소중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이 이제 이렇게 바뀌 갓잖아예? 지금 고무옷까지 그 옛날서부터 입었던 옷을 차례차례로 고라지쿠과?

105017 # 옛날 입어난 거? 옛날 입어난 거 뭐 소중이 말앙, 소중이, 물수건, 눈, 옛날에 눈이렌 헤서. 물수건 영 눈이레 써사, 물속에 들어가는 거, 소중이는 기자 입엇다그네, 그거라.

105017 @ 그다음엔 뭐로 바뀌어수과?

105017 # 그다음엔 뭐 고무옷으로 바뀌어부난.

105017 @ 바로 한꺼번에 바뀌어수과?

105017 # 한꺼번에 바끼언. 중간에 물적삼은 하얀 물적삼, 소정이 입어그네 하얀 적 삼입어그네 물에 들어갓주게. 옛날에 할망들은 막 영 젓 나오게시리 입어그네.

105017 @ 하얀 색으로 물적삼을 입은 특별한 이유라도 이서시카예?

105017 # 아니아니 기건 기자, 바다에 들어가민 하얗게 나타나게 시리, 우에는 하얀 거 입자헨, 그때 하얀 걸로 문 바깳주게. 까만 걸로 물적삼은 안헤서.

그때도 우리가 생각허기엔 물속에 들어가민은 우로 봐도 허얀 거 보이면 아 저기도 누가 들어감꾸나 헨걸 짐작할 수 있게 시리 입은 것도 닥고.

105018 @ 툄 잇잖아 예? 툄 채취 할 때는 다른 거하고는 좀, 툄 그거 할 때는 달랏잖아예? 요즘도 달람수과?

105018 # 아니아니. 요즘은 엇주게.

105018 @ 툄이 아예 어서마썸?

105018 # 아이에 어서비어. 불가사리 문 툄 가까먹는 따미, 아이에 툄이 어서.

105018 @ 옛날엔 어떻헤수과?

105018 # 툴 헐 땀계 막 해체 헛주게. 막 해체 헤그네 통별로 헤그네 반으로 서부, 중부, 동부 헤그네 구역만 썩 헤그네, 어촌계장허곡 해녀회장허곡 행 책임져그네게, 막 저다그네, 곳에 널잉 그거 돈 이제 그 물리왕그네 저다그넹, 돈 물리왕 이제 그 돈 창고에 저다그넹, 눌었다그넹, 조합에서 왕 돈 마다리에 담으민 떠가고.

105018 @ 떠가면 이제 돈이 나올꺼아니파 예? 그럼 돈은 어떻 갈라수과?

105018 # 기자 우리 서부해민 서부에 얼마씩.

105018 @ 똑같이 영 갈라가지고예?

105018 # 응.

105018 @ 옛날에는 메역도 경해나수과?

105018 # 옛날에 메역은 그 즈물아다그네 널잉. 귀헤그네, 메역 귀있잖아 이? 그거 담에 착착 널잉, 물리우민, 이제 그걸 다 곱닥허게 게어그네, 이제 그 영행 무꺼, 찍으로 헤그네 영 찍으로 헤그네 귀로, 귀로 이런디로 딱 무꺼그네, 이제 그 흥층에 얼마 받으러 오주게. 흥층은 백 근이라. 흥층에 얼마 허민 그건 이녁만씩, 하영 즈문사람들은 하영 돈 사주만은 하영 못하는 사람은 기자 썩썩.

105018 @ 그거 할 땐 같은 날에 헛다는 거구나 예?

105018 # 응 같은 날, 메역은 즈물날이 잇주게, 즈무는 날이.

105019 @ 혹시 우미인가? 불목리에서는 뉘렌 헤나수과?

105019 # 우미.

105019 @ 우미 말곤 다른 말 어서수과?

105019 # 그거 무시거니? 도박 닻은 거. 아이고 나 이저비언. 우미는 우리 보목리에는 우미가 안나주게. 게난 우미 헐 철엔 안헤연.

105019 @ 구두리는 머짜?

105019 # 구두리는 방 도배할디 풀하는 거.

105019 @ 그게 우미 아니파?

105019 # 가시리. 가시리가 저. 가시리하고 구두리하고 숲아그네 풀 뉘주게.

105019 @ 그건 그냥 필요할 때만 한 거마씨?

105019 # 그건 필요할 때만, 이젠 가시리도 어서, 돌이 다 가무라부난.

105020 @ 그 생복하고 구쟁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나. 지금도 마찬가지나 전부다 개인으로 채취헤수과? 혹시 공동으로 채취헨본 적은 어수과?

105020 # 아니.

105020 @ 개인으로마씨?

105020 # 응. 구제기 저 공동으로 안 혀, 개인만씩.

105020@ 생복도예? 혹시나 몇 살 때부터 물에 들어수과?

105020 # 혼 열여덟 살 정도에.

105020 @ 열여덟 살이면 아 게문 해방 후다 예?

105020 # 응 해방 후에. 물질 배우기는 열다섯 정도로 배왔주만은 물질 이제 바다에 들어가그네 메역 같은 거 헤치올 때는, 즈물 때는 열일곱 되어서 즈물시작헛

주.

105020 @ 열일곱 살 될 때민 해방될 때잖아예?

105020 # 응.

105020 @저가 물어보는 건 만약에 공동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공동으로 하는 일105020 이 이서나지 안혜신가 해서마썸. 뭔가 뭐 마을에.

105020 # 감태는 옛날에 공동으로.

105020 @ 감태는 뭘로 사용하나신디마썸?

105020 # 그건 받아 가불민 우린 사용 안하난 몰라. 뭇망은 즈물아그네 이제 개인만씩, 테이로 가그네 즈물든 곳으로 즈물든 헤그네

105020 @ 테이는 뭐고 곳은 뭐파?

105020 # 테이렌 헨, 줌수 씻경강, 저 바당에 강 줌수 들이쳐그네, 줌수들이 뭇망 강 비어오면은, 테이에 싹거 오라그네 가에 왕 푸주게. 경하고 또 우리대로 하면은 이제 결망, 망아리 닳은 거. 결망헤그나네, 우리냥으로 즈물든, 망사들에 담아그네 이젠 밀러와 곳이 왕 퍼그네, 저네영, 우리대로 물리와, 그건 이녁대로 따로 헤나고.

105020 @ 아까 테이렌 한 게 테우지예?

105020 # 응.

105022 @ 그 테위에 대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되신지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할거 이시민 고라줍서.

105022 # 테이 만드는 건 옛날 할아버지들 만들어부난 우린 모르주게. 그거 고치가그네 낭 베당. 그 옛날에는 고지 강 낭 베다그넹, 그 오랑, 거죽을 다 문 베껴, 할아버지들이. 베껴그네 이제 그 영 물리와. 말루면은 이제 그 바다에 고시 내리와 테이낭을 내리왕 그때는 그 할아방들이 테이낭을 다 지서.

105022 @ 테이낭으로 썼던 낭 이름같은 건 모르쿠과?

105022 # 숙이목.

105022 @ 테우를 타서 흐깁 먼 바당으로 가나신디, 그 바당 가게되면 어느정도 가나수과? 예를 들면 싹섬이 잇다 싶을 때.

105022 # 싹섬에 하면은 그 중간도 아니, 뭇망하는 건 가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앓아그네. 물질하는디 보다 짝뽀 우에, 물질할 때는 막 아래 내려가고, 물질할 때 테이로 안가주게. 뭇망 즈물때만 테이로. 옛날엔 테이로 우리도 뭇망 즈물어 나난.

105023 @ 그 혹시 저 지금은 기켓배 전에 테이 후에 돛배들 생겼잖아예? 돛배 생각남수과?

105023 # 돛단 배?

105023 @ 예. 그건 혹시 뭇렌 곶아나수과?

105023 # 풍선.

105023 @ 풍선? 풍선이 언제부터 생겨그네 어떤 거에 써나신고예?

105023 # 아이고 그건 남자들이 알아지고, 우린 여자는 몇 년도에 나고 그건 몰르고, 그건 남자들이 몇 년도에 테이질 쓴 거, 풍선 만들영 쓴 거 알주. 테이는 지금도 지성하주만은 풍선은 몇 년 도에 한 거 몰르크라.

105023 @ 몰라도 그 풍선이 불목리 축항에 그 풍선들이 고기 잡으러 가예?

105023 # 고기 잡으러 이제도 감주만은 이제 그 풍선이 문 기계 돌아그네 다니는 때문에.

풍선도, 조그만한 풍선, 그것도 이젠 그 풍선이렌 안 헤그네 기계 문 들앙 텅겨. 옛날에는 기자 저서네 텅겅주 만은. 내로 이축 저서.

105023 @ 아 풍선이라도 노 젓긴 저섯구나예?

105023 # 노 저선, 경 브름 받으민 그거 돛대 돌아그네 영. 풍선 들앙. 저기 먼 바당에 가면은.

105023 @ 알아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쿠다.

6. 의생활

106001 @ 우선 오늘은 옷감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계난 아는 대로만 고라줍서.

106002 @ 옛날엔 명주를 뭐라고 고라수과?

106002 # 멩지엔 고랏주 무신.

106003 멩지에는 어떤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6003 # 어떤 종류가 이서서게. 멩지가?

106003 @ 멩지는 한 종류밖에 어서수과?

106003 # 혼 거지게.

106003 @ 옛날엔 생멩주라던가 수와주라던가?

106003 # 생멩지는 그건 누엔 거 하고 안 넹 것이, 안 넹메는 생멩지고 넹메는 넹멩지.

106003 @ 넹멩지는 뭐고 생멩지는 뭐과?

106003 # 넹는 건 옷하젠 허메는 버닥하면 건 넹는 거주게. 물 데와그네 물 데왕 무신 제나 사분ㄱ루나 무신 거 놉그네 숲을 거라. 숲아그네 넹는 거.

106003 @ 제마썸 불치?

106003 # 몰라. 무시경 놉그넹 슬물 거라. 숲아그넹 넹여그넹 허민 생멩지.

106003 @ 생멩지. 그 다음에는 아까 생멩지 말고 무슨 멩지렌 헤수과?

생멩지 말고 숲기 전에 멩지마썸? 숲아난 다음에 마씨?

106003 # 숲아난 다음에 그자 넹멩지엔 허주. 넹여, 넹여.

106003 @ 넹다, 넹다 라는 말은 무슨말이과?

106003 # 버덕하면은 사그랑하게끔, 버쩍하게 헤그넹, 그걸 풀지우는 거는 그건

네는 건 뉘멍지. 풀 늘썩하게 지왕, 옷 멘들젠 허민

106004 @ 멩지로 무신 옷 만들어수과?

106004 # 멩지로 게, 이제 우리게 죽으민 입는 것도 멘들곡.

106004 @ 죽으민 입는 옷을 뭐렌헙니까?

106004 # 시집갈 때 비단 어시민 멘 멩지로 옷 우 알로 헿, 이제도 경허주게. 젊은이덜토 시집 가젠허민 아세 이젯 어멍들은 알아그녕 시집갈 때 혼 벌썩 헤취, 죽어도 입곡, 거 살아도 입는 거라 멩지.

106004 @ 맞수다.

106004# 게난, 혼 벌썩 헤 주주게. 경허민 죽영 입으민 그 것이 존거랑 헤영 놔 두고 허는 거주. 우리두.

106004 @ 게난, 삼춘은 게난 만들어 놔수광?

106004 # 아, 옛날 멘들양 낫주게.

106004 @ 그 죽을 때 입는 멩지를 무시거렌 고릅니팡?

106004 # 무시거엔 고라? 죽을 때 입는 옷이엔 곳주.

106004 @ 죽을 때 입는 것을 따로 하는 말 어수과?

106004 # 음, 어실 거라.

106004 @ 예, 그냥 사람들은 수의, 수의 허잖아 예? 수의 말고 다는 말 어수과?

106004 # 수의는 육진말로 수인가?

106004 @ 예. 게난마썩. 게민, 불목리 말로는 어수과?

106004 # 우리는 다른 말로 엇주게. 죽영갈 때 입는 멩지옷, 기냥 경 곳주게. 안 헿 놔둔 디가 엇주게. 요세사. 젊은이들도 시집갈 때에 아세 부모들이 그자, 멩지로 해주민 그걸 낫당 입는 거주게. 우리 조케들도 몬딱 헤여, 아생이. 남제들토 몬 장 개갈 때 그걸로 큰옷 허곡 몬 그거 혼 벌썩은 다 헤썩주게, 연날엔, 이젠 몰라도.

106005 @ 그 멩지를 썩로 만들젠 하면 어멍 만들어수과?

106005 # 고치로 물레로 영영, 불 숭아그네, 숭으멍 씨는 빠서, 영 둘러그네 썩 빵, 가마그네 놀아그네 이제 썩주게.

106005 @ 썩 때 처음에 이제 빵있도 어디강 뜯어 와야 될 거 아니파 예?

106005 # 빵낭 싱것주게.

106005 @ 옛날 빵나무는 뭐렌 고라수과?

106005 # 빵나무렌 ㄱ랏주게.

106005 @ 빵낭 싱거그네 빵낭에서 난 잎을 옛날에는 빵 뭐렌 고라수과?

106005 # 빵나무? 빵낭썩. 빵낭 여름도 썩고.

106006 @ 누에는 어디강 구헤와수과?

106006 # 누에? 어디 신청 헤그녕 구헤오민 멧박 영행 동그랑 동그랑 하계시리 툽 요만썩 헤그녕, 허민 헤영 갓다 주미는.

106006 @ 그다음엔 어멍헤수과?

106006 # 경행 앓다주면은 그 거 나두민 메칠 되민 그 거 나주게, 존존허게 이,

나민게 즈박 이추룩 네 개 반죽헝게 큰 즈박 커가민, 처음엔 츠룽에 낫당 커가민, 큰 즈박에 영, 그디 문 종이 끌아그네 그디 썸 주멍 키우민, 막 클겨주게 게민, 이 추룩 밤에는 놓지 못헝 이추룩 똑 지서그네 이, 영 헤그네 영 징게 지성 이런 디 놓고, 또 이런디 여기 징게 지영 여기 놓고 이런 큰 바드랭이, 대바드랭이에 낡, 게 민게 빵 썸 주민 게 막 크민, 막 커가민게 알랑알랑 헤가주게.

106006 @ 그 찝끌락 흰 베랭이들을 뭐라고 고라수과?

106006 # 누웨랭 고라실꺼라 누웻베랭이.

106006 @ 누웻베랭이 커가면 그뎀 뽕낭은?

106006 # 다 먹어지면은 먹을마니 살앙 먹어지면은, 그 이젠 들어강 이제 집 짓 영 살겨주게. 거미줄같이 그레주레 그레주레 지시민, 직각 허게시리 하계끔 다 짓어 지민 그디 드리프랑 그 안에서 죽어부는 거라. 죽어불민 고치 웨민 동락동락 고치 웨민, 그 이제 물에 숲으멍 그 씨를 영영 짓으멍 젓가락 큰 낭젓가락으로 짓으멍 둘루멍, 이런디 돌르는 걸로 영 돌르멍 썰 빠주게. 들영 감아 갈 겨주게.

106006 @ 돌르는 걸 뭐렌 고라수과?

106006 # 물레렌 굴앗주게.

106006 @ 옛날에도 물레렌 고라수과? 게민 그 물레 돌려가멍 실 뽑으면 그 썰 로 뭐혜수과?

106006 # 썰 뽑아그네게 흘만씩 감아지면은 또 이제 뜰어동 또감곡 또감곡 헤 그넝 툄렐 지실겨주. 실틀레 지서그네 풀지 안혜게?

물레썰 옛날에 짓어그넝 팔앗주게. 그추룩 헤스넝 하면은 이제는 무시거에 영헝 놉그넝 그 감는거 뇌귀댕가? 네 귀 댕가 이 영 헤영 감는 거, 멘들어 그넝, 영영 감는 거,

106006 @ 감는 걸 뭐렌 고라수과?

106006 # 감는 거? 몰라. 감는 것이 몰라, 감아그넝 또 이젠, 그 그시기에 늘겨 주 놀아. 놀아그네 이제 낭 바까그네게 영영 느라나그네게 문 놀아지메는, 이제 클로 짤 거 아니라? 짜그네게 멩지 멘드랑.

106006 @ 클로 짜그네 멩지 만드랑 예?

106007 @ 그 무멍은 뭐파?

106007 # 무멍?

106007 @ 무멍실은 뭐파 무멍?

106007 # 무멍실은 썰이엔 허는 거 그거아니라?

106007 @ 광목 만드는 거마썸? 그 썰이 머우파?

106007 # 멘넬?

106007 @ 아, 멘넬파?

106007 # 멘넬로 광목 만들지 안햐서?

106007 @ 예. 흑시 그건 안 헤봐수과?

106007 # 연날엔 멘넬 갈앙게. 이거 소개 헤그네 이불도 허극, 이거 멘넬 소개

로 이불 듯게 허는 걸로 허는 거주. 멘네도 문 즈사그넵에.

106007 @ 그, 멘네로 실이나 천은 안 만들어 봐수과?

106007 # 무사 천을 안 만들어. 멘네 같아그넵 썰 문 빠동, 물레에 영영 돌리멍 씨 문딱 씨빠동, 이제 어디 가그넵 태위다그넵, 기계로 태위다그네 이제 또 요만씩, 기자 소랑소랑 허게 시리 문 멘드라그네 무시걸로 영영 밀어그네 이런 막대기로나 무신, 막맹이 아니 무신 대죽 그 낭으로 멘들거라.

대죽낭 요만헌 헌 걸로 영영 속에 태위당 밀어그네게, 이젠 물레에 놈그넵 가레 기렌 헌 거 잇주게, 영 놈그네 이런던 또, 물레 영영 즈시멍게 그거 씨를 멘들거 주. 씨를 멘드랑 또 영영 감아그네, 꼬리렌 허멍 영영 꼬리로 감아그네 이제 또 문 멧 개 감아지민, 늘거주 놀아.

열 개면 열 개 스뭇 하영 헤그네 놀아그네 심영 영영 스뭇 저디 낭 밖고, 이디 낭 박양, 영영 놀아 놈그네 이제 헤놈그네 말젠 늘만이 놀아지민 이제 그걸 찰거주 게.

106007 @ 차면 이제 천이 뉘는 구냐예?

106007 # 응, 천 뉘어.

106007 @ 천을 옛날에 뉘렌 그라수과?

106007 # 미녕엔 굿국, 천 그라는?

106007 @ 아, 미녕이엔 무멍, 미녕 예? 미녕 종류에는 뉘가 이서나수과?

106007 # 멘네로?

106007 @ 예. 멘네로 만든 거.

106007 # 멘네로 만든 거?

미녕도 만들고. 것도 모루주게. 육지는 걸로사 광목사 멘들암신디, 어떻사 멘들암 신디. 이디는 이디 식은 미녕 멘들엇지, 이불도 허곡 소게도 허고.

106008 @ 미녕으로 멘든 옷은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106008 # 미녕으로 멘든 옷은? 올밥이 혹주게. 줌지라사는 디.

106008 @ 계난 무신 옷 멘들어수과?

106008 # 아무거라도 멩글주게. 배도 멘들고 연날엔 어시민 저구리도 멘들고, 적삼도 멘들고, 미녕으로.

106008 @ 미녕으로 예?

106008 # 응, 연날이사 무신거 어서서게, 어섯주.

106008 @ 계난 그때 미녕도 직접 만들어수과?

106008 # 미녕 멘들주게. 난 멘드라그네 허여보진 안헛주. 난 단뜰이렌.

요답 오누이 중 막뜰로 스뭇 앓쨌그네 막 키워부나네 난 미녕 즈실줄도 몰라.

기자 톱이나 허주, 안헤여.

106008 @ 어머니 허는 것은 봐나수과?

106008 # 응. 어떻 허는 거 문 보고, 우리 찌레도 문 헛주마는 난 간세로 안헛 주.

미녕도 즉꾸 해낫주게.

106008 @ 옛날엔 보난 미녕이 토목 생목 광목 닷새무명 옛새무명 종류가 하십디다 예?

106008 # 닷쉐미녕 옷쉐미녕이엔 흐지게, 미녕고라.

106008 @ 그게 무슨뜻이과 ? 닷쉐미녕 옷쉐미녕?

106008 # 흘 흘근 거 아멩헤도 고양이 흘게 짜진 거 즐게 짜진 거 담야.

106008 @ 숫자가 높은 게 흘게 짜진 것파? ㄱ늘게 짜진 것파?

106008 # 몰라도 짓깍 짜진 게 높주게.

106009 @ 토목은 뭐우파?

106009 # 토목이 그거주. 짓 ㄱ라 토목이엔 허주.

106010 @ 생목은 마썸? 생목.

106010 # 생목은 몰라.

106010 @ 광목은 미녕이렌 허난 예?

106010 # 연날엔 세경목이렌 해낫주 마는.

106010 @ 아, 세경목마씨?

106010 # 무신목싼디?

106010 @ 세경목, 예 전체적 미녕 예?

106010 # 것도 즘질게 짜는거, 흑게짜는거 허주게. 미녕도 직각허게 짜는 거 허주게.

106010 @ 게민, 이불꺽테기 허는 거는 즘질게 짠 거우파?

106010 # 즘진걸로 헐테주, 아멩헤도. 미녕도 좋은 거 구진 거 잇주게.

106010 @ 즘질이 짠게 좋은 거파?

106010 # 즘질이 짠게 좋은 거지. 막 즘진게 좋은 거지.

106010 @ 미녕으로 만든 게 광목이렌 허는 거지 예?

106010 # 광목은 여기서 안 멘들어나고 기계로 멘드는 거나네.

106012 @ 아, 기구나 예. 목화농사도 직접 지어나수과?

106012 # 목화? 목화가 무시거라?

106012 @ 아까 미녕 만들 때 쓰는 그거. 미녕 만들 때 솜 태우기 전에 꽃 이름 뭐 따그넝 해수과?

106012 # 멘넹?

106012 @ 예. 멘넹. 멘넹 농사 지어나수과?

106012 # 지어봣지.

106012 @ 멘넹농사 지을 때 어떻헤수과?

106012 # 어떻 헤여게. 씨부리민게.

106012 @ 씨는 어디서 나수과?

106012 # 어디서 나신지 그뻘 알아지크라게?

106012 @ 그럼 씨 부리는 거부터, 거름은 뭐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고라봣서.

106012 # 걸름사 옛날엔 몰라. 걸름은 혼노시 안헤나서. 안헤신거 다투아. 멘네, 같아보지도 안허고, 이녁이. 우린 같아보지도 안헛주게.

106012 @ 놈 가는 거라도 골아 줘서. 어떻 갑디가?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 줘서.

106012 # 어떻 같아, 그자게 다른 거 같 듯 같면은 게, 크민은 게, 동메기 ㅁ자그네게, 그자 미깡 동메기 ㅁ치 ㅁ장, 막 ㅁ자그네게 혼되민 캐주게 캐어. 영영 별어져. 그걸 소게 나오라 가.

그거 소게 ㅁ 이녁냥으로 이추룩 ㅁ 뽑아다그네, 물레에 또 영영 들루멍 씨 ㅁ 그 피 들루멍 물레에 씨가 나오게 판치룽게.

106012 @ 혹시 이 볼목리 동네에서는 그걸 농사지었던 사람은 어싱가마썸?
106012 # 그거?

106012 @ 멘네 농사 지었던 사람 어수과?

106012 # 연날 사름덜사 이섯주 마는 지금이사 젊은이들사.

106012 @ 게난 삼춘네 또래에선 어서수과?

106012 # 어서 어서, 우리가 나이오래 살아부난 이거, 몰루주 젊은이들 사 어평헌줄 알았서이?

106012 @ 경해부난 마썸? 혹시나 옛날 어른 중에 멘네농사 지어난 사람 어신가 헤가지고 예?

106012 # 헤영케 캐주게 게민. 헤영케 소게가 나오라 가, 영 혼되민, 미깡 혼되민 타듯, 영행 몬딱 행 그 각지가 벌어 지주 게. 벌어정 허민 소게 영영 뽑으주게 그디 강. 뽑아다그네게 그 물레에 영 즈는 곳에 씨 빠불젠 영영 메기멍 영영 혼민, 씨 나오는 딴 씨 나오곡 소게만 이웬으로 나오곡 혼주,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옛날에 밥행 먹을 때예? 어떤 밥 행 먹어나수과?

107001 # 어떤 밥 헤먹어게. 조팍이민 조팍.

107001 @ 조팍예.

107001 # 보리쌀 ㅁ그네 줍쌀 ㅁ 헤봐. 조팍 행 먹어. 섞어그넝.

107001 @ 근테 조팍도 모인 조팍이잇고 흐린 조팍이잇지예? 어떤 조팍 헤먹어나수과? 주로.

107001 # 아이 돌게 먹젠 헤나민 가당오당 흐린 조팍 행 먹주기.

107001 @ 흐린 조팍이 달구나예?

107001 # 오게. 아맹헤도 찹쌀이 찹쌀밥이 돌지 안헤냐? 흐린 찹쌀이 찹쌀이나네. 모인줍쌀은 파삭파삭 헤그넝 맛이 잇주게. 감자 넣고 조팍헤그네

107001 @ 그면은 감자넣고 조팝 해먹고예? 밀이나 보리.....

107003 # 보리쌀 놔그네게 낱행 먹주게. 보리밥에 좁쌀도 낱 먹고 섞어그네게.

107003 @ 흐린조팝 해 먹고예?

107003 # 흐린조팝은 가당오당 맛좋게 먹을거주.

107003 @ 검은 좁쌀도 이서놔수과?

107003 # 검은, 흐린 좁쌀게. 이제도 잇주게. 이제도 검은 흐린좁쌀도 잇고, 노량한 것도 잇고.

107003 @ 모인조도 잇고예. 그면은 곤밥은 안 해먹어수과?

107003 # 무사게. 옛날에사 곤쌀이 어시난. 이제는 너나어시 곤밥이주만은 옛날엔게 가당오당게 식게 때 멩질에 행 먹엇주 곤밥이 어디서. 이녁냥 나룩 해도 이? 하영 안하는 때문에.

107003 @ 나룩은 해봐수과?

107003 # 나룩도 해봤주게. 옛날에 싱거도 보고.

107003 @ 보리밥 해먹을 땐 보리쌀로 해먹을 때 다른 거 감자도 넣고?

107003 # 감자도 넣고, 하영 널루젠 스몫, 쌀 널루젠 스몫 감자 쳐 담아놔그네, 스몫 해불민. 어떤 아이들은 감자 등그러불멍.

107003 @ 보리쌀만 골라 먹엉예?

107003 # 응. 보리 좁쌀 밥만 먹어그네. 감자 안먹젠게.

107004 @ 게난. 게민 보리밥에 감자도 낱 먹고 좁쌀도 낱 먹고 헛텐 해나신디예? 반지기 밥은 뭐파?

107004 # 반지기밥? 그것이 반지기주게. 흐나씩 놓는 거.

107004 @ 보리도 넣고, 감자도 넣고. 아니면 보리도 넣고, 보리밥에 곤쌀 낱 먹을 땐 언제여수과?

107004 # 그것이 반지기가라.

107005 @ 그것이 반지기가라예. 곤쌀낱 먹을 때. 그다음엔 곤밥, 흰밥은 언제 먹어나수과?

107005 # 곤밥게. 식게 멩질 때나 아니민 먹어봐서게. 이젠 느나어시 곤쌀만 먹주만은.

107006 @ 조팝은 주로 조팝.

107006 # 보리쌀에 좁쌀 놔그넹.

107006 @ 경만 먹어수과?

107006 # 응. 조팝만 먹구젠하민 조팝만 낱 먹엇주게. 감자만 처냥. 불안 먹젠게 옛날에.

107006 @ 조팝 할 때도 감자 놔 나수과?

107006 # 응. 감자 하영 썰영놔.

107007 @ 흑시 팔 놔가지고 밥해나수과? 풋밥?

107007 # 풋밥 먹구젠 하민 이제도 풋밥 풋 낱 먹지 안 험서?

107007 @ 그런 식으로예?

107007 # 응. 옛날에도 낡 먹고.

107008 @ 근데 혹시 피밥이렌 행 피로도 밥 헤먹어 나수과?

107008 # 편? 우린 안헝 먹어봐서.

107009 @ 감자밥은 뭐 감자에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저거 섞은 거고예?

107010 @ 혹시 늪빠로도 밥 헤나수과?

107010 # 옛날에 승녕 때나 기자 물쌀, 물알아저 밥이. 물로 낡 어시나네 무를 사다그네 밥도 헤바서.

107011 # 툄도 낡 헝 먹어보고, 고사리밥도 헝 먹어보고, 옛날에, 어시난, 우린 어신사람이난.

107011 @ 옛날엔 물룣을 뭐렌 고라나수과?

107011 # 물르췌렌 곳지 머렌고라?

107011 @ 아 다른말 어서나수과?

107011 # 응.

107011 @ 물룣도 낡 헤먹어나고예?

107011 # 그것도 슬므민 막 오래 쏘아사 돌아.

107011 @ 아 물룣은마썸?

107011 # 응. 독한거난.

107012 @ 그 패밥은 뭐과?

107012 # 패. 바당에 패. 바당에 나민게 돌골이 나민게. 그거 오랑 대왕 섞엉 팍 패낵하주.

107012 @ 아 바다에 어떤 패라는 풀이 이서나섯구나예.

107012 # 응. 낵작낵작한 거.

107012 @ 계민 쫄 섞어가지고마씨? 패밥 할 땐 주로 어떤 쫄 섞엉 먹어나수과?

107012 # 어떤 쫄게? 그 쫄이 그 쫄이주.

107012 @ 쫄쫄이나.

107012 # 불라먹젠들. 쫄쫄이나 보리쫄이나. 불렁먹젠게. 옛날에 승녕되그네 어성.

107013 @ 국은 주로 어떤 국 끌렁 먹어 나수과?

107013 # 국은게 무신, 늪빠국도 끌렁먹고, 미역국도 끌렁 먹고게. 툄냉국도 헝 먹고. 늪물냉국도 헝먹고.

107013 @ 아 여름에는 툄냉국, 늪물냉국예?

107013 # 응.

107013 @ 다음에는 뭐 생선이라든가.

107013 # 꿩기?

107013 @ 예. 꿩기 놀 땐 주로 무슨 꿩기 사용 헤수과?

107013 # 고기사게 끌렁먹젠 헤서게, 이제사 기자 점 사라졌구나, 곰국도 먹고.

107013 @ 아니 바당에 이서도 경혜수과?
 107013 # 바당에 이서도 게 그자 가당 오당 한번 끌리주 뭐.
 107015 @ 혹시 콩나물, 집에서 길러그네 먹어 나수과?
 107015 # 국도 끌렁먹고. 오게 옛날엔 경 낫저게.
 107015 @ 콩나물은 어떻 만들어나수과?
 107015 # 어떻 만들어게, 고냥 툄랑 실이게 영~영 잇주게. 그것에 낵 놆두민게 물주멍 키와그네 크민 먹언.
 107015 @ 혹시 콩나물을 키웠덴 혜수과 콩나물을 질렸덴 혜수과?
 107015 # 키왔덴 헛주. 키와도 되고, 질라도 되고.
 107015 @ 질랏덴 혜수과? 키왔덴 혜수과?
 107015 # 질랏덴 안 혜신가?
 107016 @ 그 늣뻬로는 무국 끌릴 때 늣뻬로는 어떻 국 끌려수과?
 107016 # 머게 괴기국에도 낵 끌렁. 어시민 가당 오당 웅장국에도 흐뵆식 낵 끌리왕 먹고.
 107016 @ 호박읷국 끌릴 땀 어떻 끌려 나수과?
 107016 # 호박읷국을 어떻 끌려게. 물게 놆그네게 데와가민 놆그네게 ㄱ루 놓고 게.
 107016 @ ㄱ룬 무신 ㄱ루 사용혜수과?
 107016 # 밀ㄱ루주게. 밀ㄱ루 밧긴.
 107019 @ 몹국은 아까 여름에 들망국.
 107019 # 들망국은 경 우리 먹어본데 어서. 돛국물 곶은 거 이? 도새기 국물 그 런 디나 들망국들 먹어보죽.
 107019 @ 들망국은 곶는 다른 말 어수과?
 107019 # 들망국? 그런디나 도야지 그런디 낵 끌렁 대령 먹어봤저.
 107019 @ 아 툄으로 만드는 툄냉국하고, 툄은 냉국 행 먹어신디 들망은 냉국은 안 행먹어부난.
 107019 # 응. 것도 행 먹는건디 안 행 먹어봤주. 들망냉국은.
 107020 @ 그믄예 생선. 생선으로 국 끌리는 종류들은 어떤 게 이서수과?
 107020 # 생선 국 끌리는 거? 무시건 거 메역도 놓고, 느물도 놓고.
 107020 @ 아니 그니깐 생선 종류들이 어떤 거 이서수과?
 107020 # 생선 종류? 무시거 조기?
 107020 @ 조기도 예고 또?
 107020 # 대게 보민 조기도 생선 그런 거 국 끌리주.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흐 는 지 먹어지지 안 허난.
 107020 @ 계난 생선 아까 거 뭐파? 조기도 예고 또?
 107020 # 생선. 올토미? 생선고랑 올토미.
 107020 @ 우리 볼목리 말로 고라줘예? 올토미도 잇고,

107020 # 각계기들, 고등어들, 자리들 무사.

107020 @ 고등어들 자리들로 국 안 끌렁 먹어수과?

107020 # 잠사 안 끌렁. 고등어 국은 안 끓여 지주게이. 난 끌렁 먹어보진 안헛주. 기자 머 저거행 먹죽.

107020 @ 올토미만 마씨?

107020 # 아니 고등어 곶은 것도 기자, 지저그네 보짱 경 먹주게. 돔도 먹고. 국을 안 끌렁 먹어보젠 하는 거주.

107020 @ 예.

107020 # 고등어 국도 존텐 헨게만은.

107021 @ 미역국에는 미역으로 끌리는 국에는 어떤 국들이 이수과? 미역에 어떤 것들 섞영 끌려수과?

107021 # 기자게 냉국도 행 먹고, 메역냉국도 행 먹고, 무청도 먹고, 메역으로, 냉국도 행 먹고, 고기에 끌렁도 먹고, 생선도 낡 먹고.

107021 @ 퀘기 어떤 퀘기마씨?

107021 # 도야지 고기도 끌렁 먹누렌.

107021 @ 예.

107021 # 끌렁 먹으면 맛조아렌 헨게. 난 도야지 낡 메역 낡 안 먹어보난.

107021 #2 녹물국에는 돼야지 놓주게? 돼야지국에는 노물도 좋고 늡삐도 좋주게.

107021 @ 옛날에는 돼야지를 볼목리에서는 머렌 고라수과?

107021 # 돼야지 도새기렌 곳지.

107021 @ 도새기 중에서도 새끼 도새기는 머렌고라수과?

107021 # 새끼 도새기렌 고랏주.

107021 @ 자릿도새기는 머파?

107021 # 자릿도새기는 자릿도새기렌도 곳고.

107021 @ 자릿도새기가 새끼도새기파?

107021 # 응.

107021 @ 막 큰 도새기는 마씨?

107021 # 큰도새기렌 곳주게.

107021 @ 자릿도새기는 혹시 숫컷이파 암컷이파?

107021 # 암커나 숫커나 골ㄴ짜 곳주.

107021 @ 예. 새끼는 다 자릿도새기예?

107021 # 응.

107022 @ 여름에 냉국 중에 미역냉국도 잇고 또.

107022 # 녹물 냉국도 잇고. 풀냉국도 잇주게.

107022 @ 다른 냉국 뭐이수과?

107022 # 다른 냉국 몰라. 툄냉국, 녹물냉국, 미역냉국, 그런 거주.

107022 @ 웨냉국 이런건 어서수과?
107022 # 웨냉국 이서. 웨냉국도 행 먹죽. 여름에.
107022 @ 성계 옛날에 볼목리는 머렌 고라수과?
107022 # 귀.
107022 @ 귀나 이진 안 끌려 봐수과?
107022 # 무사 안 끌렁. 메역난 끌렛주.
107022 @ 보말이나 ㄱ메긴마씨?
107022 # 보말이나 ㄱ메기도 메역난 끌렁.
107022 @ 너패가 패과?
107022 # 응. 너패가 패.
107022 @ 아까 패밥은 너패를 얘기하는 거과?
107022 # 오게. 밥도 행 먹어져 옛날엔. 슬망 옛날엔 못 먹는 거 어서서게.
107022 @ 그 하얗게 막 끌리른 아까 어디 그 북한에 가가지고 머 췌덴 헤수과?
107022 # 무시거?
107022 @ 북한에 강 물질하명 췌 거. 뜯은 거.
107022 # 우미.
107022 @ 우미로는 국 안 끌렁 먹어수과?
107022 # 아니. 슉그녕.
107022 @ 슉잖아예, 슬므면 우미가 되잖아예. 슬마진 하얀한 투명한 것도 우미 령합니까?
107022 # 오게.
107022 @ 그것도 우미고, 바당에서 췌 때도 우미렌 하고.
107022 # 천추렌도 고라바. 우미엔도 고라바. 천추 일본말 아닌가.
107022 @ 가시리는 머과?
107022 # 가시리는 바당에 돌에 낭 이제는 이 식당들 하영 행 물 내려부는 따 문에 이 바당이 오염되는 거라이 가시리 벼랑 안나.
107022 @ 가시리하고 우미하곤 다른 것과?
107022 # 응.
107022 @ 가시리로도 국끌렁 먹어나수과? 옛날에?
107022 # 가시리국도 끌렁 먹넌 하는 디 먹어본 적 어서. 그걸로 몬 풀 멘들아 그네 발로 헤여그네.
107022 @ 볼목리도 옛날부터 가시리를 가시리렌 고라수과?
107022 # 응.
107022 @ 다른 말은 어서수과?
107022 # 전에 가시리 빨롱게 정월나민 나는 게 이젠 벼랑 어서.
107022 @ 파래 같은 건 어수과?
107022 # 파래도 어서.

107022 @ 옛날에도 어서나수과?

107022 # 이 섬에 가민 파래 이신디.

107022 @ 섬에도 가봐수과? 물질허레.

107022 # 저 섬이.

107022 @ 썰섬 마씨?

107022 # 응.

107022 @ 썰섬에도 물질허레 가봐수과?

107022 # 물질하주 게. 그디 휘갓딱 휘오랏닥. 우리, 낭 어시민 이? 이디 스룻 저추룩 헤여그네 실쿠대에 뒤 가스 나그네 무시거낭 험주만, 우리 집 어시민, 저기 썰섬에 테왁 아저강 쉬영, 낭 어시민 삼낭 이만씩 묶어그넝 이디까지 휘어오라. 낭 밀려그네. 경행 집에 와서 우리, 지들컷에.

107022 @ 제제기 오름에는 낭 어서부난예?

107022 # 제제기 오름은 이제사 소낭들 저거 핫주게. 옛날에사 저영 이서서게. 준준행 날 때난, 섬이 낭 이시민 기자 테왁 아정 물질로 휘영 가그네 ,낭 헤그네 휘 영 오라 이디꼬지. 밀려오랑. 이디까지 밀려오민 이레 기자 저오고. 저오당 짓어낫 주.

107022 @ 계민예, 국들 중에서 물회는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7022 # 자리물회 이디, 이까도 물회 행 먹고.

107022 @ 이까 물회 행 먹고 또?

107022 # 바당에 물회고랑.

107022 @ 한치마씨?

107022 # 한치물회도 먹고.

107022 @ 한치를 옛날엔 머랜 고라수과? 볼목리에선.

107022 # 난 몰라 건.

107022 @ 한치말곤 다른말 어서수과?

107022 # 한치가 이까랑 뜯린덴 허멍?

107022 @ 아 모르쿠다 난.

107022 # 뜯린덴.

107022 @ 기파? 이가가 오징어파?

107022 # 오징어광 한치영 뜯린덴 헨게?

107022 @ 예 그건 틀립니다게. 아 계민 오징어를 이까렌 험수과?

107022 # 응.

107022 @ 기구나. 한치는 따로 하는 말 엇고예?

107022 # 난 끝은거부덴 하다 보난. 다른덴.

죽류

107024 @ 그 다음에 죽 같은 거 끌렁 드셔봤잖아예? 보면은 이제 죽에 종류,

어떤 종류들 이수과?

107024 # 죽종류야 팻죽이여, 콩죽이여, 그런 거?

107024 @ 옛날에 막 팻도 있고, 쌀도 있고, 콩도 어실 때는 따른 죽 어서수과?

107024 # 무시거게. 전복죽도 있고게.

107024 @ 아니 막 어실 때 옛날에. 막 먹을 거 어실 때 끌려 먹었던 죽.

107024 # 끌렁먹을 땐 그런 거 밖에 어서낫주게.

107024 @ 전복죽사 막 비싼 거 아니꽈?

107024 # 비싼 거.

107024 @ 아니 옛날에 쌀도 헛고. 막 보리쌀도 어실 때.

107024 # 그땐게 보리죽도 쭈고, 좁쌀도 난 쓰고게, 이제도 미음도 아프사름들 먹지아니여이. 좁쌀미음. 그런 죽도 썩 먹주게. 좁죽.

107024 @ 좁쌀죽?

107024 # 응. 깨죽이여 무신. 그건 고급이고.

107024 @ 계란 어실 때. 좁쌀 놀 때 좁쌀 말고 다른 거 안놔수과?

107024 # 곤쌀 이시민 곤쌀 놓고.

107024 @ 아니 어실 때. 가난한사람들은 어떤 거? 어떤 죽 끌렁 먹어수과?

107024 # 그런죽 뺏게 어서게.

107024 @ 보리쌀로 죽 끌렁 먹을 때 보리쌀만 난 죽 끌렁 먹어수과?

107024 # 보리쌀죽도 우린 먹어본직 어시난. 좁쌀죽은 먹어도.

107025 @ 좁쌀죽은 좁쌀만 나가지고 아플 때 먹는 거마씨? 흰죽은 머꽈?

107025 # 흰죽은게 곤쌀만 난 먹는게 흰죽이고게.

107026 @ 조축은?

107026 # 조축은 좁쌀이고게.

107027 @ 팔죽은 팻이고예?

107027 # 응. 녹디은 녹디죽.

107027 @ 팔죽은 팻죽이렌 헤고예?

107028 @ 혹시 콩으로도 죽 끌려수과?

107028 # 콩죽이 허주.

107028 @ 콩죽은 어떻 싸수과?

107028 # 어떻 싸게. 콩ㄴ루 글아다그네 쭈영먹주.

107029 @ 아 그게 콩죽이구나예. 혹시 옛날 모믈로도?

107029 # 모믈죽도 먹고. 그거다 고급아니라.

107029 @ 녹디죽도 이서낫고예? 녹디 같은 경우엔 밧테서 좀 갈아낫지예?

107029 # 으으.

107030 @ 녹디죽 끓일 땐 녹디만 놔나수과?

107030 # 무르대기영게 곤쌀 놔사 먹주.

107030 @ 아 기꽈? 무르대긴다는 말은 무시거꽈?

107030 # 그걸 몬 영영게
107030 @ 슬망마씨?
107030 # 응 물 짝 하게 슬망.
107030 @ 아 손으로 무르대기 아. 죽이 텃구나예?
107031 @ 혹시 득죽은 안 끓여 봐수과?
107031 # 득죽?
107031 @ 예.
107031 # 무사 득죽도 안 끓여게. 옛날에 득죽도 먹엇주게.
107031 @ 득은 어디강 구해당 먹어수과?
107031 # 질냐, 질낭.
107031 @ 그걸 어떻 잡읍디가?
107031 # 어떻 잡아게. 우린 안 잡아바서.
107032 @ 기지예. 갱죽이 머파? 갱이죽인가?
107032 # 갱이죽. 바당에 갱이 뽕상 걸렁 죽썩먹어, 돈텐하주.
107032 @ 갱이는 뽕사그넹. 산채로 뽕상마씨?
107032 # 산채로 영영 곡에 낱, 뽑는디 낱, 풋방에 낱, 뽕사그네 물걸렁 죽 썩 먹주.
107032 @ 그게 갱죽이고예?
107032 # 그거 하영 먹으면 아픈 것도 좀 존넹. 이제도 하영 잡앙 먹으면 경 좋 아렌 험신게 저 서르레 가난. 이젠 어서어서 갱이.
107032 @ 걸 갱이죽이렌 혜수과? 갱죽이렌 안혜봐수과? 갱이죽예?
107032 # 그거민 종이 아파난것도 좋앗져. 무시겨렌 돌아댕기노렌 고란게.
107033 @ 꿩이나 이런 건 구해당 죽 안 썩 먹어나 봐수과?
107033 # 어서.
107033 @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바당에서 나오는 걸로는?
107033 # ㄹ메기 죽도 썩 먹노렌 헨게 난 먹어본디는 어시난. 우리 식당에 전이 이디 손지네 식당 할때도게 ㄹ메기죽 썩 먹어보렌 혜도 난 그런 건 안 먹어봐서.
107033 @ 아이고 경헛구나예?
107033 # 먹으렌 막 돈텐 혜도. 이제도 ㄹ메기죽 썩그네 돌텐들 하멍 이디 알력 디 선생인디, ㄹ메기죽, ㄹ메기국 메역난 경 잘먹은덴.
107033 @ 아 게민 바당에서 나오는 ㄹ메기나 이런 거 안 좋아햐수과? 삼춘은.
107033 # 아니 안 좋아하질 안 허고. ㄹ메기 죽을 안 먹어 봐서. 먹으렌 혜도 안 먹어봐.
107033 @ ㄹ메기 잡아당 뭘로 행 드셔수과?
107033 # 국 끌렁. 메역 난 국 끌렁.
107033 @ 국 끌려가지고예? ㄹ메기국 끌릴 땐 어떻 끌립니까?
107033 # 어떻 끌려게, ㄹ메기 거 반지놈게 물 영 세와냥, 모살이 이서 잇당, ㄹ

메기~, 모살 이라도그네게 무리테게.

107033 @ 그것도 무리테영예? 간은 필로 헤마씨?

107033 # 간장도 헐냐. 장을 헐냐사 맛있주. 집이서 만든 장. 기자 소금만 놔사 맛 어서. ㄹ메기 국은.

107033 @ 집에서 한 간장만 놔마씨?

107033 # 딴 거 서경이라도 난게, 요세 젊은사람들, 우린 미원도 사보질 안 헤서게, 맛소금은 잇당 흐끔씩 잇당 노보는디 우리 집이 손지도 행 준거 보민 그런 걸 일절 안 놓고, 허난 맛이 어서. 장도 아니 놔. 요세 아이들은. 맛이 어서. 아무 맛도. 행주민 먹으면 먹어도 저 소고기 낱 끌렁 먹어도 소금만 낱 맛이어서.

범벅과 수제비

107034 @ 혹시 범벅도 행 먹어 나수과?

107034 # 범벅도 하고말고.

107034 @ 범벅을 어떻?

107034 # 감자 하영 놔그네 불렁먹젠. 감자 하영놔그네 모물ㄹ루 나그네 저성 먹젠.

107034 @ 그건 감자 범벅이파. 모물범벅이파?

107034 # 몸범벅이렌도 ㄹ국 모물범벅이렌도 ㄹ고. 모물ㄹ민 모물범벅. 밀ㄹ민 밀범벅.

107034 @ 아 밀도 놔나수과?

107034 # 밀가루게.

107034 @ 모물범벅, 밀범벅. 또 다른 건 어수과?

107034 # 다른 건 어서.

107034 @ 무신 호박이라든가.

107034 # 그런 건 안 행 먹어 보난. 것도 허민 먹을 거주. 난 먹어본데 어신 거.

107034 @ 그냥 하얀 쌀이라던가 쌀가루 곁은 건 안 헤봐수과?

107034 # 응. 그런 건 죽이나 쓰주.

107035 @ 수제비를 볼목리에서는 뭐렌 고라수과?

107035 # 즈베기? 보리즈베기, 밀츠베기, 모물즈베기.

107035 @ 그다음에 다른 건 어수과?

107035 # 어서. 나 먹어난 것만 ㄹ람주.

107036 @ 칼국수 같은 건 헤먹어수과?

107036 # 칼국수는 밀곁은 걸로 고루허고게. ㄹ물로도 칼국하고게.

김치

107037 @ 김치는 김치종류는 어떻어뎡한 거 이수과?

107037 # 김치종류 난 나 먹는 거 기자.

107038 @ 불목리에서는 김치를 머렌고릅니까?
107038 # 무시거렌 고라? 짐치렌 곳주.
107038 @ 짐치예?
107038 # 응. 배추짐치, 늬삐짐치 그거주게.
107038 @ 혹시 봄에, 봄에 막 뭐 헛던 짐치들은 어수과? 배추에서?
107038 # 늬물동 돛짐치?
107038 @ 동짐치과 돛짐치과?
107038 # 늬물동짐치. 동짐치렌 곳주게.
107038 @ 그다음 동짐치 막 지난다음에는.
107038 # 요새사게 마눔짐치영 다 하난게.
107039 @ 그 무씨 막 갈아가지고 무잎 님은 거 뽑아가지고 하는 그것이 무슨 짐치과?
107039 # 춤늬물?
107039 @ 춤늬물 짐치과?
107039 # 응. 춤늬물짐치, 배추짐치주게.
107039 @ 열무짐치가 춤늬물짐치잖아예. 물짐치.
107039 # 동짐치주게. 동게.
107040 @ 여기서는 동짐치렌 헛구나예? 동지짐치렌은 안 해수과? 동은 동지렌은 안 고라수과?
107040 # 응.
107040 @ 그럼 늬물동 꺾어 오렌 해수과 늬물동지 꺾어오렌 해수과?
107040 # 늬물동 꺾어오라.
107042 @ 무김치는 여기서는 무는 여기서 머렌고라수과?
107042 # 늬삐.
107042 @ 늬삐로는 주로 언제 김치 담강 먹어수과? 늬삐로도 막 여러종류가 잇잖아예? 막 썰어그네 하는 것도 잇고.
107042 # 깍제기 짐치도 허고, 물짐치도 허고게.
107042 @ 깍제기짐치는 머파?
107042 # 요만씩 헤그네 네 개씩 존존하게 썰어낵이.
107042 @ 아 깍제기. 파짐치도 헤낵지예?
107042 # 파짐치도 이젠 막 행떡주게. 우리도 이젠 행 떡으나네.
107043 @ 꿩마눔으로는 안 해나수과?
107043 # 무사 안헤게. 꿩마눔이 어디서게.
107043 @ 옛날엔 이서낵지예?
107043 # 옛날에는 이서낵지만은 이젠 꿩마눔 잇주게 어서. 밧디도 옛날에 낵안 싱글 때, 꿩마눔이 밧디 농사헤나민 아주 많은디 이젠 어서.
107043 @ 무사 어신고예?

107043 # 산에나가민 그 내창에 꿩마농 이신덴 고란게.

107043 @ 농약해부난 어신가마씨?

107043 # 그 맞디. 옛날엔 꿩마농 나젠하민 물로 쌀이영 막 하민 놀아불민 그거 노는디, 이제 막 노지만은 이제사 미짱냥 심경 검질매민 그런거 나긴햐서게. 못나게 냥, 이디 알력집이 미짱냥 아래 뿌렁내불민 아이들 해당먹고 지네 짐치도 해당먹고, 이제이제.

107043 @ 옛날에는 여기서도 파는 파렌 고라수과? 파에도 여러종류가 잇잖아예. 이디 심거정 이신 건 머머 이수과?

107043 # 대사니? 패마농? 그거 밖이 엇주게.

107043 @ 게민 패마농 짐치렌 해수과?

107043 # 응.

107043 @ 패마농 짐치 할 땐 뭐뭘 낱 해수과?

107043 # 무시거나게. 그자 짐치허는 노물에 짐치하는 거 낱 하민 되주게.

107045 @ 혹시 갯노물로는 짐치 안 해봐수과?

107045 # 갯노물로는 우린 안 해보나네. 먹어보지도 안 허고.

107046 @ 세우린마씨?

107046 # 세우리 짐치도 해주게. 세우리도 갈아사, 어성.

107046 @ 세우리는예, 우리 우녕에 심으면 쨌끔만 심어도 금새 막 큼디다.

107046 # 경헌텐게. 이디 알력집인 경헤그네 먹어. 우린 어시나네. 그거하민 느랑 내비사 할 꺼나네 마농도 못 심고. 마농은 그때그때 심것당 메여그넝 짐치도 헤 옛당 먹고 해부나네. 세우리 그자 내비사 번성헤여그네 막 풀저그네.

107046 @ 이제 저거는 언제 저릴거파게? 오늘 배추케 온 건 언제.

107046 @ 아니. 이제 하젠하면 처음에 저거 이제 가그네 쨌왓잖아예. 이제 절여서 하는 과정을 쫓 고라줍서. 노물 쨌 그다음에 어떻힙니까?

107046 # 소금에 죽영. 물에 죽영. 하루만 컷다그네 어두가건 건것당, 물 빠지건, 듯날라그네게 고치영게 생강이여 뽕상게, 대산이영 뽕상 낱 난 다른 양념은 벼랑 안놔.

107046 @ 새우젓도 안 넣고?

107046 # 새우젓 논건 난 먹지도 안 허고. 멸르치다시다 국물 딸러그네 고추 물 양 놔그네.

107046 @ 아 멸치 끌러그네.

107046 # 응. 멸르치다시다, 멸르치도 맛이 어선게, 이디건 어떻산디. 옛날거 닥지안햐. 멸치 시장에 푸는 것들 보민게, 딸리민 옛날엔 맛이 잇는디. 외국것사 들어와사신디 윈 딸러봐도 맛이 어서. 이제 저 손지 서울 강 장사하명 멸르치 사온 건 맛이 이서. 이디꺼난. 다른 건 외국 꺼난 그런 가? 시장건 몇 번 사오랑 먹어봐도 맛이, 딸러 봐도 맛 어시난 나 안 사주, 데껴비영. 경헌디 서울서 아저온 건 맛이 이서. 이디꺼난. 한국꺼난. 멸르치 해당으네 가이 아정을 땀 사오민 그거 빌어당 짐

치도 헐 땀 허고 어땡 땀 안 허고. 난 하간 거 난 일절 안 먹나.

107046 @ 늬뻬로 짐치 담글 땀 어땡 담굽니까?

107046 # 늬뻬짐치도 그런양념 놀겨주게.

107046 @ 그냥 경혜그네.

107046 # 대산이영.

107046 @ 대산이영 버무릴거예? 대산이도 심어그넝 낫당 그거 썸수과 사당 썸수과?

107046 # 기거 몇 개 안 허난. 이거 커 가민 이거 기자 뽑아그네 더러 지도 행 먹고 더러만 헉낙석 내빋다그네 대산이사.

107046 @ 근데 젓갈은 좋아하진 안헤도 게도.

107046 # 생긴 난 일절 안 먹어지난, 이 새우 눈 것도 짐치 안 먹주게.

107048 @ 불목리사람들은 주로 젓갈 뒤뒤 담강 먹읍니까?

107048 # 그추룩 담강 먹읍주게.

107048 @ 젓갈들 어떤 종류 이수과?

107048 # 그런 것들 놔그네 세오리여 짐치할 때.

107048 @ 그럼 불목리에서는 삼춘 어릴 때 젓 어떤어떤 젓담강 먹읍디가?

107048 # 옛날에사 새우젓이 하강해 먹어서게. 멸젓이나 자리젓이나 그런 거 행 먹었주.

107048 @ 멸젓 자리젓은 담가수과?

107048 # 옛날엔 며르치영, 저 배들 하그넝 거리불진 앓을 때, 바락바락 물기엔 멸이 들어오주. 담을 다와 영

107048 @ 원담마씨?

107048 # 응. 담을 다오민 그디 멸 들어오민 죽바지로 거려당 젓도 행 먹고, 물리왕도 먹고. 즈미정, 멸 들영, 옛날엔 심젠하민 바닥바닥 뛰민 즈미로 가그네 헤영 하는디, 이젠 바당에서 거려부난 이젠 들어 완서게. 안 들어 완주. 일절 안 들어와. 우리 옛날에 멸 틀민 즈미로 잡젠하민 톱 튀고 톱 튀고, 즈미로 오랑 먹었주만은, 이젠 멸이 들어오민 무시거 거리지도 안하는 거 다향. 하영 어서.

107048 @ 계난예. 거리는 데는 거렘실테주만은.

107048 # 거려도 하영 거리지 안헤이 옛날 ㄴ찌 이.

107053 @ 계난 한 번도 멸젓이나 자리젓 담그는 거 안 담가 봐수과?

107053 # 아니 자리젓 담그는 것사 안 먹어도 담가봤져만은.

107053 @ 자리젓은 담가봐수과? 멸젓도 담가봐수과?

107053 # 멸젓도 됴그젠 하민 됴그지만은.

107053 @ 자리젓 담글 때 어땡 담굽니까?

107053 # 어땡 담야게. 이젠 며 소금 자리 얼마니민 소금이 몇키로 놓는 건 경혜. 됴암주게. 나 안 됴아봐서. 난 기자 무대기로 됴암주.

107053 @ 무대기로 됴으면 그냥 자리 흔뿤사면은?

107053 # 소금, 기자 대걸로 놔그네 헤빤주. 이젠 딱딱헤게끔 하영 담은 디는
된 뜨는 때문에 이. 자리 땃 키로민 소금 땃 키로 난 뜨는 때문에 맞암주게.

107053 @ 옛날 자리젓 담아가지고 그냥 실패 안 헤가지고 맛있게 잘 담가 나수
과? 대충담가도?

107053 # 케난 난 그 생걸 안 먹으난 경 하영 돕진 안헤고.

107053 @ 게민 그 아까 그 자리젓은 누게 줍니까?

107053 # 자리젓 안 헤그네 기자 자리 사다그네, 하영 사지민 소금 버무려그네
누게 먹으렌 쥐불고. 경 안허민 안허곡 자리 안 돤아.

107053 @ 자리로는 머헝 드셔수과?

107053 # 자리로 그양 구웁. 구웁도 먹고 볶양도 먹고 허주. 경밖엔 안헛주. 자
리 사례도 안가져. 먹어지지 안헤난.

107051 @ 혹시 아감젓이라고 알아지쿠과? 아가미로 젓 하는 거.

107051 # 알게미젓? 알게미젓은 안헤보난에.

107051 @ 알게미젓 담그는 사람도 이십니까?

107051 # 알게미젓들게 그 배설게 알게미아니라. 이디서게 알게미젓이 벼랑 이
서게?

107051 @ 혹시 이마을에서 막 이런 젓 같은 거 담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
수과? 혼번 물어봐서 대답해 줄 사람.

107051 # 몰라게. 혼사람 무사 어서게. 이실테주.

107051 @ 누구 아는 사람 어수과?

107051 # 누게사 잘 답는지 몰라.

107054 @ 볼목리에서 출레가 머짜?

107054 # 출레? 출레, 몰라.

107054 @ 반찬을 머렌고람수과?

107054 # 그것가정 출레엔 해주게. 반찬고라.

107054 @ 보통 옛날에 생각 한 번 헤볶서. 출레 머머 차령 먹어수과?

107054 # 무시거 출령 먹어. 출레 어성 밥만 먹주. 무시거 어성 곶아낫주게.

107054 @ 보통 어떤 출레 헤나수과?

107054 # 출레가 무시거게 아무거나도 출레렌 허영 먹으민 반찬도게 자리 지지
민 출레렌 헤영 먹을거 아니라게.

107054 @ 맞수다게.

107054 # 경하듯 케기나 아무거나 출레주게. 밥 하민 출레어시민 못먹켄하멍.

107054 @ 그럼 보통 우리가 밥상에 오늘도 아침에 밥 드섯잖아예? 밥에 출레
뒤뒤 낱 드셔수과? 머머 찰려나수과? 오늘아침 밥상에.

107054 # 나 조기 지저네, 조기 볶아네, 조기 국끌령 먹고 늣빠나네.

107054 @ 조기 국끌령 먹고. 조기 조려그네.

107054 # 조기 조령 안 먹어네. 지정 먹다네 국끌령 먹어서 오늘은. 늣빠 헤영

게 시리 식당에 강 보민 어떤디 퀘기집이 고기 먹으레 보민 헤열게 늠삐 헤영 케그 네 새콤돌콤 그추룩헿 먹고. 짐치에 경헿 먹엇주게.

107054 @ 오늘 밥이예?

107054 # 응. 퀘기 놓고 무시거 나사 하영 경 출려게.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리고 장아찌 그 장아찌 같은 경우에 대사니로 뽑아당 장아찌 곶은 거.

107055 # 짱아찌도 해주게.

107055 @ 장아찌 종류는 뭐 담강 드셔봐수과?

107055 # 나가 경 할망이라부난 하간건 먹지안하여. 대강 기자 먹어지민 말주. 어디 서경.

107055 @ 옛날에 그 집집마다 반치렌 한 거 이서낫잖아예?

107055 # 반치이제 어서.

107055 @ 반치로는 장아찌 안 담가 봐수과?

107055 # 반치지도 해주게. 빨레기로 끼차그네 이, 빨레기로도 허고 중간으로도 헤여그네 이, 밧디 심근디가 어서. 옛날엔 집집마다 심거도 낫주.

107055 @ 양애로는 안 헤나수과?

107055 # 양애끈으로 헿헿 거 허주게 이제도. 양애끈 헤다그네 지담아그네. 작년에 저 우리 조케손지 하영 헤다주난 먹엇져 만은.

107055 @ 유론 안헤수과?

107055 # 유사 무사 유사 죽여그네 내려왕 먹주. 유 가랑.

107055 @ 물망 같은 걸로는 장아찌 안 담가봐수과?

107055 # 장아찌 난 안 담가반. 물망 이젠 어서 이디. 옛날엔 이디 쉼섬에 막 기영 먹는 물망 이선게 이제사 오염되영 물망이 이서? 먹는 물망 이젠 나지도 안 허여 바당애. 안 먹는 물망도 안나 이제. 바당 아래에 막 감태나 밖이. 옛날엔 물망 이랑 감태랑 곳이 미삭 툄이랑. 이젠 툄 흔가지도 어서 툄 흔 2지.

107056 @ 마농 장아찌 담글 땐 어떻 담굽니까?

107056 # 장아찌 헿 때 무시거 돕아게 물. 마농으로 헿 때? 마농으로 헿 때사 장애 축 말멍게 김치하듯게 노는 거 그거 아니라?

107056 @ 간장 끌려그넹 하는 거 그거 말고마씨?

107056 # 간장 끌령 허는 건 마농지 담을 때?

107056 @ 예. 마농지 담을 때 어떻합니까?

107056 # 대사니?

107056 @ 예. 대사니

107056 # 대사니 담을 때 경허난 종안게게. 소금에 초 흐낌 나그네 이, 미리 여 그네 컷다그네 아시날 컷다그네, 어둑어가민 건지나, 듯날 아칙이 건지나 헿다그네,

장물도게 꿩 앙 혈 놓고, 계민 새콤달콤헛게게.

107056 @ 소금하고 초냥 담갓당?

107056 # 경허민 3년을 놔둬둬 쉬지 안 허여. 초 놔민. 대사니 허여그네 3년, 물에, 저 소금에 소금물에 이제 약간 초 놔그네, 컷다그네 건저다그네 저 장물끌러 왕, 흐깁 섞어그네 놀거 놔그네 하민. 3년 나도 쉬지 안 허여.

107056 @ 그 장물은 집에서 담근 웬장 장물이파? 아니면?

107056 # 아니 포는 거. 그런 건 포는 거 든 거 사당 쓰주게.

107056 @ 초는 무신걸로 썸수과?

107056 # 초는 아무거라도.

107056 @ 빙초산마씨?

107056 # 사과초 사당하민 하영놓고. 기자 초 독헌 거 노젠하민 흐깁만 놓고게. 경허민 3년을 냉장고에 놔민 쉬지 안헤영 그대로 먹어져. 돌아.

107057 @ 그리고 또 예 볼목리에서 놀고 안 먹어부난 잘 모른덴 헤신디. 볼목리에서 주로 어떤 회들이 이수과? 자리회도 잇겟고.

107057 # 자리회도 잇고. 그 무시거 한치회도 잇고.

107057 @ 물회말고.

107057 # 물회말고 무시거라.

107057 @ 다른 걸론 회 만드는 거 어수과?

107057 # 몰라 나는. 먹어나지 안 허난. 자리회나 물회 이디들 여름나민 여디 텅기질 못하난게 올해 어디 가당 바바, 벌것게끔 포한 거 집 헐거주게. 원 사람 텅기지 못하난 여름나민은 자리사레영, 자리회 먹으레 영 원. 차도 시내버스도 저디 세워, 여디 세워, 차 세울디가 어서.

107057 @ 겨울엔 자리가 하나도 안남수과?

107057 # 자리 나도 맛이 잇주게 줄어부난. 자리거리지도 안 허고 새끼 처그네 팔월인가 구월인가 자리 새끼 날 시간에 자리 거리레도 안가고.

107058 @ 볼목리에서는 요즘 겨울에 승키들, 어떤 승키들 케그네 반찬 만들어 그네.....

107058 # 이제사 이디서 어서게. 이디서 놔물 곱은 거나 데왕 먹고. 마농 곱은 거 그런 거주.

107058 @ 봄에는 주로 생선 같은 것들 자리는 무사 자리는 여름이고 봄이고 바당에서 나는거 어수과?

107058 # 봄부터게 자리 낭 헐거주게.

107058 @ 고사리 꺾으레는 다녀 점수과?

107058 # 나 안한지 오래여. 누게가 싹거나 쥐게. 나 늙은 할망 고사리 꺾으레. 고사리 어서도 상떡주. 아니 꺾으레 안 가바서.

107058 @ 그럼 고사리 반찬은?

107058 # 어디 고사리 반찬 이서게? 고사리 흐 근에 칠만 원이여 허는디, 어디

고사리 우리 먹어보느니.

107058 @ 아이고 기구나예?

107058 # 이제 명질날 하민 우리 어디 강 빌어와사켜 고사리 어성.

107058 @ 계도 호박 같은 건 잊지안혜수과? 호박 막 무쳐그네.

107058 # 호박은 호박도 밧이사 심그는 거주 밧어시민.

107058 @ 호박 탄탄해가지고 그거 호박 가정 오면은 드셔지수과?

107058 # 에에 호박 먹구정 안혜여. 호박철 나사 먹주. 지금 호박 철 아니난 달지도 안 혀여.

107058 @ 고사리 같은 거는

107058 # 아무 때라도 먹어도이.

107058 @ 저는 워낙 바빠부니깐 누가 주변에서.

107058 # 고사리 저 멀리 가민 많넨 헌텐 제주시드레.

107058 @ 고사리 저 말리지 안혜그네 생고사리 잇잖아예. 슬마그네 그것도 볶아먹어도 맛좋지 않습니까.

107058 # 맛좋주게.

107058 @ 나 다음에 올 때랑 가져올게예.

107058 # 어디시난?

107058 @ 누구 우리 벗들이 왕 꺾어당 주민 저 냉동실에.

107058 # 식계행 먹주게.

107058 @ 저는 그거 할 겨를이 어서그네 예. 아직 식계하는 것도 엇고 예. 냉동실에 이시난 다음에 올 때 갖다드리쿠다.

107058 # 오게예. 어떻하난게 아이고 춤 고마운 말씀이여.

장 담그기

107059 @ 그리고 올해 지금 담과수과?

107059 # 올히는 안 담가서. 아직은.

107059 @ 게 먹을 거 이수과?

107059 # 먹는 거 이시난. 난 돕지안해도 우리 집이 아이 산건 절대 안 먹켄하명 안 먹주게.

107059 @ 계난 웬장은 작년에 몇 돼 담가수과?

107059 # 뗏 돼 담가게. 매주 서너개사 뗏 돼 사당 돕가.

107059 @ 아 푸는 메주 사다그네?

107059 # 흔 말 안행담주. 사당.

107060 @ 메주는 언제쯤 장 담급니까?

107060 # 이제 헐겨주게 이제. 묵은혜예. 경 안하민은 즈물멍질 줌행 담고. 보름넘영 담고.

107060 @ 그민 선달에 담는거파?

107060 # 선달에 이제 담을 때 하죽 이제. 이제냥 담아도 좋고. 선달 넘어 담아도 좋고. 그믐날 담아도 좋고.

107061 @ 불목리에서는 그냥 웬장만 담금니까? 고추장은 안 담금니까?

107061 # 고치장 요세 담아서? 사당 먹었죽.

107061 @ 안담아 봐수가 삼춘은?

107061 # 나 고추장 안담아. 매워그네. 안 매운거 사당먹주.

107061 @ 웬장 담글 때 간장 거르게, 웬장 소금나그네 간장도 뽕 먹엄지 예?

107061 # 간장 약간 빼어사주 하영 빼민 맛이 어서.

107062 @ 옛날에는 콩 삶아냏잖아 예? 갱 메주는 언제쯤 슬릅니까?

107062 # 메주는 기자게 시월 나가민 새콩나민 삶아그네게 티워사 장을 담주게.

107062 @ 티울 땐 어떻게 티와수과?

107062 # 삶그네게 무시걸로 뽕상하나. 또 콧게끔 고운 것에 담아그네, 깨끗한 것 에 담아그네 버선 새거 신영 볼르나. 물썩물썩하게 볼르나. 뽕기나 경혜그네게 물에 영영 췌어그네. 티와사 장이 먹주.

107062 @ 티울 때는 무시거에 담양 티워수가?

107062 # 아무것에나 돌아멩이라도 티우고. 아래라도 상놔그넵 티우고.

107062 @ 돌아멜 때는.

107062 # 옛날에는 나룩이실 땐 나룩적으로 혜당으네, 이제는 보민 육지 나룩적으로 무끄난게. 아무 이제 나이롱 넙적넙적 무끄는 걸로게 돌아메도 좋고. 상에 조곤조곤 나그네 저런디 어디 조신디 놔그네 티었주.

107063 @ 장 담글 때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건 어수과? 장 담글 때 영하면 부정 탄다, 그런 건 어서수과?

107063 # 몰라게.

떡류

107064 @ 그러면은 잠깐 저가 아까 전에 물어봣잖아 예? 제사 갈 땐 어떤 떡 하나신가 물어봣잖아 예? 떡의 종류는 어떤어떤 떡 만들어 나수과?

107064 # 친떡. 시루떡. 솔벤. 절벤. 인절미. 우짚.

107075 @ 우짚?

107075 # 응. 췌 우에 노는 거 우짚.

107075 @ 우짚떡은 게민 어떤 떡이과?

107075 # 헤끄만 한 거. 우이 놓는 거. 동글랑 한 거. 옛날엔 조개송편도 허고 접아그네. 경허주게. 그거 몇가지라.

107075 @ 우짚은 멀로 만듭니까?

107075 # 우짚은 거 콩꺾루로 솔벤 만들지 안 허여? 솔벤 만드는 거 준준헌 거 어서게 동글랑헌거, 우에 놓는 거. 그것 고라 우짚이렌 하주게.

107075 @ 아, 그럼 이걸 제사지낼 때 다른 떡 우에다가 올려놔수과?

107075 # 응. 경 잘 찰리젠 하민 경혈거고. 안 찰리젠 하민 요세들은 기자 저 떡, 식빵이 가시드리 떡도 사당 올리곡들 그자 간단하게 시리들 하지 안 햄서게? 지네 하교적 한 거.

107065 @ 계난 옛날 헤난 걸 고라줍서예. 시루떡은 어떻 만들어수과?

107065 # 시리떡은 친떡이 시리떡이주게.

107065 @ 계난 친떡이 시리떡인데 시리떡 만들 때 무신 쓸 어떻게그네 그 만드는 방법.

107065 # 쓸 컷다그네 기계강 돌아오나, 옛날엔 기계어실 뎀 방에에 백상. 나 시집가네, 시집갈 때 옛날에 저물멍질 그름날이나네, 널은 저물멍질이고 오늘은 떡 혈거난 아시날 시집가난, 그름날 시집가난 나고랑 머리 방에간, 이거 니여지고 혼사람 고라 백시렌하고, 시집가난 계난 못살암진지사. 거 백삿주, 시집가는 날. 이제사 곱으민 나 시집가그네 그거 백사그네 나 못살민 말켄헤그네 안백켄 헛주 뺏느냐.

107065 @ 그 백스는 걸 방에렌 해수과?

107065 # 오게, 방에에, 널은 낭게 파그네 그 방에 만들양, 고루 쓸 무럿당 백상. 체로 사 줌질게 쳐그네게 물놔그네.

107065 @ 그다음에 어떻게수과?

107065 # 떡 멘들젠 경 헛주게. 찻주게. 떡 멘들젠.

107065 @ 시루에 난 찻수과? 친떡 할 뎀?

107065 # 응. 지금도 시리 저기이서게.

107065 @ 아 지금도 이수과?

107065 # 옛날 시린 없고. 옛날 시린 빌어당 굿하는디 강 벌러부난, 이제 그 일리뜨리로 한, 시리 세 개 이서 큰 거 조근 거.

107066 @ 기구나 예? 아까 방에로 그거 뭐한 쌀을 송편 만들 때도 썬잖아 예? 송편은 어떻만들어수과? 그 쌀 같아그네 찻은담에.

107066 # 어떻게게. ㄹ루 돌아당 물 싹싹 게어그네 물아그네, 물양 이녁만씩 존존하게 시리 헤여그네 송편 멘들주게.

107066 @ 송편 속에 뭐놔수과?

107066 # 풋도 담고, 붉은 풋은 안 쓰난 이, 사탕도 놓고, 깨도 볶아그네게 백사그네 흥깁 노는 디도 잇고, 사탕만 노는 디도 잇고게. 이제 푸른풋게. 녹두담양 하는디도 잇주만은 녹두가 어디서.

107066 @ 푸른 풋이 어떤거파?

107066 # 저 이 무시거니 밧디 가라그넹. 잇어빋져 일로 밥에 난 먹는 거.

107067 @ 그리고예 빙떡도 헤봐수과?

107067 # 빙떡도 하주게.

107067 @ 빙떡은 어떻 만듭니까?

107067 # 어떻만들어게? 모를가루 사다그네게 물카그네 것도 잘헤사 허주.

107067 @ 그것도 뜨거운 물이파 차가운 물이파?

107067 # 언물. 언물헤그네 지저그네 늪뺨 줌진이 썰어그네게 놉그넝, 그래 난 몰아그네게.

107067 @ 그 늪뺨는 슬망 마씨? 생 늪뺨 썰엉 늪니까?

107067 # 생늪뺨 놓느냐게 슬마사. 슬마그네 건정 물 빠져사.

107067 @ 늪뺨엔 간 안혜수과?

107067 # 소금으로 약간 혜사주게.

107068 @ 그다음엔 상웨떡이 머파?

107068 # 상웨떡은 밀가루로게 몰앙, 전이 상웨떡 피우는 약을 사오는다, 이젠 어디 오람주만은 어서. 아무디나. 경헤그네게 물 나그네게, 물도 미지근 하게 테우민 제기되고, 드사사 그건 드사사 피는 거. 얼민 안 피어. 드신디 노민 부각하게 피고. 그거 난 몰앙 내불민 피민, 칼로 먼 떡 올릴만씩 기차그네 노민. 부각행 뿔에 난 치여그네 그게 상웨떡이주. 나 그건 잘 멘들아지는다, 이젠 그것이 시루가 어디가 푸는디사. 이제도 여름에 막걸리 노민 뉘주게. 막걸리 놓고 우유 늪뺨 헤도 난 우유 안 먹으난 우유 안 놓추.. 막걸리만 노민 막 피어 여름에.

107068 @ 겨울엔 막걸리 놉도 안 피고마씨?

107068 # 더우민 피주. 덩게하민 겨울엔 드상 피는 따문이 언 뺨 잘못헤나민 안 되어.

107068 @ 게민 제사 때는 친떡하고 상웨떡. 제사 때도 써수과? 상웨떡?

107068 # 허주게. 여름엔 상웨떡 만들젠 허젠. 요세 아이들은 상웨떡만 하겐 하주게.

107069 @ 그럼 제사지낼 뺨 여름에 뉘뉘 헤나수과?

107069 # 무시거 놉게 게메 친떡을 치나 상웨떡을 치나, 그래 솔벤, 절벤행 우트레 난게 헤여그네 제사지내주게.

107071 @ 그다음엔 설기떡이렌 한 것도 들어봐수과?

107071 # 설기떡 난 들어본직 어신디.

107072 @ 인절미는 어떤 떡이과?

107072 # 인절미는게 콩가루로도 인절미 허고. 찹쌀로도게, 이제 찹쌀떡이렌 하멍 소랑소랑 게민 것도 인절미되고.

107072 @ 인절미도 집에서 만들어나수과?

107072 # 오게.

107072 @ 인절미는 어떻 만들어나수과?

107072 # 아 칼로 썰민 뉘겨주게.

107072 @ 그 가루를.

107072 # 가루로 처그넝 게. 솔벤추룩 만들앙. 칼로 키치민 인절미고게.

107073 @ 절편은 뉘파?

107073 # 절편, 그거 이 옛날엔 그 영장나민 아세 절편 해주게 절편. 징계징계 대섭을 놉. 혼징계 하민 대섭 헤다그네 즈근즈근 허고 우린 경허민 옛날엔 어신뺨

나네 곤살들 어실 때나네 대섭 놈그네, 영영 불으카부덴, 마주 불으카부덴 그거 떼민, 그거 땡 먹젠. 불은거 갈랑먹젠 서로 도트명들. 그거 알루께시리 혼건 절편이주게.

107074 @ 게민 솔벤은 뭐짜?

107074 # 솔진 건 솔벤, 솔진 건 친떡, 얇게 한 걸 젤벤.

107074 @ 솔벤은 뭐짜?

107074 # 솔벤은게 영 세가꾸나게 안헤여?

107074 @ 세모나게마씨?

107074 # 응. 세가꾸강 양편이 끈잇고 넓적하게.

107074 @ 아 그제 솔벤이구나예. 솔벤 찢 땡 뉘 놈그네 합니까?

107074 # 옛날엔 솔벤 찢 때게 그 저 소낭. 소낭 솔빚 뽑아다그네.

107074 @ 소낭 썬을 솔벤이렌 햄수과?

107074 # 부트카부덴 경허는 거주, 불어그네 떡내지 못하카부덴 징계징계 부터 불카부덴. 세세에 헤냥 그 치는거주.

107075 @ 웃기떡이 뉘지 알아지쿠과?

107075 # 웃지. 우찍은게 솔벤곶이 쟈쟈하게 둥글렁허게 하는 거, 쟈쟈하게 쥬우에 노난 우찍이라. 솔벤놓고 인절미 놓고. 다헤냥 쥬우에 노는 건 우찍이렌 하는 거.

107076 @ 그다음엔 그 본향당이나 이렇게 갈 때 떡 행 가잖아예?

107076 # 돌레떡?

107076 @ 예. 그건 돌레떡이과?

107076 # 응.

107076 @ 돌레떡 말곤 다른 떡은 안헤수과?

107076 # 안 행갓주게. 돌레떡행 갓주. 당에갈 때. 돌레떡 이제들은 허지도 안허고. 간소햄젠. 젊은사람들.

107076 @ 돌레떡은 어떻 생긴거과?

107076 # 둥글랑허게시리게 ㄱ루 뽀사다그네 물 삭삭 게어그네, 영영 게어그네, 둥글랑 하게 멘들민 돌레떡이주.

107077 @ 아, 기과? 곳 혈 때마썬?

107077 # 곳혈 때도 그거.

107077 @ 곳혈 때도 돌레떡예?

107077 # 응.

107077 @ 다데는 뭐과? 다데떡도 알아지쿠과?

107077 # 건 몰라.

107078 @ 그다음에 볼목리에서만 특별하게 만드는 떡 같은 건 어수과?

107078 # 옛주게.

소와 고물

107079 @ 떡에 인절미하면 인절미 밖에 머 묻히는 거 잇잖아예? 멀 묻혀서 인절미 만들어수과?

107079 # 인절미 무시거 묻혀?

107079 @ 콩가루 묻히고 하잖아예. 여기선 뭐 묻혀나수과?

107079 # 콩가루도 묻히고게 풋도 묻히고게.

107080 @ 송편 같은 거 만들 때 아까 송편 만들고 할 때 속에다가 뭐 뉘나수과?

107080 # 속에게 그거게 꺾지안햐서. 사탕도 놓고, 깨도 놓는 사람 놓고. 보리콩을 잇어벧져. 보리콩 포랑한 거 잇지안햐여.

107080 @ 맞수다게.

107080 # 그거 만드는 사람이 잇어비영 꺾지못햐영.

107080 @ 맞수다. 보리콩 뉘가지고예. 인절미 같은 건 팔가루도 놓고, 팔 솥양 햐지예? 팔 솥양 그것도 허고. 그다음에 콩가루로도 하고 다른 건 어수과?

107080 # 콩고루 무시거게. 사탕 곁은 거 놓구젠 허민 놓고.

107080 @ 밖에, 밖에 인절미, 인절미 영 보면 칠하는 거.

107080 # 아 인절미 칠하는 거?

107080 @ 고물, 고물.

107080 # 그건 그거베끼 어실거라게. 칠하는 게 흰ㄱ루, 흰ㄱ루산지.

107080 @ 게메, 요즘 나오는 거예?

107080 # 갈근ㄱ루도 이시민 칠 할 거라. 갈근고루 알아져?

107080 @ 갈근마씨? 알아지쿠다게.

107080 # 고구마로 멘든. 그것도 칠하민 조추. चु출인절미예.

107081 @ 맞수다게. 우리가 떡 만들 때 뭐 부정타든 안햐덴 제사떡이나 장에 갈 때 떡 할 때 접근하지 못햐게 하는 그런 건 어서수과?

107081 # 떡 햐릴 때 어디 가지 못햐는 거?

107081 @ 아니.

107081 # 부정 타카부덴?

107081 @ 예.

107081 # 노곁 파그네게, 찍으로 노곁 파그네게 부정 하카부덴 게, 나그네 찾젠 하민 부정 하카부덴 올레 메는데게 그거 말인가?

107081 @ 예.

107081 # 저 미짱냥씩 돌양메고.

107081 @ 그걸 뉘렌 곁릅니까?

107081 # 술.

107081 @ 술?

107081 # 솔메영 들어가지 말렌하주. 영 메영. 나그네 쫓젠. 늬.

107081 @ 늬 못 오게예?

107081 # 응. 멘디 들어가지 말라 솔멘디 경고랏지게.

107081 @ 그건 이제 제사떡이나 그런 거 막할 때 아무나 못 오게 하는 그런 뜻 이파?

107081 # 제사 때에사게 무신 어떻허여게. 나그네나 심방 좃을 때나 그런 거 메 주기. 제사 할 때사 무시거 가고오고 사람들도 오고, 오라시민 떡도 먹으렌 주고. 솔멘 건 나그네 좃앙 이녁 정성할 때문에 사람 들어오지 말렌 허는 거주.

107081 @ 곳 같은 거 하젠하믄예?

107081 # 응. 곳이나 짚이나 나그네 좃으나. 요센 솔메는디도 벼랑 없나 만은. 가당 오당 헛주. 이녁 정성이렌 헤그네 호는디도 잇주게. 영장 하는 사람들 게 영장 빛이 뎡겨난 사람들 들어 오카부덴 부정 하카부덴.

107081 @ 그 나그네를 들인다라는 건 그 신방을 들인다는 말잇파.

107081 # 응.나그네.

8. 주생활

108001 @ 그 다음엔 혹시 옛날 초집 같은 거 지엇던 경험 이수과?

108001 # 응.

108001 @ 초집 지을 때 초집 말고 볼목리는 어떤 어떤 집들이 이서수과?

108001 # 초집 그전에 무시거 뭐 거의 다 초집이주. 우리 아버지도 목수라 나니까.

108001 @ 거른 초집 지을 때 기반 닦을 때부터 고라줍서.

108001 # 기반 닦을 때? 터 골라그네 저 나무 기둥 세워. 이렇게 잘라그네 한 세 사람하민 세 사람. 네 사람하민 네 사람 서로 손 잡게 시리 만들어그네. 이젠 소리허멍 박아지는 거라, 탄탄하게. 왜그러냐, 그것도 잇고, 옛날에는 땅지신이 잇다고 헤가지고, 그 지신을 이제 머하계끔 혼가지 방법이주게. 노래 부르멍, 땅 이제 그 팡팡 달귀달귀 하는 것이. 계난에 그 땅에 지신이 신이 그걸 우리가 이디 집을 지실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허는 방법이주.

108001 @ 계메, 놀를 때 말을 당귀당귀 하멍 헤수과?

108001 # 달귀달귀. 나가 우리 이제 생각하민 귀신이 아마 땅에 귀신이 잇단 그런 것일테주.

108001 @ 그냥 단순히 어~ 달귀

108001 # 어~ 달귀~ 이제 한사람이 이제 선소리 하민은 또 탕 치멍 해주게.

108001 @ 딱 한 곡조만 헤줍서.

108001 # 아, 게나네, 머가 한사람이 선창해나면 고치 따라하는 거주게.

108001 @ 계난 그건 어떻게나수과? 어허 달기를 헤봄서. 어떻 헤나신지

108001 # 선창으로 어허~ 달기~ 헤나면은, 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허 ~달기 하면서 같이 또 보면서 하고, 그것도 흥젠하면은 술을 먹어야 되여. 술 혼 잔씩 들 헤그네 힘이 나그네 소리도 나오곡.

108001 @ 그 나무는 어느 정도 굵은 거여수과?

108001 # 요정도 될거라.

108001 @ 한 세 사람 장정이 들를 만크예?

108001 # 응. 두 사람은 힘센 사람하고, 보통 세 사람. 계난 그건 막 머하민 막 기분좋앙들 여러 소리 크게 내영하민은, 땅을 튼튼하게 지을 소리를 지명 해주게. 계민 그디 신이 그딜 이추룩 헤그네 집을 지신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노래 부르고 한 모양이라.

108001 @ 그런다음에 마씨?

108001 # 그러난 다음엔 나무로 해가지고 아래 돌 받침 컷돌, 귀여귀여. 예를들어 이거 집이면은 요디도 돌 호나 놓고, 요디도 중간에도 호나 놓고. 요디도 놔그네, 네 바끼 다 돌아가멍 이제 기둥 세울디를 돌로 깎으는 거라 이. 경헤그네 그걸 이제 팡 문영 돌 우에 나무를 심는 저 기둥을 그디 허여.

108001 @ 기둥도 옛날엔 기둥이렌 고라수과? 다른 말 어수과?

108001 # 지둥이렌 헛지 지둥. 지둥 세워그네, 무신 저 구들 뒹여 여러 가지 테기 굵은 거, 테기는 뒹렌 허냐면 이런디 하면은 쥌쥌하게 나무 깨그네 여영 잇주게, 흑을 게어그네 이제 세면 개백하는 거라.

108001 @ 뭇로마씨?

108001 # 흑으로. 찰흑으로.

108001 @ 옛날엔 찰흑을 머렌고라수과?

108001 # 촌혁. 촌혁엔 헤. 그네 그걸 또 이, 막 멀리 가그네, 예를 들어 우리 보목리 동쪽에 가민 제제기오름 이서 이. 그디가 흑이 막 좋아 찰져. 이 짚 짚을 잘게 썰어그네 그걸 버무려그네 물에 막 불바. 경헤그네 이만씩 헤그네 덩어리 앓당 부리데기멍, 사람들이 동네 집을 지으젠 헤민은 이 동넛 어른들이 와그네 막 고치그 도와주주게. 경헤그네 서실하고. 기다음엔 머 헤지민은 흑질하는 날. 이 집 우에. 상마루 올릴 때민은 무슨 선소리를 올렸는디 거 잘몰라. 경헤그네 독도 올리고. 독 굵은 것도 올령.

108001 @ 계민 그땐 이미 기둥은 다 세워진 거.....

108001 # 응. 다 세워진 거.

108001 @ 서실 다 헛다는 건 이미 벽이 다 뒸다는 거.....

108001 # 응 벽이 다 몬.

108001 @ 계민 그 벽헛 땐 어떻게수과? 바닥은 어떻 헤심광.

108001 # 바닥 기자 흑으로 메왔주게.

108001 @ 그 굴목 지드는 것도 안헛마씨?

108001 # 굴목 지드는 거 돌만 영 놔여그네. 아, 계난 서실이여 머여 우에 문딱 다 헤난 다음에, 그 다 헤난 다음에 안에 흑집을 허니깐, 메~칠을 안에 불을 때는 거라. 흑을 말릴라고. 바닥에는 츄츄츄츄 살명 다 만들지 안헤도 한쪽 구석에, 예를 들어 짚 끝은 거 폭싹이 깔아그네, 기자 거기서 좀 자는거라. 명석도 끌고. 경헤그네 그것이 당년에 흥번에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흥 몇 년 두고두고 집은 멘들주게.

108001 @ 계민 그 불을 땔 땐 이제 부엌에서 아궁이도 이서야 될 거 아니파예? 그른 불을 때면 그 불기운은 어디 강 이서수과?

108001 # 그 아궁이 어시 옛날엔. 돌 영 세 개 놓고 이디 놔그네 솔에 노민은 불치 여트레 내치고 아궁이는 내중에서. 그 불 방에 들어오게 시리 만드는 건 요 근래사. 우리가 알리로는 막 우리 역은 후에 그거 만등 거. 막 옛날에 우리 족을 때는 돌 영~ 놔그네 부엌이렌 헤도 돌 영 나정, 숯 영 놓게 시리 헤그네, 숯 땔사 지지 않게 시리 고치고치 헤여. 밥허는 여기는 켈 큰 솔은 두 말 띠기렌 허여. 크게 콩 솔을 때나 크게 헐 때 하고. 다음은 밥숯, 국숯, 반찬은 냄비, 아세.

108001 @ 계민 그 숯 불 때면 그 불기운들은?

108001 # 아무도 어서. 어시. 숯 우에.

108001 @ 계민 집안에 연기 가득 찰 거 아니파?

108001 # 응. 가득 찰 거. 문 더꺼. 계난 숯을 어떻게 아찌냐 하면, 요런 구석에 요렇게 삼각형 하민은 두에 불습어나면 불씨를 두터레 밀리는거라. 불씨를 이동 모양 나도 밧디 가그네 농사 그거에 씨 버무령 밧디 가그네 씨뿌려그네 그거로 허고. 불씨로만.

108001 @ 저는 어떻 생각하시냐면예? 이제 그 불 때기 집에 몰린덴 허난 불 때면 그 불기운이 막 여기 온돌에 들어강 뜻뜻 헐 줄 알아신디.

108001 # 아니. 그건 내중에.

108001 @ 아 나중에파.

108001 # 옛날에 어느 중에 뜻뜻하게 허여.

108001 @ 계난 어떻 추웁 살아신고예?

108001 # 계난 그렇게 춥게 살아서. 계난에 방에 자는디도 저 조쪽은 저 까다로와 파삭파삭 까끌허고. 켈 폭싹폭싹한 것이 보리썩. 그다음은 벼. 나룩썩. 그거는 겐디 그것도 흥뽀 영영 저 두드려 나민은 폭삭하주게. 계민 그걸 아래 풀아. 그거 우에 이불 풀아 ,그 우에서 자는 거라. 거난 사람이 모기랑 ㄱ치 자는 거라.

108001 @ 그면은 그 지붕은 계민, 지붕은 어떻 이뤄수과? 이제 벽이랑 다 할 거 아니파 예? 하면 위에건 어떻헤수과?

108001 # 서리렌 헤그네 서리 걸쳐그네, 그 우에 또 나무로 헤그네 문 엮으는거라. 흑 새벽하민은 떨어지지 안허게 시리. 계영 고망이 요만썩 헤그네 세지 안케시리 이어. 계난 사람들이 머 좀 엮으젠하민 이 쪽으로 새끼 꼬아그네 옛날에 알기쉽게 말하민은 가마니 짜듯.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서리 올린덴 헤면은 흑질 헌텐허민,

이 동넛어른들이 예를 들어, 동네 어른들이 반쯤은 와그네 다 도와줘. 계난에 흑질 허젠허민은 여기를 올리젠 허민은 옛날에 저 동동네가민은 저 우물. 사람들이 한 이삼십 명들 다 와그네 물들 저당 허벽으로 허당 물들 저당 비와그네, 쉼들 문 끌어다그네 흑을 뽑는 거라. 그추룩헤그네 뉘쓰멍 경해그네 볼르극 흑질허극. 계난 집 허나 짓젠하민은 사람이 며 참 많이 들주. 아주 큰 대사일 모양으로.

108001 @ 계난 그 내창에 우물이 이섯잖아예?

108001 # 정술래.

108001 @ 정술래가 무신 하천 전기공사 하멍 막아부러텐 하멍예? 정술래 막을 때는 집집마다 수도가 생긴 이후과?

108001 # 응.

108001 @ 겐디 정술내는 솟아나는 물이여수과?

108001 # 응 솟아나는 물. 언제라도 가뭄 타는 것이 아니라.

108001 @ 겐디 무사 막아부러신가예?

108001 # 아 수도 나고 하난게 그 내치. 그전에는 내치기 전에는 이 둥그렇게 헤가지고, 내쳐도 그 내치는 물이 그 속들에 들어가게 시리 크게 헤났는 디. 내가 커가고 나중에 수도도 차츰차츰 하난 공동수도들 머들 하난 그걸 메와부러주게. 계난에 우에서 지하수 하게 헤가니까 그 물줄기가 다 죽어부러주. 그 전에는 이 불목리 다리 잇는 조금 내려가민은 그 꼬지도, 그 나무 밑까지도 생수가 푹푹 솟아났주게. 아마 불목리에서는 그 물 100프로 먹엇주게. 그디 밖이 어시난. 나도 어릴 때주만은 요 손지만도 죽을 때 대반이 요만이 한 거, 병보다 쯤큰 큰 거, 영~ 행 저그네, 어멍아방네 밧디 가불민 물져오라 하민 물들 제다그네 나두고.

108001 @ 계민 그 집에 벽을 쌓을 때라든가 우에 지붕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정술내 강 사람들이 다 물을 다 주는 거 아니파예? 지러당 오면, 그면은 지붕에다가 멘 처음에는 서리 걸치고 서실 허고.

108001 # 서실허고 흑떨어지지 안허게 시리. 그다음은 흑질허고. 그다음은 저 묵은 집 틀어나민 기신세라는 것이 이서 기신세로 처음에 덮어.

108001 @ 아 묵은 거 마씨? 무사마씨. 새걸 안 행?

108001 # 아 새거 안 허여. 흑 붙으게끔.

108001 @ 아 흑 붙으라고.

108001 # 딱 달라 붙으렌. 경해야 흑 떨어지지도 안 허고 거기 딱 달라 붙어그네.

108001 @ 그다음엔 마씨.

108001 # 그다음엔 세. 세로 이는 거. 계난 그 흑질허는 날은 사람이 며 최하 아멩헤도 100명이상이주.

108001 @ 그날 호루에 다 헤버리는 거구나예?

108001 # 응. 흑질 허는 날 그 며 헤그네 빨리 헤그네 더꺼불지 았으면 비오민 문 또 헤아지주게. 비맞아 불민 안뉘여.

108001 @ 계민 기신세 노면 기신세 위에 바로 새 걸 해봅니까?
 108001 # 응응. 아니 계난 기신세 우에 다른 잡풀들 이시면은 그거 또 나도 댜고. 계난 쉼 우에가 세. 비막는 거.
 108001 @ 집 다 지시민 다 지섯땀 머 잔치라도 경해나수과?
 108001 # 허주게 이사 허는 날. 이사 허는 날은 머 잔치가 크게 허주.
 108001 @ 그러면은예 그 집을 짓잖아예? 짓게되면 그집만 지으는게아니라.
 108003 # 안팓거레.
 108003 @ 안팓거레 짓잖아예. 안커리도 밖거리도 그런식으로 짓는 거 아니파예. 그다음에 목커리라는 것도 이수과?
 108003 # 불목리는 목커리라는 것은 잘 어서서.
 108003 @ 집을 지스면 문들은 만들거잖아예. 문들 만드는 들어오는 물은 영 열 앓당 단잖아예. 그런 문 이름은 뭐렌 고라수과?
 108003 # 대문.
 108003 @ 그다음엔.
 108003 # 셋문. 중간문. 대문은 쉼 큰문이고 셋문은 이추룩 짝갈락한 대문 옆에.
 108003 @ 대문 옆에 주로 어딜 들어가는 거파? 셋문으로.
 108003 # 셋문? 짓도 걸로 들어가는디 보통 그 문은 저 이 대문은 예를들어그네 저 비바람이나 영혈땀 대문 안 열고 거 저 셋문으로 짝갈락한 거 글로 해그네 사람 왔다갔다 헤여.
 108003 @ 옛날에 불몰리 부엌은 머렌 ㄱ라수과?
 108003 # 정제.
 108003 @ 정제문도 따로 이서수과?
 108003 # 응 따로. 정제가는 문이 따로 잇고. 상방 문이 따로 잇고.
 108003 @ 상방가는 문이 대문이파?
 108003 # 응.
 108003 @ 그다음 문은 머렌 ㄱ라수과? 창문비슷하게 방마다 문이 이섯잖아예. 그건 무신 문이렌 헤수과?
 108003 # 그것도게 문은 문이주.
 108003 @ 이제 집을 지을 때 그게 이섯기도 없엇을수도 잇엇는데 신발 벗어가 지고 바로 대문을 연계아니라 대문 열기 전에 머 이서나지 안헤수과?
 108003 # 아니 그 무시거 마리 영~ 흐거 마리아래 신 놓앗주게. 그때사 신이 머 이서게 초신도 신엇당. 초신 조리 사망 신고, 초신 사망 신고.
 108003 @ 조리도 신어나수과?
 108003 # 응 많이 신영. 우리 학교텡길 때, 비오는 날은 조리 흔 삼앗다가 날 좋은날 신고게.
 108003 @ 조리는 게문 멀로 만들어나수과?
 108003 # 짝.

108003 @ 아. 조리도 짝으로 만들어수과?
108003 # 저 옛날 초신 삼는 식으로 초신은 계도 고급이라.
108003 @ 초신도 신어신디 조리도 짝으로 만들언예?
108003 # 이 조리는, 짚신 다른 거는 그 무시거 그거는 신사라. 나막신은 나무로 만든 거.
108003 @ 나막신도 신어나수과?
108003 # 우린 신어나지 안 해도 하영들 영감들은 신어났주..
108003 @ 혹시 가죽 같은 걸로는 신 안 만들어 신어수과?
108003 # 가죽은 안하고 생고문신, 내중에 신 처음 날 때 생 고무신, 생고무혜 그네 강 신 만들앙.
108003 @ 생고무로 행 직접 신을 만들언마씨?
108003 # 응. 또 무신 모양도 별로주게. 생고무로혜그네 신 멘들야그네 멘드는데, 그것도 볼목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 다리에서 어디서 만든디, 하민은 주문햇당 한 달이민 한 달, 보름이민 보름 그사이에 주문해서 받았주.
108003 @ 계민 밭에서 일할 때 뭐 신영 혜수과?
108003 # 저 짚신게. 초신.
108003 @ 바당에 갈 때도마씨?
108003 # 바당에도 그 당시엔 초신.
108004 @ 삼간집이렌 한 것도 이수과?
108004 # 응 습칸, 스칸집 잇주게
108004 @ 보통
108004 # 보통 삼칸집인디 스칸집은 막커.
108004 @ 계민 삼칸집 짓젠하면 처음에 다 바닥 하잖아예. 그 구분을 어떻게 두어나수과?
108004 # 우리 이 집이 삼칸집이렌 허주게. 여디 영~ 행 나. 상방 영~ 행 호나, 저 방 두 개 방 영~ 행 하나. 것이 삼칸집.
108004 @ 삼칸집은 방이 잇고 마루 잇고 부엌 잇고.
108004 # 저 부엌 들어가는 문 잇고, 마루 들어가는 문 잇고, 또 이쪽에 방, 구들 들어가는 문 잇고.
108004 @ 계민 이 삼칸집은 집을 다 지서난 다음에 칸 놓아수과?
108004 # 아니 지슬 때 만들주게
108004 @ 아 지슬 때 정 만듭니까?
108004 # 건축을 딱 나무를 만들엉.
108004 @ 삼칸집에 중간 막는 건 나무로 혜수과?
108004 # 다 나무주.
108004 @ 밖에만 그 흑이랑. 그 출흑?
108004 # 촌흑.

108004 @ 촌후 하다가.

108004 # 그거 꿰어그네 그거 한 덩어리 돌아가명은 한 덩어리 흑 딱 낳, 그다음은 돌멩잇돌 앓당 딱 놓고. 경헤그네 차츰차츰 쌓아가는 거주게 이제. 쪽 돌아가명 집 돌아가명 계민은 거기 허민은 집이 막 또사. 흑으로만 하니까. 이제는 공구리로만 해주만은 옛날에는 나무로 헤그네 문 엮어그네 흑질해난, 또 바깥들엔 흑 피어그네, 이젠 흑 한 덩어리 놓고 또 돌 한 덩어리 놓고, 영~ 헤그네, 그걸 쪽~ 싸는 거라. 돌아가명. 문만 냉겨동. 사람덴기는 문만 냉겨그네 돌아가명 다 헤블민은, 겨울에는 돛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우에도 다 흑으로 헤부니까. 게고 문도 창호지. 옛날에 하면 토지 그런 걸로만 헤그네. 유리란 건 어서. 유리란 건 사람보젠 요만히만 해주게 사람 왔다갓닥 하는 거 보젠..

108004 @ 그건 머렌 고라수과?

108004 # 그것이 무시겨렌. 이름이 어서.

108005 @ 아까 집 짓젠하면 맨 처음에 흑 두들기고 막 헛잖아예? 그럼 주춧돌이란 거는 어디다 쓰는거과?

108005 # 주춧돌? 기둥. 기둥아래 돌.

108005 @ 그걸 여기는 뭐렌 돌 이름을 뭐렌 고라수과?

108005 # 주춧돌.

108005 @ 주춧돌을 다른 말론 또 안헤판마씨?

108005 # 컷돌이렌 헤시냐. 컷돌.

108005 @ 컷돌, 예~. 영~ 돌아가명 놓는 거예?

108005 # 응. 귀역마다 놓는 돌이니까. 계난 웨 컷돌이렌 허냐하면. 나무 기둥노민은 그대로 흑아래로 나무 놓아블민 빨리 썩어블주게. 그 돌 우에 기둥을 허민은 비오나 습기차지 앓으니깐 빨리 썩지 앓는 거라. 기둥은 다 깃돌에 놓는 거라.

108005 @ 그때 기둥은 다 무신 나무로 써수과?

108005 # 보통 소나무일거라 이디. 소나무가 많잇섯주. 옛날에는 참나무도 많이 이서서.

108005 @ 참나무는 뭐렌 고라수과?

108005 # 나무 종류들이 많아노난 잘 몰라.

108005 @ 게도 기둥을 무신나무로 헤사신지.

108005 # 아이고 그때는 귀둥 곁은 거 세울디는 소나무 곁은 건 막 옛날에는 소낭 곁은 건 안

써나서. 신우긴 이제사 난거고, 산에 강 헤오는 거고. 그때는 한라산에 나무가 좋아노나네. 문 한라산에 강 나무들 베어그네 헤나난.

108005 @ 보는 머과? 집 지슬 때.

108005 # 보가 무시겨라.

108005 @ 주춧돌 잇고, 기둥이 잇고, 보가 잇고, 도리가 잇덴 하는디예.

108005 # 포? 포.

108005 @ 포가 머꽂?

108005 # 포, 이런 거는 집 요사이 요사이에 우에 영 뭐 하는 거. 이 우트레 또 기둥이, 나무든 무시거들 뭐 막 허주게. 포는 켈 단단하게 들어가는 게 포라. 예를 들민은 마루로 이 사이에 또 이렇게 켈 가운데 마룻방에서 포가 들어가는 거라.

108005 @ 거면은 이디하고 이디하고 연결시키는 거마씨?

108005 # 응.

108005 @ 그럼 그 포 위에다가 아까 작은낭으로 머하는거?

108005 # 응. 계난 포엔 한 거는 그 집이서 켈 중요한 머. 집 벨라지지 안헤게 시리 켈 단단하게 하는 것이.

108005 @ 그것도 낭으로 헤수과?

108005 # 응. 그 나무.

108005 @ 혹시 그 낭이 뭐였는지 기억 안나쿠과?

108005 # 나무 이름은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이서부난.

108005 @ 도리는 머꽂? 도리.

108005 # 그건 목수가 잘 아는다. 아 도리렌 헨 거 어디 머하겐 알아는 낫지만 은.

108005 @ 서까래는 뭘로 어떻헤수과?

108005 # 우리 아방 살아이서시민 목수나나네 알아지켜만은, 우린 어릴때라부난 알아지크라. 저기 이제 이 서쪽에 잇는 집이 해방 막 되는 해에 집을 지은 집인데, 집을 트더불어네마는 막 해방되던 해에 우리 집을 지어넛는다. 서까래.

108005 @ 서까래가 머냐하믄예. 집을 짓잖아예. 게믄 벽이잖아예, 지붕에서 벽 밖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 잇잖아예.

108005 # 서리. 서리게.

108005 @ 그 서리는 아까 준준한 나무로 헛덴 한거꽂?

108005 # 아니게 이만씩 슬진 거. 서실하는 것이 준 거.

108005 @ 아 서실.

108005 # 서실이 그 잔잔한 거 깨어그네 흑 세지 않게 시리 가마니 짜듯 엮경 오는 거라.

108005 @ 계난 안에 놓는 건 포렌하며 밖으로 가는 건 서리.

108005 # 응응 서리. 준 걸로 엮은 것이 서실.

108005 @ 계난 포위에 서리위에 서실을 논거라예.

108005 # 서실다음 호즐. 켈 중요한 것이 포라 그 우에 서리 걸치고 그 우에 서 실허곡, 흑 올라가고, 이제 기신세 올라가고, 세가 올라가고 하는거라.

108006 @ 아까 그 외에 산자, 인방, 반자들이 그거 엮구나예. 그다음에는 삼간 하게 되면 큰방하나, 작은방 하나, 작은방에 부엌이 붙어잇고예 그다음에 마루 잇고 예.

108006 # 계난 삼칸방이렌 헨거는 구들 하나 안팎. 안팎이렌 헨거는 곡식들 놓

는다. 그다음은 마루, 그다음은 부엌, 그다음은 죽은방.

108006 @ 부엌 정제. 그다음엔 시렁은 큰방에나 작은방에나 다 시렁잇고예.

108006 # 응. 이불 게어놓는다. 저기.

108006 @ 아 시렁 잇구나예. 벽장도 따로 만들어놔수과?

108006 # 벽장? 벽장 별로. 거이가 시렁.

108006 @ 퀘는 시집을 때 헤고예.

108006 # 응 퀘헤그네 시렁에 앓다놓고.

108006 @ 지금도 이수과?

108006 # 응 여기 퀘이서. 우리 집사람 시집을 때 헤온 거.

108006 @ 시집을 때 헤온 이불은 어수과?

108006 # 이불은 엇고. 켈 퀘 흐나 이서.

108006 @ 옛날에 이불은 따로 시렁에 놔수과?

108006 # 응. 시렁. 시렁에도 켈 고급으로 허는디는 무시거 형겼 커튼 멘들아그네 영 막 막으는 거.

108006 @ 이 집은 계난 지은 지 몇 년 돼수과?

108006 # 이거? 74년 되언.

108007 @ 이집 지을 땐 계민 그 머 안놔수과? 온돌?

108007 # 무사게 이걸 제라하게 했주. 이 시렁 안에가 부엌이라난.

108007 @ 아 계민 불 때민 이디가. 계민 요딘 머렌 고라수과? 뜻뜻헌디를.

108007 # 안이 뜻뜻헌디가 안목. 불 들어오는 디가 멘도롱 한디가. 이 안틀에 안지라 허주게.

108007 @ 아랫목, 윗목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불목리에서는 머렌 고라수과?

108007 # 그런 거 어시 기자. 멘도롱 헌디 여디 앓으라 안트레 아지라 헛지게.

108008 @ 그 마루를 만들 때 옛날엔 짚만 깔앙 살앗 땐 허고, 이제 따뜻하게 시렁 온돌헤그네 할 때는 이제 그 마루는 불이 안 들어갓잖아예?

108008 # 안 들어간.

108008 @ 마루는 주로 뭘로 만들어수과?

108008 # 아 그때도 나무 널판인디, 그 나무 저 이 톱으로 여러사람, 널착이렌 허주게. 널착을 나무를 쪼개그네 판자를 만들젠 하민은, 거 마루 흐 마루 놓젠하민은 한 몇 년 이서도 그 마루를 못놔.

108008 @ 계민 마루 놓기 전에는 어떻 사용헤수과?

108008 # 거 기자 짝 놔. 기자 자는 거라 갓다 왔다. 봄 오민 그거 걸어그네 다 른 거 깔고. 일 년에 한 번씩.

108008 @ 나룩직으로예.

108008 # 아니 나룩직 말고 보리직

108008 @ 부섭이란 말은 머짜?

108008 # 부섭은 불주는 거게. 정제나. 요만히 돌 놔그네 부엌에 정제에 요만이

한 돌로 영~ 헤그네 가리는 거라. 거기서 나무헤그네 불떼멍 불주는 거주게. 그것이 부섭. 옛날에는 화로 곶은 것도 막 내중에 나고. 그거 나기 전에는 부섭이렌 헤 거주게. 낭 떼그네 불주멍헤그네. 보통 부섭에서 불 살르민 이 불 막 나무 떼나그네 망울지잖아. 예 그민 그기 멘돌양 한디를 떠나지 안헤그네 그 옆엘 돌아가멍 즘을 자는 거라. 옛날엔 미녕으로 만든 이불을 걸쳐그네 아이들이영 식구들 많으민 돌아가멍 다 거주게. 요 구석에 울로자곡 또 울로 구석에 울로 자곡.

108009 @ 혹시 안팡이 곶팡이짜?

108009 # 응.

108009 @ 아 계민 여기서는 안팡이렌 헛구나예. 그럼 거기에는 안팡에는 어떤 것들을 놔수과?

108009 # 거기, 쌀. 보리도 놓고 보통 곡식만 놓는 거. 거 문 장만헤그네.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108009 @ 안칠성이 뭐과?

108009 # 칠성? 거 그 위하는 건디, 신이주게 신 모시는다.

108009 @ 아 그걸 안팡에다 놔나수과?

108009 # 응. 쓸 우에 켈 큰 항에. 그건 비우지안헤여. 만약 집이 제사하게 돼민 은 그디 따로 항 그 우에 밥앗당 올려 밥이영 떡이여.

108009 @ 아 그거 다 올리는 그걸 안칠성이렌 헤수과?

108009 # 응. 칠성항. 집 주인 안팡주인.

108009 @ 그 안팡주인을 칠성이렌 헤수과?

108009 # 응. 칠성. 그 문전은 대문고랑 문전. 문전제 지내는 거. 칠성은 안팡에 지키는 거. 그 안에 거는 부인들이 헤여. 남자들은 안가여.

108009 @ 계민 그디 건 누게가 먹읍니까?

108009 # 집안 식구들. 식구 웨에는 주도 안허고.

108009 @ 아 경행 항아에 쓸담양 그 우에 떡이영 머영 놔가지고 예. 경행 그걸 맨날 헤수과?

108009 # 아니 명질혈 때. 제사지낼 때. 지금도 혈거라.

108009 @ 계민 창곰은 머과?

108009 # 창곰은 몰르켜.

108009 @ 여기는 칠성항예? 항아리 난예.

108009 # 뭇 집도 불목리는 그런 거 잘 엇는다. 두지. 그거 쓸 하영 들어강 나 중엔 도라무짱 헤와그네.

108010 @ 옛날에 정제엔 뭇 뭇 이서수과?

108010 # 물항, 살레, 솟덕. 이디도 솟 세 개 아자낫주게.

108010 @ 찻방.

108010 # 찻방은 그 부엌 옆에 별로도. 찻방 잇는 디가 드물어나서.

108010 @ 식사할 때 계민 어디서 헤나수과?

108010 # 식사할 때 보통 부엌에서.
 108010 @ 정제에서예. 계민 식구들다예.
 108010 # 응.
 108010 @ 계민 정제는 다 얹으게 돼나수과?
 108010 # 응.
 108010 @ 불때가지고 하민 바닥은 뭐라나신디마씨?
 108010 # 땅.
 108010 @ 막 눌러진 흑예.
 108010 # 응.
 108010 @ 그냥 얹앙 먹는 거?
 108010 # 응. 무시거 낄앙. 짝 곱은 거. 아 이녁만씩 안거려그네, 이만한 양푼이 예. 켄디 부인들은이 방석. 세 줄꼬아그네 초가집 이어나민은 줄 잇자녀, 그거 잘라논 거 그걸로 헤그네 방석을 만드는 거라. 계민 부인들은 그걸 풀앙 얹져그네 ㄹ치 밥 먹어. 남자들은 안에 얹고.
 108010 @ 이걸 줄방석이렌 고라나수과?
 108010 # 응 줄방석. 짝으로 묶으는 줄 놔그네. 집 일젠하민 짝 붓뜰어 메는 거. 그거 꼬깁이 잘라난 걸로 만드는 거. 나 그건 잘 만들어 진다게.
 108011 @ 그 다음엔 문을 만들 때는 문설주가 이서낫잖아예. 문설주. 문얼굴, 문지방.
 108011 # 응 문지방 그 이추룩 지우 하는 걸로. 문지방.
 108011 @ 그걸 문지방이렌 헤수과?
 108011 # 응 문지방.
 108011 @ 그다음엔 저기 옛날에 밖에 마루가 어섯넌 헤도.....
 108011 # 세멘으로 헛주게. 그자 땅.
 108011 @ 그자 땅에 헤수과? 그자 땅에다가 초신 벗어그네 올라와수과?
 108011 # 응 그자 올라와.
 108011 @ 떠 큰 돌이나 그런 건 어서수과?
 108011 # 아 무시거 놀디도 이섯주게. 돌도. 팡.
 108011 @ 그 팡이. 돌 팡이 이름 어수과?
 108011 # 그 이름 몰라. 팡만이. 팡 뽕앙 올라오라. 경헛주.
 108011 @ 혹시 디딜팡이라는 건?
 108011 # 아 그건 변소에 화장실. 도세기 질르는데 옛날에 똥싸레 강 볼르는 것이 두들팡.
 108012 @ 건또 나중에 질문할게예. 대문 이섯고 소문 이섯고.
 108012 # 췌문.
 108012 @ 지계문은 머짜?
 108012 # 지계문도 이서낫주게. 어느편고라 지계문이렌 헤신고. 정제로 한밧드

레 가는 것이 지갯문이라.

108012 @ 삼방이 마루렌헛지예?

108012 # 응 마루고라 산방. 지게문이 그거라 정제강 삼방들에 가는다.

108012 @ 여긴머 띄창문이니 지게문이니 상기둥 밑, 이런말 이신디에 띄창문, 이런 말 안들어봐수과?

108012 # 응.

108012 @ 그담엔 창 바를 땀 아까 흑질이렌 हे수과?

108012 # 응. 흑질.

108012 @ 창에 바르는 창호지를 흑질?

108012 # 창호지 불르는 거?

108012 @ 종이이름.

108012 # 그건 창호지. 토지.

108012 @ 아 토지.

108012 # 창호지는 고급이고. 토지.

108013 @ 호령창이렌 한건 무슨 창이과? 서귀포 지역에서 췌텐하는데.

108013 # 호령창? 몰라.

108014 @ 굴목에 대해서 말해주십서.

108014 # 그건 방 때는 거 굴목.

108014 @ 계난 방 때는 건데 굴목은 부엌이 아니라.

108014 # 굴목은 부엌에서 때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 불 들어오게끔 요렇게, 영~ 돌아그네 바깥에서 불 때어. 안터레 굴목 짓주게. 보리고시락으로, 낭부시레기 굽은 거, 부엌에서 때지 못헛 거, 막 부스레기들 그런 걸로게 소똥, 몰똥 주서당 몰리와그네 그런 걸로 이제 줄로 밀르는 거라. 계민 바깥에서 불 부치민은 츄츄츄츄. 불그네 굴목짓는 거.

108014 @ 굴목짓는 걸 불그네렌 हे수과?

108014 # 응. 문, 타나민 그걸 막 굽영 동기주게, 꺼내영 문 꺼내비사 차기에 또.

108014 @ 당그네 마씨?

108014 # 날레 알아져? 곡식 너는 것 ㄱ라 날레. 멍석에 널어그네 저 머 돌아뎡 기멍 저서. 곡식 너는 것 고랑 날레렌 행, 날레 널라.

108015 @ 아. 흑시 풍채라는 말 들어봐수과?

108015 # 응.

108015 @ 풍채는 뭐파?

108015 # 예를 들어그네 이디 비를 많이 들여껴나면은, 별도로 이젠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 멘드랑, 이렇게 비를 많이 오나 눈이 많이 오나 허면은, 이걸 새로 또 멘들어그네 비가 이래 들어티지 못하게끔 작대기로 바쳐다그네, 날 좋을 때는 작대기로 갖당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비와그넹 머헛 땀 그거 치와도그네, 이젠

그래 치와불고. 이래 문 주창들에 딱 붙아 불주게. 게민 비가 와도 글로 이래 비 들
어오지 안헤그네 글로 맞으멍.....

108015 @ 그걸 머렌 헤난마씨.

108015 # 분채.

108015 @ 풍채? 분채?

108015 # 확실한건 모르고 분채 풍채 헤난. 풍채 명심하라, 허주게. 얄은 집
이. 막 알아 불민은 키 큰사람은 텅기멍 막 머리 뚜드려 불고, 게난 들어갈 땐 풍채
명심행 들어가라게, 영하주게.

108016 @ 물팡은 뭐파?

108016 # 허벅 부리는 디. 물 질어나면 허벅 그디 놓고, 허벅들 노는다. 두들팡
이여, 물팡이여.

108016 @ 두들팡이 머과?

108016 # 두들팡게 아까 변소 똥싸는디게. 돛통.

108016 @ 불목리도 돛통이렌 헤수과?

108016 # 응. 돛통

108016 @ 돛통에 영 두게 놔그네 그게 두들팡이파?

108016 # 오게 그게 두들팡.

108017 @ 그다음엔 올렌데예, 상품명 올레도 잇잖아예. 여긴 이디 올레도 이신
디. 근디 올레도 이렇게 요렇게 데와진데 이신데 무사 경헤수과?

108017 # 그거는 게 녀의 밧 이서노니까 즈만하게, 길게 그 밧 옆에, 이디 옆
에 안에와그네, 집짓젠하민은 그디 옆이, 밧디 임자안티 밧 줌만 풀아주렌 헤그네
즈끔씩 헤그네.

108017 @ 아, 경헛구나예.

108017 # 이녀 밧디 살젠 헤민은 게, 이젠 과수원에 가젠헤민 이녀 밧디 들어
가젠 하민 길 팔아줘야 들어가니까. 이런식으로.

108017 @ 근데 옛날에 무조건 집을 짓게되면 길가에 안지어가지고 흐김 들어강
지엇잖아예?

108017 # 그건 조용허게. 옛날에는 조용한데가 제일. 겐디이 옛날에는 이 큰 길
가에는 이 집을 짓는 게 원하지 안 헤낫주게.

108017 @ 게, 무사 경헤신고예?

108017 # 시끄럽다고 도둑도 잘 들주게.

108017 @ 어떤 사람들은 도둑 들지말게, 이렇게 하민은 집안이 잘 안 보이잖아
예. 골목으로 와버리면 대문대신에 올레를 영 꼬부라지게 헛덴 말도 잇고행예. 그래
서 옛날 어른들은 어떤 생각으로 헤신고 헤가지고예.

108017 # 옛날에는 이, 집을 짓젠 하민은 무엇보다도 이 터. 집 방향. 터를 좋은
산 앓젠 하민은 터보래 돌아다니주게. 그런식으로 집을 지어낫주게. 근데 옛날에는
여디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네 살던집인디. 터가 좋덴 헤그네, 집을 지으면 산자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집 자리가 좋다 행 그걸 찾앙 들어가는 거라. 계난 집 자리 아끼는 것도 요즘은 큰 대도로 옆에가 땅값도 잘 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니여. 계난 막 들어가고 하는 거주게.

108017 @ 자리를 보면 그 자리까지 들어가젠 하민 골목이 막 죽았구나예. 늬의 땅 사오젠 하민예.

108017 # 예를 들영 골목길 안에도 집 자리가 좋으난 차 다 왕, 이디 문 집들 좇아왕 집들 지은 거라. 계난 이 노인당 옆에 옛날에 어린아이들 죽으민 무덤이 많이 이서. 계난 거긴 집을 짓지 안헤여. 집자리가 안 좋으난. 추잡하덴 헤그네.

108018 @ 그 어떤 집 같은 경우엔 문간채가 잇잖아예. 문간채인가. 이문간채인가.

108019 # 이문간.

108019 @ 그다음에는예 가리터는 뭐짜? 가리 틈 혹은 숨바꼭질이렌 하는 거.

108019 # 숨바꼭질사 곱을락 하는 거?

108019 @ 계난 곱을락하는 건데 여기서 그건 안담수다 마는.

108019 # 그건 잘모르고.

108019 @ 여기도 돼지 우리 돛통 이섯잖아예. 돛통은 어떤 구조로 들어잇는 것들은 뭐가 들어이서나수과?

108019 # 돛도구리. 도새기, 도새기 집.

108019 @ 그걸 머렌 고라나수과? 도새기 누웠자는 집을.

108019 # 도새기집? 돛통집. 돛통집 잘허라 헤그네.

108019 @ 돛통은 돛도구리고예. 돛도구리짜, 돛도고리짜?

108019 # 돛도구리. 돛도구리.

108019 @ 돛도굴이에 먹던 음식이나 이런 거 쏘아주잖아예. 그걸 우린 뭐 준덴 헤나수과?

108019 # 도새기 것 주라 헛주게.

108019 @ 혹시 그 돛통 같은 경우에 돛통을 짓게되면 방향이라든가, 부정타지 말렌 헤그네 뭐 뛰어 넘어라 라든가. 돛통 뛰어넘기 같은 거 이서수과?

108019 # 아니 그런 건 엇고. 하튼 돛통 방향이 막 가려그네 도새기 지키렌 허주게. 아무디나 짓는 게 아니라.

108019 @ 보통 어느 쪽에 지서나수과?

108019 # 집 뒤쪽으론 절대 못가 또 바로 앞이도 안돼고, 보통 보민은 서쪽도 잘 안가고, 서쪽이나 동쪽이나 방향 잘 방 길르지. 것도 아무나 방향이 경헤지 안헤여. 이것이 집이 저레 돌아왔으나네, 돌아왔은 위쪽으론 안가. 왼쪽으로 가고. 우로도 안가고 직통으로도 안가고.

108019 @ 무사 경헤신고예?

108019 # 것도 몰르주. 거도 계난 집에 방향에 따라 가지고 아마 머가 잘 확실한 건 모르주 만은 집이 위치가 그디 앓으민 안좋은 그거니깐. 겐디, 그 돛통을 만

들 때 지관, 지관이 와그네 문 ㄹ라주주게. 돛통이랑 방향은 어느 쪽에 영 어디강 만들라, 그디가민 안 좋다. 무시거허주게. 확실히 못하민. 옛날에 저 무시거 점지레, 점지레 가그네, 우리 이만이만하는디 돛통을 어느 방향으로 아즈카예? 하민, 점쟁이들이 방향을 딱 고라줘. 만약 우리 몸대로 헤영 탈나민은 아이고 우리 돛통 허민. 점지레 가민은 돛통 어디 지섯구나예. 허민은 예. 허민은, 아이고 그디 쌀방이여, 무시거여, 경 곳주게. 경행, 거디 지스민 어떻허고, 사람이 빨리 죽고, 동티나고 하니깐 방향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렌허명 고라주주게.

108019 @ 가지답이 뭐짜??

108019 # 아 가짓땀? 췌 안들게 시리.

108019 @ 거든, 돛통 옆에다가 가지답을 쌓아수과?

108019 # 아니. 그거는 저 도새기. 사나운 돼지들은 돌 다왕 내불민 막 입으로 클어도그네 도망가불거주게게. 계난 입으로 막 찢러볼게시리 가지낭드레강 나무들 박아그네 돌담 쌓앙, 그거 밖깎드레 또 멘들아그네 그 가시를 싸는 거라 도망가지 못하게 시리.

108019 @ 그 가시는 어떤 가지낭 이름은 뭐여수과?

108019 # 저 컷가지낭.

108019 @ 컷가지낭이 꾸지뽕인가?

108019 # 몰라.

108019 @ 혹시 빨리가 노랑 거?

108019 # 어 맞아. 그것이 이제는 그거 어시난 문 약으로 풀아부니깐 이제는 그냥은 구하젠 하민은 몇 십만 원 쥐도 없어.

108019 @ 아 돛통 옆에는 컷가지낭 심어나수과?

108019 # 응 하낫주 큰냥들이. 바당에 가그네 ㄹ메기 잡아그네 그 컷가지낭 컷가지 꺾어나그네, ㄹ메기 먹고. 이제는 그 나무가 힘들어.

108019 @ 그 돛통에다가 놓는 돌 이름이 두들팡?

108019 # 응 두들팡. 쭈~ 긴 것들.

108021 @ 그다음에는 그 누가 와가면 지금 돛통에 잇텐 헤가지고 신호를 보내 낫잖아예. 그건 어떻게나수과?

108021 # 아, 저 오민은 저 도통이 어디수과? 해주게 계민 어디잇젠 가르쳐 주는 거.

108021 @ 아니, 저 돛통에 강 일보는데 누가 와가면 머렌 ㄹ라마씨? 나 여기 잇져, 안헤그네 뭔가 신호를 보내실거 아니짜예?

108021 # 아 무시거. 사람잇져. 영하주. 저 사람 안 뵈게시리 가마니 뵈고, 저 무시거 멘들어그네 나무세워그네 가리게 시리 멘들어놔주게.

108021 @ 기지에. 그이름은 뭐렌헨지 모르고예.

108021 # 몰라.

108021 @ 옛날엔 돛통에 저 지금이야 화장실에 휴지 잇주만은 옛날엔 뭐 이서

나수과?

108021 # 보리짚, 조짚.

108021 @ 그걸 화장실에 쌓아 놔마씨?

108021 # 응. 영~ 옆에 묶은 채, 사람 지들팡 옆에 세왕 내불주, 게민 앓아그네 그거 빠그네 영~ 꼬부라그네 쓸어놔주.

108021 @ 보리짚이나 조짚으로 한덴헤도 게민 설사 같은 거 나쁜 어떻게수과?

108021 # 어떻게, 그걸로 문딱해주게. 설사나고 하민 옷 문 벗앙 빨고.

108022 @ 옛날엔 헛간 이서낫잖아예. 옛날엔 헛간을 머렌 마라수과 여기서.

108022 # 헛간, 잊어부러져.

108023 @ 주로 웨양간을 머렌 마라수과?

108023 # 췌왕.

108024 @ 그다음엔 장항아리 놓아난디를 머렌 마라수과?

108024 # 기자 장이신디렌 고랏주. 몰르켜.

108024 @ 게민 저가 별표 영~ 헤낫당 나중에 어른들 이신디 가가지고 다시 여 췌보쿠다.

108024 # 겐디 저끄디 이서시민은 노인을 앓앙 놀 때는 옛날 하는 말들 고라나 민은 다 나오주게.

108024 @ 경허나네 언제.

108024 # 아니 요즘도 노인들 앓앙 술들 먹고 헤민은 장난말들도 곱고 허는다, 아즈민 허긴 혈건디. 말들이 하영 나오긴 혈거라. 겐디 보통 오전에는 안 허고 오후에 왕 허는다. 어떤디는 술들먹영 잘 오고 어떤 때는 안오고 허주게. 메날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주게.

108025 @ 그다음엔 춤향이렌 한말 들어나수과? 춤향.

108025 # 저 비올 때.

108025 @ 비올 때 물 받는 거, 그걸 춤향이렌 헤나수과?

108025 # 저 비올 때 큰 나무에 세 영~ 행 영~ 묶어그네.

108025 @ 그거 무슨 나무에 돌아메나수과?

108025 # 동박나무에. 췌 깨끗한 것이 동박나무. 그 나무에 어싹헤그네 무끄주게. 비가 이렇게 내리민 나무로 줄줄 내리는 거라 그민 그 물들을 향들에 내리주게.

108025 @ 그걸 불목리에서는 머렌고라수과?

108025 # 춤 받으라.

108025 @ 춤 받으라마씨?

108025 # 춤 받으라. 거 비올 때게, 춤 받았다그네 그거 먹고.

108025 @ 춤 받는 향아리를 춤향?

108025 # 춤향.

108025 @ 이거 언젠간 학교에서 배워나긴 헛거든예.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우리 초가집 지을 때 세출 세 하당 헛덴 헛잖아예.

108026 # 겐디 기신세가 족으민은 보리찍도 좀 두둑히 놓주게. 게난, 나룩찍도 허고 보리찍도 허고, 조찍도 허고 하주게이. 게난, 이제 기신세가 놓다그네, 집을 경사지게 해야 비가 내릴 거 아니? 게난, 가슨사리엔 짝근씩 허고, 우트레 갈수록 뚜껍게 해. 경허민은 모자리민 이제 그것도 갖다놓고, 저것도 갖다놓고 하는 거라. 기신세가 흙에 달라붙으는 것도 잇주만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그네, 기신세사 세로 덜 섞은 거, 찍이 속에서 파내면은 덜 썩은 것들이 나오주게. 그런 것들은 묶었다그네 집지을 사람들 가그네, 고치 일헤그네 집이 갖당 나두는 거라.

108026 @ 이제 그거 몇 년에 한번 짚을 갈아나수과?

108026 # 보통이 이년에 혼 번, 일년에 혼 번. 일년에 혼 번씩해사. 막 길어사 이년.

108026 @ 게면 그 항상 집을 그 세로 세 바꿀 때 마다 속에이신 기신세는 꺼내 불고

108026 # 아니아니 안꺼내여. 이만큼 뚜껍게.

108026 @ 게문 계속 두는 거과?

108026 # 응.

108026 @ 새로 세를 바꿀 때도 그냥 듭니까?

108026 # 게난 막 집 뜯어불 경우에. 그런데 너무 많이 가민은 짚을 걸어불기도 허여.

108026 @ 게민 걸어불기 전에 세로 이을 땐 이신지붕에다가 또 올리고 너무 많 아지민 더러 걸어버리는데 속에꺼 걸어버리는 건 아니고예.

108026 # 응응. 속에꺼 건드레가민은 집이 병나여 안돼여. 물이 스며들어. 굼벵이 일구.

108027 @ 세를. 각단은 무시거과?

108027 # 각단은 짚 이 줄 노는 거. 세 짚른 거. 긴 건 우에 얹고 짚른 거는 이 집이 묶은 줄 놀거. 그 각단으로 줄 만드는 거. 각단으로 놓는 거.

108028 @ 그러면 집줄은 머렌 곱니까?

108028 # 기자 줄. 줄 노래가게 하주게.

108028 @ 긴 줄을 머렌 ㄱ라수과?

108028 # 호렝이. 그거는 멘드는거고.

108028 @ 호렝이로 줄 놀 때 , 이제 긴 줄이 잇고 짧은 줄이 잇잖아예. 그 긴 줄을 머렌 ㄱ라수과?

108028 # 긴줄 올리라 짧은줄 올리라 영~ 헛주.

108028 @ 긴 줄이렌 헤나수과 진 줄이렌 헤나수과?

108028 # 진줄.

108028 @ 진줄. 짧은 건?
 108028 # 짧은 줄.
 108028 @ 영~ 영~ 하는 건 호랭이고예.
 108028 # 응.
 108028 @ 뒤치는 건 머렌 헤나수과? 여기선 뒤치기렌 헤신디예.
 108028 # 아이고 몰라. 영 삼각형 된 거 잇주게 두에서도 오랭하고,
 108030 @ 계민예 평고대는 뭐파?
 108030 # 평고대? 집 우에 켈 우에를 말하는 거 아닌가?
 108030 @ 대나무나 긴 막탱이나, 그런 철사나 그런 걸로 쓰는거렌 헤신디다가,
 지붕 일 때 쓰는 건데 뭐파?
 108030 # 그 상모루 켈 진진하게 시리 저 혈 때 서리거칠 때 하는 거 아닌가?
 서실 혈 때게. 서실 혈 때.
 108030 @ 서실 혈 때 나무는 뭘로 헤수과?
 108030 # 대나무 보통 대나무로 헛주, 섞지 안 허고.
 108030 @ 계민 서실 혈 때 맞추다 대나무인거보난.
 108030 # 대나무 어서서 다른 나무 헛주. 보통 대나무로 많이 헛주게. 켄디 ,그
 거는 108030 췌면은 넙작넙작하주게. 계민, 또 서실 이어갈 때 막 편안헤여 썩지도
 안 허고.
 108030 @ 집줄 멜 때 그 집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메수과?
 108030 # 이 앞이서부터 이 뒤에.
 108030 @ 이 앞에서 멜 때 뭘로 메수과?
 108030 # 멩담. 줄메는거 멩담. 서실목예.
 108030 @ 서실 끝을 멩담이렌 헤수과?
 108030 # 응. 줄메는 것이 멩담.
 108030 @ 계민 앞에 멩담, 뒤에 멩담.
 108030 # 응응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멍 다 하주게 다 묶어야 하니깐.
 108032 @ 계민, 그 집줄 다 메당 줄이 남을 거 아니파예? 남으면 아까 그 정제
 방석도 만들고 또 뭐헤수과?
 108032 # 아 나뭇당 필요할 때 저 보리밭디 보리 거뭍드릴 때 노름지 늘누러그
 네 바람불리지 안하게끔 영~ 행 걸쳐그네, 양쪽으로 돌 돌아메그네 그런 거 많이
 썩주. 세영 놓주게 줄도 지붕이꺼 세어그네.
 108032 @ 세는 어디가 구헤나수과?
 108032 # 자기들 밧에들 다 잇주게. 사오기도 허고. 옛날에는 과수원 어실때난,
 옛날에는 보목리 쪽엔 세밧이 족주만은 디, 토평 쪽으로는 지형이 넓으니까 그디는
 문 세밧디주게.

연장

108033 @ 집 지을 때 사용하는 연장들 잊지않아시쿠과예?
 108033 # 목수 연장들이주.
 108034 @ 집 지을 때 쓰는 톱은 어떤 톱으로 써수과?
 108034 # 톱이, 톱도 여러 가지라. 뭘 오리는 톱이 따로 있고 준수한 나무 또로
 있고.
 108034 @ 그거 이름들 아는 대로 고라줍서.
 108034 # 아이고 우리 목수아니난 몰라.
 108034 @ 하나도 모르쿠과?
 108034 # 자귀도 있고, 대패, 배루, 대패는 나무 알루께 자르는게 대패고, 자귀
 는 영영 큰 거 놀르막하게, 자귀 우리집이 호나 잇주만은, 귀자기렌 하는 거, 나무
 베어오민은 짹~ 돌아서, 영~ 네모나게끔 착착 티와그네 손으로 짹 가져 깎아, 그걸
 로 깎아나민. 대패는 멘짝하게 하는 거고.
 108035 @ 못뽑는건 뭇렌 ㄹ라수과?
 108035 # 못빼기.
 108035 @ 그냥 못빼기마씨?
 108035 # 응.
 108035 @ 배척이렌 말은 안써수과?
 108035 # 못빼기. 기자 그 깎으는 거?
 108036 @ 자, 이렇게 줄 이런 건 어떻게수과?
 108036 # 먹통.
 108036 @ 먹통, 먹줄마씨?
 108036 # 응 먹통 아져오라. 그걸 나무로 파그네 그덜 숨 끝은 거 놓은 거. 놓
 야그네, 그디 먹 굴야그네, 물을 그디 미양 나두는 거라. 계민 속으로 줄을, 실을 끈
 으로 헤그네, 속으로 헤그네, 짹~ 텅겨가민, 꼭 눌러가민, 그 먹이 실에다 붙으주
 게. 계민 저기 가그네 꽃으라 하민, 여기 꽃으민, 심어그네, 딱! 텅그리면 검은 걸로
 텅그려지주게.
 108036 @ 흑손이란 것도 이서수과?
 108036 # 응 흑손. 영 개벽할 때 나무로. 나무로 길게, 그 무시거 사깁들 하는
 거 이서. 그 나무로 멘든 흑손.
 108036 @ 흑받기는 머파?
 108036 # 받는 널착, 널착이..... 이름을 잘 몰르켜.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보목리에서 명절 같은 거 지낼 때 어떻게 지냈는지 여쭙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정월 이잖아예? 1월 1일 정월명절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지낼수과?

110001 # 옛날에는 양력으로 쭉 헤왔는데 몇 십 년 전부터는 이 마을에는 전부 음력으로 하지. 가정 집집마다 새벽에 작은 아들네 집에서부터 며느리까지 종손집에 모여서 마지막은 종손집에 모여서 저녁에 끝나지.

110001 @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건 어수과?

110001 # 마을자체에 하는 건 엇고.

110002 @ 명절이 지난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대해서 혹시 그날 따로 행사하는 건 어수과?

110002 # 정월대보름날 행사하고 하는 건 어섯고, 명절 지나면 보름동안에는 요즘은 뭐 세배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보름동안에는 헛주게 먼데 같은 디는.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건 어션.

110003 @ 그럼 명절기간 전이나 명절기간 중이나 지나서 대보름 사이에 방사와 액막이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110003 # 뭐 액막이는 가정집에서 하는 거?

110003 @ 네.

110003 # 가정집에서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것도 많이 헛는데 바다 쪽으로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무당을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는 토신제 들엿주게.

110003 @ 토신제는 어떻게 지내수과? 어느 날? 며칠에?

110003 # 토신제는 보통 정월달만 되면은 가정마다 날을 봐서 저 가정 그 집 주인의 생기를 맞는 날짜를 봐서 잡주게. 집 뒤에 같은디서 깨끗한 장소를 택해서 지엿지.

110004 @ 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4 # 포제는 옛날부터 헤왔고 지금도 하고 있주. 일 년에 혼 번 하는데, 오월 달 돼머는 날짜를 받주게. 정빳날이렌 헤가지고 돼지날을 택하주게. 정짜하고 해짜. 딱 정일로 해로 맞이할 때는 정일. 그다음에 해. 근데 가급적이면 정일, 돼지날. 근데 마을에다가 장선단 헛다가 하민 떠. 열흘에 하고 그 날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도 저번 달에 해야 웰건디, 날짜가 나쁘다 보니까 열 달도 넘어갈 수도 있주게. 제관 어른들은 18명 정도, 마을회에서 하주게. 옛날에는 또 저 성씨별로 자기네 집안에서 제관을 내놓젠 서로 허주게. 가문에 위세가 당당하다 해서. 성씨가 작은 사람들은 제관하기가 힘들엿고, 만약에 저 각시 두 개 한사람은 제관을 못 합주게. 옛날엔 한 5일동안 합숙해서 제청이라고 해서 한집을 택합주게. 거기서. 요즘은 3일하는데 집이도 일찍 못나오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합주. 제 지내는 연습도하고 마지막 날에는 제단에서 제지언.

110004 @ 제단은 어딴과?

110004 # 제단은 여기는 그런 말이 잇는데 배 없는 곳, 산이 이신, 묘.

110004 @ 그거 보목리 말로해줍서.

110004 # 우리는 그래서 깨끗한 장소주게. 오름에 같은 높은데 옛날부터, 얼마 전부터는 모르고 체단이라고 만들어 이십주. 새벽에 가서 정일이면 정일 제사를 지냅주.

110004 @ 포제를 지낼 때 방법 잇잖아예?

110004 # 여기는 포제를 지낼렌 허면은 보목리에 먹는 물이 세 굿디 바끼 없엇주게, 그럼 거기를 이틀은 물을 못 길르게해. 깨끗하게 저 새끼줄을 메여서 물을 먹지 못하게. 그래서 그 깨끗한 물로 제를 지내주.

110004 @ 세 군데가 어디짜?

110004 # 세궁설레하고 조공인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해서 보통거기를 새끼로 봉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헛주게. 물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110005 @ 안택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거짜?

110005 # 안택은 잘 모르켜.

110006 @ 그다음엔 정월에 보리밥 밍기가 이서신디예. 여기도 경혜수과?

110006 # 여기는 요즘엔 보리를 안 하니깐 안하주게. 근데 옛날에는 많이하니까 그 보리를 밍아야 옷작에도 안하고 보리가 잘된다고 해서 밍앗는데, 어릴 때도 학교에서 보리밍기렌 혜영 봉사헛주게. 여기서는 겨울에는 상강지면 땅이 부서게 몰주게. 땅을 단단하게 밍아야 뿌리를 잘 잡고 결이 잘된다 해서 하고. 보리밍이 잇는 데는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 연을 만든 들어줘서. 그 밍디서 연을 만들어줘서 보리를 밍도록. 아이들이 놀면서. 그땐 아주 크게 헛주.

110007 @ 볼목리에도 결궁이라는 것이 이서수과?

110007 # 결궁? 옛날에는 정월달이 돼서 자체에서 이십게이십게 모여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집세를 돌면서 돈도 받고 지금은 안하주.

110007 @ 옛날엔 집집마다 돌면서 어떻혜수과? 돈을 주는 거마썸?

110007 # 어. 만약 부잣집이민 그 부잣집이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빌어 주며는 그걸 내가지고 성의를 표시하고.

110008 @ 입춘, 우수, 절기중에서 그때는 어떻혜수과? 입춘 때는 특별한 거 이서수과?

110008 # 입춘하면은 주로 그 판 집에 놀래들 안 갖주게. 특히 여자들 절대못가. 만약 그 옆에 집에 빌러가려고 해도 불려서 빌러달라고 하던지. 여자는 남의 집에 데려가면은 검질하영 난다고 해서 일절 뒤. 남자는 입춘 달 남의 집에 가면은 잘 차려. 재수 좋다 헤그네 헛주게.

110008 @ 우수엔 어떻혜수과?

110008 # 우수엔 별뒤 어섯고.

2월

110009 @ 이월에 영등할망이렌 해서 영등굿이라든가 제지내든지 어서수과?

110009 # 영등할망이 온다 하면 와서 젓물 행 고향에도 다녀오고 며칠 머물다가 아마 갈적에는 바다 조개껍질이 뭐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흔적이 나타난다, 헛섯고 영등할망이 온다 간다 그런 말은 해놔주.

110009 @ 특별하게 영등제를 지낸다던가 그런 건 없었고예?

110009 # 영등제, 마을에서는 안하고 본향다니는 정도로.

110010 @ 경칩이나 춘분에 대해서는 뭐한 건 어서수과?

110010 # 어서, 난.

110010 @ 경칩이나 춘분에 뭐 농사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건 어서수과?

110010 # 모르겠네.

3월

110011 @ 3월에 와가지고 한식 때는 뭐 어서수과?

110011 # 옛날에는 한식에는 명절처럼 지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어서시고.

110011 @ 옛날에 혹시 어떤 거 해나수과?

110011 # 우리 댄 엇고.

110012 @ 청명이나 곡우 댄 어떻게수과?

110012 # 청명 때는 산에 가서 지성도하고.

110012 @ 곡우는 어수과?

110012 # 그거는 엇고.

4월

110013 @ 4월에 오면 초파일이신디 이땐 뭐한 거 어서수과?

110013 # 초파일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행사는 하는데 안다니는 사람들은 생각을 별로 안허주.

110013 @ 초파일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해나수과?

110013 # 초파일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뭐 어서.

110013 @ 혹시 절에 가본적은 어수과?

110013 # 절엔 아직까지 못 가뵈.

110014 @ 절기로는 4월에 가면 입하하고 소관이렌 한 거 이신디 뭐 해난 거 어서수과?

110014 # 그땐 뭐 별로해난 거 어섯지.

5월

110015 @ 5월에는 단오가 이신디 뭐 해난 거 어수과?

110015 # 단오는 우리가정에는 뭐 안 지냈는데. 그 추석, 정월명절하고 단오하고 지내는 집이 이서서.

110015 @ 단오 땐 뭐해마썸? 명절처럼 제를 지내거나 헨마썸?

110015 # 저 나중예까지 몇 군데는 추석 때처럼 제사를 지냈지.

110015 @ 혹시 옛날에 단오를 지냈던 분 살아계신 분 이수과?

110015 # 지금은 어서.

110016 @ 5월에는 절기로는 망중하고 하지가 이신디예, 그때도 뭐 농사준비를 한다든가 뭐 어서수과?

110016 # 망중에는 뭐 농사준비를 씨 뿌리고 한다고 하는데, 크게 구애받지는 안에.

6월

110017 @ 6월에 오면 독 잡아먹는 날이라든가 이서신디예. 어떻혜수과?

110017 # 그거는 크게 생각해가지고 여섯 날엔 독 잡아먹는 건 꼭 해서.

110017 @ 독 잡아 먹젠하면 시장만 가도 닭고기를 팔잖아예. 옛날에는 어떻 준비 혜수과?

110017 # 옛날에는 독 파는데도 얼마 어섯지만은 집에서 길워서.

110017 @ 독은 잡아 봐수과?

110017 # 응. 독 잡아먹는 거는 다혜.

110018 @ 삼복에 대해 말씀해주십서.

110018 # 초복, 말복인데. 큰 무슨 행사는 뭐 어섯고.

110018 @ 초복 중복 말복 이때 잡앙 먹는 것짱? 유월 이십 날?

110018 # 보통 유월 초복 날이 독 잡아먹는 날이라고 해서, 독 잡아서 먹기도 하고 독엿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특별히 초복이렌 하면은 요즘 들어 챙겨먹고 하는데 크게 뭐 어서서.

110019 @ 6월에 소서, 대서가 이신디예. 이뎨 어떻 지내수과?

110019 # 소서, 대서는 제일 더울 때라부니까 잇는데, 옛날에 대서 때는 물놀이 가고.

7월

110020 @ 백중은 언제를 얘기한것짜?

110020 # 음력 칠 월 십오일인가?

110020 @ 소서, 대서는 양력으로 된 거잖아예?

110020 # 응.

110020 @ 백중이니 중복, 말복은 음력을 말하는 거잖아예?

110020 # 응.

110020 @ 7월에 와서는 칠월칠석날 특별히 한 건 어서수과?

110020 # 일반 뒴는 없고 절에 데니는 사람은 칠석불공이다 하는 거 같던데.

110020 @ 뭐 젊은이 들이 시집장계 안간 그때 당시에 칠월칠석에 얘기들이 나 오거나, 그런 건 어서수과?

110020 # 그런 건 었고.

110021 @ 아까 그 백중은 칠월에 들어신게예? 음력 칠월에

110021 # 응.

110021 @ 백중 때는 특별하게 뭘 해나수과?

110021 # 백중 때는 보면은 나루동산을 지으면은 짚을 살레 가서, 농사 잘해 달
렌 고사도 지내고. 물맞이레도 가서 물 떨어지는데 가서 물 맞고, 병이 낫는다 해서
많이 참여했주.

110021 @ 볼목리에서는 물맞으레 어디간마썸?

110021 # 소정방이렌 해서 이서.

110021 @ 정방폭포?

110021 # 칼호텔옆에.

110021 @ 거기도 보목동에 속하잖아예?

110021 # 거기는 행정적으로는 영천동인디 거기다가 소정방가기 전에 천제를
지낼라면은 군뚝물이라고 해서 깨끗한 물로 지내는 거기가 아직도 잇주게.

110021 @ 군뚝물은 칼호텔 근처 소정방쪽에 이수과?

110021 # 응. 소정방 가기 전에, 여기도 해주만은 서부사람들은 거기 물을 떠다
가 세수 깨끗하게 하고 천제 지낼 때도 거기 물 떠다가.

110021 @ 그 물은 아직도 이수과?

110021 # 응.

110021 @ 정술내는 매뀌부럿덴 해서마썸.

110021 # 응 이서.

110021 @ 백중 때 뭘 음식을 특별히 헤먹는다거나 그런 건 어서수과?

110021 # 그때는 뭘 음식 헤먹는 건 어섯고.

110021 @ 그다음엔 여기는 또 저쪽에 모살밭이라고 이섯다고 하더라고예? 축항
포구 잇는 쪽에 모살밭이 잇덴 헨게만은 지금도 이수과?

110021 # 지금은 모살은 다 어서저불고, 옛날에는 포구 옆에 모살 이섯주. 거기
서 모살뜸이라고 해서 모살 파서 얼굴만 내놔서 몸에.

110021 @ 모살 찜 할 때 그거는 건강에 뭐가 좋앙 헤수과?

110021 # 지금도 모살뜸이렌 하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린 모르주만
은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헷주.

110021 @ 백중때 물 맞으면 어디에 좋다든가 물맞으난 뭐가 좋아라한 거 이수
과?

110021 # 보통 그뻘 관절이라든지, 머리아픈사람은 마다리를 뒤집어써서 떨어지
는 물 맞고 하면은 보통 가면 식사 같은 것도 저 다른 밥 같은 거 안 하고 죽 썬
가야 물 맞는 효과 잇덴 해서. 신경통 같은 거.

110024 @ 입추하고 처서가 이신디예?

110024 # 입추는 뭘 행사가 없고 처서 때도 물 맞으러 갔주. 백중이나 마찬가지로

주.

8월

110025 @ 8월에 가서는 별초 같은 것도 헛엇잖아예? 별초는 어떤 날 날 잡앙 해수과?

110025 # 별초는 백로가 8월절인디 백로가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방상마다 일요일 피하고, 몇째 일요일 해서 가구마다 틀렸는데 보통 8월절이렌 하면은 백로 전후해서 헛주.

110026 @ 별초가 끝나고 그다음엔 명절이 오잖아예? 추석 때는 어떻 지내수과?

110026 # 팔월명절? 팔월명절도 정월 명절이랑 마찬가지로 가족들끼리 방상 별로 하느디, 알까진이라고 작은아들부터 종손집까지 모여서, 마지막엔 종손집에서 웃어른 모시는데 난 거기서 끝내낫주.

110026 @ 그럼 삼춘네는 명절 시작해서 마지막 종손집 가면 몇 시쯤 뛴수과?

110026 # 옛날에는 방산서 불 켜고 까지도 헛는데 요즘 다 나눠서하기 때문에 파별로 2~3시면 끝나주.

110026 @ 보목리 같은 경우에 한 씨가 가장 많잖아예? 한 씨도 모이면 오후 2~3시면 끝나수과?

110026 # 한 씨도 여기 파가 아들에 또 아들에 갈라지면 또 몇 십 개 되니깐. 딱 하나가 할 수 잇주게. 집집마다 하게되니깐.

110026 @ 옛날에도 경 파 갈랑해수과?

110026 # 아니 아니, 옛날에는 좀 범위가 컷는데 요즘에 와서는 더 방상들 줄여서 가족이면 가족단위로 육촌이면 육촌, 팔촌이면 팔촌. 따로.

110026 @ 그럼 옛날에는 삼춘넨 어릴 땐 세배를 몇 집 가나수과?

110026 # 보통 다섯 군데.

110026 @ 8월 명절하고 정월 명절 땐 달라가지고 8월 명절 땐 먹영만 오면 뛴 지마은 정월 명절 땐 아이들한테 세배를 다 받거나 하거나 해야되잖아예? 그렇게 뛴머는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파예? 그럼 그때는 몇 시쯤에 끝나나수과?

110026 # 정월명절때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만 여기는 명절이 끝나면은 요세는 그런 거 줄어들었는데 동네 전부 세배를 다녔주게, 이웃어른들한테. 옛날에는 한복입어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어떤디는 줄지어 샅다가 세배해가지고 나오면 들어가고 해서. 큰 행사처럼 해 왔는데 요즘은 뭐 공동으로하기 때문에, 간소해낫지.

110026 @ 정월 세배할 때 막 어릴 때 기억으로 세배를 하게 되면 그때당시에도 세뱃돈 줘수과?

110026 # 옛날에는 세뱃돈 받아보도 안하고.

110026 @ 요즘 들어 손지들이나 세뱃돈 얼마정도 준비햐수과?

110026 # 집집마다 뭐 보게뚜 사정에 틀리주만은 우리는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해.

110026 @ 경행, 삼춘은 얼마정도 준비했수과?

110026 # 대학생 오 만원, 중학생 삼 만원 이축.

110027 @ 아이고, 경행구나예. 그다음엔 팔월 명절 때 중손 집에서 마지막 제를 지낸다고 했는데 혹시 백로라든가 추분에 대해서 말해주십서. 벌초할 때가 백로여 수과?

110027 # 벌초? 벌초는 개인벌초하고 제사도 마지막에 큰 중손 집에 하는 것처럼 입도는 입도, 입향이면 입향, 웃어른 묘가 켈 마지막에 무도 벌초라고 절하고 큰 범위내에서 하는 묘로. 제주도는 특이하지만은 전부모아서 하는 거고. 아주 큰 행사 주게.

110027 @ 뭐 추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고예?

110027 # 응 뭐 추분에는 특별한 행사는 없고.

9월

110028 @ 그다음 9월에 와가지고는 그, 상강이 이서신디에 상강 때는 뭘 해 수과?

110028 # 상강일에는 뭘 하는 거 어썩고.

110028 @ 농사지어가지고 나룩 빌 때 나룩 언제 베어수과?

110028 # 상강일 전에 빈다고 하는가? 그런 말이 있는데 상강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 거 같은데.

10월

110029 @ 10월에 와서는 입동이 있고 소설이 이신디 그때는 뭐 볼목리에서는 행사 어서수과?

110029 # 것도 뭐 안하고.

110029 @ 입동이나 소설 땐 보목리는 잘도 따듯하더라고예. 그때 입동이면 날 썬 좀 어떻해수과?

110029 # 입동이라고 여기는 따듯하니까 입동이라고 느끼질 못했주.

110029 @ 소설에도 눈이 와본 적은 없고예?

110029 # 응.

11월

110030 @ 그럼 11월에 와가지고는 동짓날이 이신디예. 동짓날은 어떻해수과?

110030 # 동짓날엔 뭐 팔죽을 썬서 액운을 막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하는 때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110031 @ 납평 날에 대해서 혹시 들어나수과?

110031 # 납평 날을 여섯 날 득 잡아먹는 식으로 엿을 만들고. 보통 엿을 만들 니다게.

110031 @ 그럼 무사 옛을 만들어신고예?

110031 # 납땜 날이라고 해서 그때 꼭 골라서 옛을 만들어 먹는 것이 풍습처럼 경 해왔져.

11월

110032 @ 그다음에는 11월에 와서는 대설이 이신디예. 대설 땐 눈 와수과?

110032 # 대설 때도 여긴 뭐 일 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 오니까.

12월

110033 @ 그다음에 12 월 되면 양력으로는 1 월 말이라던가 2 월 말쯤 될 건데 친구간이 끼어이서예? 친구간이 옛날에도 지금처럼 양력으로 해수과?

110033 # 아니여게 음력으로 했주.

110033 @ 근데 지금 보면 친구간이 입춘 전.

110033 # 입춘전 3일, 입춘전 7일.

110033 @ 혹시 친구간에 이사해봐수과?

110033 # 친구간에 이사는 안 해봤는데. 친구간들면은 가정이 모든 집수리 같은 거라 던지. 솥독 하나도 함부로 만지지 못해요. 동티나카부텐. 친구간에는 그런 것도 만들고. 돛통에 담 하나를 하든지.

110033 @ 뭐라고마썸?

110033 # 돛통에 담 하나를 형클어져도 지들팡하나 고치젠 해도 동티난다고 해서 함부로 못하지. 친구간에 이사하던지 수리하던지. 그때 뭐 귀신이 없다고 그런 때주게. 그게 쟁쟁히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이서.

110033 @ 그 이사 갈 때 친구간 때 이사 안 해봤다고 하섯잖아예? 이집은 결혼 행 얼마 만에 마련했덴 해수과?

110033 # 17년.

110033 @ 그때도 친구간 때 살림 들이고 해나수과?

110033 # 아니 경 안해난.

110035 @ 이사 갈 때 보면 맨 먼저, 이제사 막 차에 실어갓지만 옛날엔 이사 갈 때 맨 먼저 뭐부터 갖다놓고 하는 거 어서수과?

110035 # 옛날에는 저 헤먹을 거 솥단지. 솥단지가 쥘 먼저가요. 그리고 이불 가져가고.

110035 @ 무사 경헤신고예?

110035 # 솥단지 가져가야 어떻 솥도 뚫고 준비할 것이 잇서야지.

110035 @ 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마썸?

110035 # 그런 건 아니고, 생활하기 그것이 먼저가야 편하니까 하지 았았나.

110034 @ 이사 갈 땐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어서수과?

110034 # 옛날에는 남의 집에 빌어가는 이사는 그다지 많지 안 허고 집지어서

갈 때가 많았고.

110036 @ 그 집들이는 어떻게신고예? 어떻 진행해수과?

110036 # 집들이할 때?

110036 @ 예.

110037 # 요즘 집들이 할 때는 뭐 차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예전에 그렇게 안하고 중간에는 성냥 같은 거, 그 집안이 부흥하도록 성냥, 초 가져가는데 요즘은 없고.

110038 @ 소한 대한 있고 계절에 들어서 이신디예, 소한 대한 중 언제가 더 추워수과?

110036 # 켈 추울 땐데 소한은 그렇고, 대한은 대한에 나갈 때 찾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잇습주게.

110036 @ 무사 경해신고예?

110036 # 그러니까 추울 때 나가니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 그러니깐 대한 때는 가급적이면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해여 옛날부터, 대한에 나간 사람은 찾지 말라는 거라. 어디가도 죽을 거난.

11. 놀이

111001 @ 놀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볼목리에서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명지내수과?

111001 # 놀이? 놀이야 팽이, 자치기, 공기, 딱지치기, 땅뺏기 요추록, 여자들은 고무줄.

연

111002 @ 이제 놀이에 대해서 여쭙보쿠다예. 연날리기 할 때 혹시 연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신지 기억남수과?

111002 # 연은 방패연 잇었고, 가오리연. 여기는 보통 두가지연.

111002 @ 옛날에도 그냥 가오리연, 방패연 이렌 고라수과?

111002 # 응. 계난 여기는 보통 두 가지밖에 안해연.

111003 @ 연만들 때 연줄은 뭘로 해수과?

111003 # 미녕썰로.

111003 @ 신사라렌 해가지고 그때 그거는 안해나수과?

111003 # 신사라? 그걸론 옛날에 해지 안해나고. 미녕썰로.

111003 @ 그럼 연 날릴 때 연을 만들고 날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해나수과? 연 날릴 때 사용되는 도구하고, 필요한 도구들이 뭐뭐여수과?

111003 # 옛날에 연 만들젠하민 대나무, 창호지, 실 또 엿을 감는 것.

111003 @ 그걸 뭐렌 헤나수과?
 111003 # 글썸 그거는.
 111004 @ 혹시 연 날릴 때 실 감는 거를 뭐렌 고라신지 기억남수과?
 111004 # 옛날 실은 대로 헤그네, 현재 기계식으로 돌지 않고, 대로해서 실을 하는 거 잇잖아. 제주도말로 실을 감는다 이거야.
 111004 @ 실을 감을 때 그 실을 잘 풀리거나 감기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혜수과?
 111004 # 근데 그 바다에 고기 낚으는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쪽 노민은, 도르민 이렇게 쪽 나가고 땡길 땡 영영 감는 거시 이서. 잡으민은 바람에 쪽 나가고 감을 때는 저 뭐야, 물레모양으로.
 111004 @ 그걸 혹시 뭐라고 헤신지 기억 안나멘마썸?
 111004 # 그거는 기억 잘 안 나고.
 111004 @ 벌이렌 헤가지고 들어봐수과?
 111004 # 연벌이렌 헤가지고 연술을 가져가지고 네 밧디면 네 밧디 메다는 거, 그걸 벌이.
 111004 @ 이걸 표준어로 얼레라고 해주마썸. 여기선 뭐렌 고라신지 모르쿠과?
 111004 # 얼레.
 111004 @ 여기서도 얼레렌 고라수과?
 111004 # 응. 얼레.
 111004 @ 그럼 개미는 뭐파? 보면은 연을 만들 때 연대, 벌이, 얼레, 실, 개미 라고 했는데 개미는 뭘 얘기하는 건고예?
 111004 # 개민? 그건 잘 모르겠는데.
 111005 @ 연싸움할 때 연 이겨봐수과? 연싸움할 때 어떤 장면을 이기는 거라고 하고 져다는 건 어떻게 져다 혜수과?
 111005 # 예를 들어 둘이가 연을 날리면은 부딪혀서 잘라지는 건 지는 사람인디 그 당시에는 이길라고 실에다가 저 사기그릇을 막 가루로 만들어서 풀 실에다 묻혀서, 굵어져서 다른 사람 거 잘라져볼게끔 이길라고, 사기그릇 가루 풀로 묻혀가지고 마찰해서 이길라고 헛어.
 111005 @ 사기그릇을 가루로 만들 때 그 그릇은 어디서 나서 헨마썸?
 111005 # 장태 같은 데 깨진 거 옹기, 옹기 빗어서 가루해서 실에다가 풀로 묻혀서 마찰로 의해서 잘라지게.
 111005 @ 옹기를 여기서는 뭐렌 고라수과?
 111005 # 옹.
 111005 @ 아까말씀하신 장태는 뭐파?
 111005 # 옹기는 통틀어서 옹기고, 장태, 항 대받이, 허울.
 111006 @ 연날리기에서 연 만들어 강 날릴 때 어렸을 때 특별한 기억 하나만 고라줍써.

111006 # 연날리다가 켈 높은 동산에서 아까 얘기했던 보리밭에서 잘라지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완전 그것이 완전 우리 목적달성이 됐다는 식으로, 잃어버리면 섭섭할 진 몰라도 우린 좋은 일이다 생각을 했주.

111006 @ 그때 누구랑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신지 기억하나만 고라줍서.

111006 # 그 당시에는 뭐 아이들 한 두 사람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 사람이 가서 연 날리고.

111006 @ 최종적으로 붙었던 생각나는 사람 어수과?

모르지.

제기차기

111007 @ 남자아이들이 즐겼겠지만 제기차기가 잇엇잖아예? 제기는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뭐 이서수과?

111007 # 제기는 창호지에다가 요즘 쉼돈. 엽전. 하나면 하나 두 개 놔서 무꺼서 저 찢어서 무꺼서 제기를 만들엉.

111008 @ 제기차기에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잇잖아예.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111008 # 혼발차기, 양발차기가 보통. 또 멀리차기도 하고.

111008 @ 멀리차기가 멀리 찬다는 것과 저~ 쪽으로 찬다는 것파?

111008 # 경해서.

111008 @ 제기차기에서 올리기하고 물기가 잇는데 건 어떤식이여수과?

111008 # 그런 건 모르고, 제기차기는 요즘 베드민턴 모양으로 여기서 탁 차민 저기서 탁 차고 못 차는 사람이 지는 거고, 그런 것도 이섯고, 한다리 차기, 양다리 차기 잇섯고.

111009 @ 한다리 차기나 양발차기는 어떻게 이기는 거 정해수과?

111009 # 여러 번 허는 사람이 이기고.

111009 @ 가장 많이 찾던 게 몇 번 정도 찾던 거 같으파?

111009 # 그건 뭐 말할 순 엿고.

111009 @ 백 개까지 차고 하는 사람 이서수과?

111009 # 백 개까지 차는 사람 이섯고.

111009 @ 삼춘은 경 안해나수과?

111009 # 나는 어섯고.

111010 @ 혹시 제기차기 하다가 뭔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건 어서수과?

111010 # 그런 건 어섯고.

111010 @ 이기면 이긴 편이 뭘 한다든가, 진편이 뭘 낸다든가 그런 건 어서난 마썸?

111010 # 그 당시에는 내기도 헛엇는데 기억이 안 나고.

자치기

111011 @ 자치기는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11011 # 자치기는 그 이름은 그 자치기 보면 그냥 박는 자치기가 있고, 또 구멍 파서 놔서 구멍드레 던져서 가까운데 잇으면 또 때려서, 세 번이나 두 번 때려서 멀리 해서, 자로 그걸로 채서 때리는 자치기로, 이렇게 채서 많이 나가는 게 이기는 걸로.

111011 @ 그럼 여기서도 이기고 지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뭘가, 저가 어렸을 때 보면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이서신디. 여긴 어떤 것들 이서수과?

111011 # 우리도 그런 건 이섯주만은 내기도 하고 재미로.

자치기

111012 @ 자치기 할 때 자치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수과?

111012 # 자치기는 뭐 나무니깐. 곧은 걸로 오십 썬치 정도 두 개가 필요해.

111012 @ 두 개가 같은 크기로 준비해수과?

111012 #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나가는 거.

111012 @ 그런 낭들은 어디가그네 구웬마썸?

111012 # 하여간 죽어그네 곧은 나무하니깐 꼬불고불 한 건 안 되니깐. 곧은 걸로.

111014 @ 자치기 할 때 특별한 추억 같은 건 어수과?

111014 # 어릴 때는 저 저쪽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학교 끝나서 가다가 중간에서 자치기 해노면은 해 지는 질 모르게 했주.

말타기

111015 @ 말타기 잇는데, 말타기는 어떤 놀이를 얘기하는 거파?

111015 # 말타기는 이레이레 굽어서 저 뛰어가명 말 타는 건디.

111016 @ 말타기는 죽은말타기도 있고, 생말타기도 잇더라고예?

111016 # 이거는 굽은말타긴디. 굽은말을 타서 탁 튀어 딱 짚어그네 탈수고 잇고, 그냥 탈수도 잇는데 그냥 타버리면 말이 끊어져불던지 찢라져불던지 뗏싸져불던지 하면은 진거.

111017 @ 그럼 그건 굽은말타기구나예? 그럼 생말타기라던지 죽은말타기던지는?

111017 # 그런건 어서. 굽은말타기.

111018 @ 대말타기라는 건 이서예?

111018 # 그런 건 모르고.

111019 @ 말타기하명 특별한 추억 같은 건 어수과?

111019 # 추억은 뭐 옛날 같은 거 지금은 모르고.

구슬치기

111020 @ 구슬치기가 이신디예? 구슬은 그땐 어떻 준비해수과?

111020 # 여하튼 구슬은 유리구슬인디 이렇게 해서 맞추고.

111020 @ 옛날에도 오래전에 구슬이 이서난마썸?

111020 # 이서서.

111020 @ 어디 강 어떻 구해신고예?

111020 # 그거는 기억 안 나는 데 구슬치기한 기억은 나네.

111021 @ 구슬치기 할 때 보면 어떤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11021 #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마치는 거 하고.

111022 @ 구멍치기라는 라든가?

111022 # 망냥치기. 췌돈 해서 내기 하는 거. 망냥 하나 파가지고, 선 그려가지고 선 몇 메다 해가지고, 거기서 망냥에 들이치민 이기는 거. 구녕 거 돈 크기로 구멍을 파서 낙 이시메, 선 그려서 먼디서, 그 구멍에 들어가민은 얼마, 낙 헤버리면 무효. 가까이가면 이기는 거. 또 그건 구멍

치기 있고. 동그라미 그려서 그 안에 몇 개 깎지 던지느냐, 두 가지. 구멍이 망냥

111023 @ 망냥치기가 있고 또. 원치기 있고.

111024 벽치기는 뭐짜?

111024 # 벽치기는 돈 잡아 던져서 멀리 가는 거 있고, 또 상대방에 돈 옆이 가서 따먹는 그런 거 있고.

111024 @ 그걸 돈으로는 안 행 구슬로는 안해수과?

111024 # 돈 어실 땐 구슬로도 하고.

111024 @ 그다음엔 눈치기 또는 눈알치기는 어떤거짜?

111024 # 그런 것도 이서난거 답은디.

111024 @ 옛날에 구슬을 구슬이렌 고라수과?

111024 # 응 구슬이렌, 해방 후에 나와실거여.

111025 @ 눈알 치기나 삼각치기는 어서수과?

111025 # 어션.

111027 @ 구슬치기하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건 어수과?

111027 # 뭐 안해봐서.

111027 @ 해방 전에 어렸을 때 일제 강점기 때 헛던 놀이들은 어떤 것들 이서수과?

111027 # 아까 해난 거, 다 일제 강점기 때 해난 거.

딱지치기

111028 @ 딱지치기를 아까 빠짱치기렌 해나수과? 빠짱은 어떻 준비해나수과?

111028 # 헌책 가지고 굴런곽이라고 해서 그런 로 만들어서 헛지.

111028 @ 일제 강점기 때는 굴런곽도 구하기 어렵지 안해신가마썸?

111028 # 힘들지. 근데 보통 신문지나 책 가져왔잖아.
 111028 @ 그때 일제 강점기 때도 신문지 이서수과?
 111028 # 신문지 이섯주만은 보통 책으로 많이해여. 책 뚜껑으로도 만들고.
 111029 @ 딱지치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이서수과?
 111029 # 딱지치기는 뭐 때령 뒤집엉.
 111029 @ 그것밖에 어서수과?
 111029 # 주로 그거주.
 111029 @ 그 빠짱에도 종류가 이섯잖아예?
 111029 # 빠짱도 아까 그 종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굴런곽으로 동굴락 한쪽으로 책뚜껑 같은 거 두꺼운 걸로 해서 그냥 딱지치기하는 두 가지.
 111030 @ 근데 딱지를 만들 때도 보면 한 면만 되기도 하고 양면으로 딱지가 보이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 않으과?
 111030 # 그것이 저 종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드는 게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책 뚜껑 같은 걸로 두꺼운 거, 동굴락하게 잘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탁 때려서 뒤집으면 이기는 거. 아까 그 종으로 접는 건 꾸부리고 꾸부리고 하는 거고.
 111031 @ 빠짱치기 할 때 특별하게 재밌었던 거 이수과?
 111031 # 재밌었던 거야 이기는 건 어서도 많이 따면 좋은 거.
 111031 @ 삼춘은 많이 판 편에 속해나수과 밀지는 편에 속해나수과?
 111031 # 아이고 땃다가 밀지기도 허고.
 111031 @ 그때 했던 기억들은 나지예?
 111031 # 응. 많이 해서.

숨바꼭질

111032 @ 남자어른들도 숨바꼭질 같은 것도 해나수과? 여기서는 뭐렌 고라수과?
 111032 # 곱을락. 남자들도 하긴해.
 111033 @ 곱을락 할 때 그 술래를 뭐렌 고라수과?
 111033 # 술래를 위니렌 해놔주. 위니가 일본말.
 111033 @ 위니가 눈감아서 셋던 말 중에 하나둘셋 말고 또 다르게 했던 말 이서수과?
 111033 # 다른 말은 없고 시간 재는 거주게.
 111033 @ 아니 우리 때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이섯주게마썸.
 111033 # 그거는 해방 후에 헛지게.
 111033 @ 그전에는 숫자만 세나고예?
 111033 # 응.
 111033 @ 하나, 둘, 셋, 넷 세난 거 한번 고라줍서.

111033 # 흥나, 둘, 셋, 넷 다섯, 요숫, 일곱, 요답, 아홉, 열. 열 개 세나그네 좇으러 다녀야돼.

실뜨기

111036 @ 실뜨기 이신디 남자는 안해놔지예?

111036 # 보통 여자들이 하는데 남자도 하기도 하고 해서.

111036 @ 그때 실뜨기 할 때 실은 어떤 종류여수과?

111036 # 실은 미녕실.

111036 @ 옛날엔 실 귀혜부난 그냥 잘라당 써도 뭐렌 안고란마썸?

111036 # 아여튼 그 정도는 미녕실로 헐.

111037 @ 실뜨기 할 때는 모퉁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 많이 써수과?

111037 # 주로 엄지손가락허고 새 손가락 영~ 해서 요추룩가고 요추룩하고 해서 다른 사람 요고 잡양 요렇게 허고 하는데 보통 요 두 손가락으로 허고.

111038 @ 그러면 옛날에는 들이손가락이라고 얘기 하긴 헐는데 엄지는 그냥 엄지렌 고라수과?

111038 # 엄지손가락이렌.

111038 @ 이거는마썸?

111038 # 머렌 고라난지 모르고, 새끼손가락이렌하고.

111038 @ 실뜨기에서 새끼손가락은 어떤 역할을 해수과?

111038 # 이거는 저거나 마찬가지로진디이, 이거 거르민은 다른 상대방이 요고 요고 하고, 두 개를 가지고 뒤집어서 쪽~ 하고, 다른 모양 하고, 모양을 자꾸 바꾸게 하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주.

111038 @ 그럼 나중에 실뜨기를 삼춘 오셨을 때 헤보쿠다만은, 실뜨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어수과? 예를 들면 어렸을 때지만 남자 아이들과 여자아이들도 잇지만, 여자아이들이랑 같이 헤본적은 어수과?

111038 # 헤봤주게.

111038 @ 그럼 아, 야이가 좋으니깐 야이랑 헤야지 이런 추억은 어수과?

111038 # 아 그런 생각으로 한 적은 어시고.

공기놀이

111041 @ 공기놀이 말씀하섯잖아예? 공기놀이도 남자아이들 헤나수과?

111041 # 남자는 별로 공기는 안 허고 주로 여자들.

111041 @ 어떤 걸로 공기놀이 헤신지 기억남수과?

111041 # 공기는 바닷가 가서 꼭 닳은 돌로 눈깔사탕 모양으로 크기도 이축 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다가 주서다가 허고.

111041 @ 그 작은 돌을 뭐렌 고라나수과?

111041 # 공기. 공깃돌

111041 @ 공기놀이에 대해서 여자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기억나는 건 어서마썸?

111041 # 별로 기억이 나는 건 어서. 여자들이 많이 허여.

111041 @ 여자들 막 하는 거 관심이성 보진 안 해판마썸?

111041 # 구경해봐주게.

111043 @ 구경할 때 특별하게 추억 같은 건 어수과?

111043 # 어서.

111043 @ 할 때 만일에 어린 마음에라도 좋아하는 여자 이서실거 아니파예?

111043 # 어서.

고누

111044 @ 그다음에 고누놀이라고 알아지쿠과? 사금팔이로 하는 거.

111044 # 몰라.

111044 @ 병이나 사기그릇 쪼가리 잇잖아예. 쪼가리로 하는 거마썸.

111044 # 몰라.

111044 @ 땅에 그어가지고 선 그어서 헛던 거, 기억 안나멘마썸?

111044 # 안나.

111044 @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잇잖아예? 선이 이시민 사금파리 조각을 주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땅뺨기

111049 # 땅치기, 땅따먹기.

111049 @ 땅따먹기를 할 때 사용 되는 아까 어떤 데는 사금파리, 유리조각.

111049 # 사기로 납작한 거 만들어가지고 돌 주서가지고 땡겨가지고 선 딱 그어가지고 저쪽 땅, 이쪽 땅 땡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디 가민 들어간 곳에 자기 땡땡드는 거야.

111049 @ 그거 혹시 남자도 해나수과?

111049 # 예게. 그거 뭐 남자 여자 어서.

111050 @ 땅따먹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긴 사람, 진 사람을 구분해마썸?

111051 # 원을 그려서 여기는 자기편이고, 저쪽 편에서 이걸 가져 치면은 맞뜨 쟈허민은 이걸로 하나씩 차지해 가는 거라, 땅을 잃으면 이걸로 또 이렇게 따고, 많이 땡 편이 이기는 거.

111052 @ 그때 땅 따먹을 때 놀이하는 공간이 어디서 해나수과?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111052 # 학교가 어섯고. 그냥 길 위에서 해수다.

웃놀이

111053 @ 웃놀이 하셔낫잖아예? 주로 언제 해나수과?

111053 # 웃놀이는 뭐 아무 때도 허는데, 여기는 그 요즘은 장작 웃을 허는데 이만씩 한 거, 지금 우리 지방에는 작은 거.

111053 @ 작은 웃놀이 나무 조각들을 뭐렌 고라나수과?

111053 # 녀동베기.

111054 @ 웃놀이 헐 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준비헤마썸?

111054 # 가까운 거 중 아무 나무나 하는데 요만큼 한 이 센치 정도 자른 거니까 저 굵기가 가는 거. 잘라서 4개가 돼야하니까 굵기가 가는 걸로 하는데 주로 던져서 꺾테기 잘 안 벗겨지는 나무로, 나무 수액으로 던져서 꺾테기 벗겨지면 안 되니깐 주로 꺾테기 안 벗겨지는 나무로.

111054 @ 꺾테기 안 벗겨지는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기억남수과?

111054 # 계절마다 다른데 주로 여기는 동백나무로 많이 허는다.

111054 @ 동백나무는 옛날에 뭐렌고라수과?

111054 # 동박나무. 동박낭.

111054 @ 웃놀이 나무라는 나무는 안 들어봐수과?

111054 # 웃놀이 아니고 윤유리나무, 윤우리나무는 여기잇지만하고 저기 산에 막 질긴 나뭇디 몰라, 예전에는 그런 나무 사례간지 몰라도, 윤유리 나무이서, 산에 붙영사는 거.

111054 @ 혹시 산에 가서 어떤 게 윤유리나무지 알아지쿠과?

111054 # 아니 몰라. 말로 들엇지.

111055 @ 웃놀이를 할 때 종제기에 낀 헛잖아예?

111055 # 장종제기 이렇게 해서 사기그릇. 원래 큰일 때 장 놓는 거. 흔 저 흔 읍도 안된 거, 그걸로.

111055 @ 아 그 장종제기에 넣어서 녀동베기를 놔가지고?

111055 # 흔들어서 던지는 거.

111055 @ 그 던질 때 웃판은 어뎡 준비해수과?

111055 # 웃판은 땅에다가 그려서.

111056 @ 그다음에는 혹시 녀동베기 할 때도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11056 # 녀똥이 종류는 아까 고른 장작웃도 잇고 작은 것도 잇고.

111056 @ 작은 건 뭐렌 고라수과?

111056 # 저 녀똥베기라고만하지.

111056 @ 작은 것도 녀동베기, 큰 것도 녀동베기렌 고라수과?

111056 # 큰 거는 근래야 육지서 들어온 거고, 우리 땐 그런 거 어섯주. 지금도 제주도는 행사할 때나 하지.

111057 @ 녀동베기 할 때 이기고 진거는 어뎡헤난마썸?

111057 # 네 개 노민은, 녀똥기 판은 땅에도 하고 멍석에서 할 때는 멍석에 그

려.

111057 @ 멍석에 그럴 때 뭘로 그어수과?

111057 # 솥으로.

111057 @ 솥으로 헛고, 물은 뭘로 써수과?

111057 # 돌도하고, 나무도하고. 뭇짜지라고 해서 소라 껍데기도 허고, 쌍방에 틀린 거 만 하면 되니까. 네 개씩.

111057 @ 녀동베기는 아이들도 하지만 어른이 뉘셔도 헛엇잖아예? 거면 그 승부를 가르 다음에 뉘 먹을락을 한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마썸?

111057 #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기해서 뉘 술내기를 하던지, 돈내기도 해서.

111057 @ 해방 전에도마썸?

111057 # 해방 전엔 돈내기 안하고. 근래에는 하는데.

111057 @ 그럼 해방 전에는 이기고 지고 그냥 그걸로 끝난마썸?

111057 # 그 당시는 돈도 없고 하니깐. 뉘 잇긴 이섯갓지.

111057 @ 그게 뉘엇을까마썸?

111057 # 놀이 자체로써 재미 이성하고.

팽이치기

111059 @ 그다음엔 팽이치기가 이신디예. 어떻게 준비혜수과?

111059 # 이런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지.

111061 @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혜수과?

111061 # 나무는 여기서는 보통 동박나무.

111061 @ 옛날에는 나무렌 거의 안 쓰고 낭이렌헛지예?

111061 # 낭. 동박낭. 폭낭도 뉘고.

111062 @ 팽이에 사용되는 나무는 좀 무거운 나무해야 뉘잖아예? 동박낭이나 폭낭, 그다음에 팽이를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혜수과?

111062 # 아래 뉘쪽 나온다 뉘을 박아요. 그래서 잘 도니까. 좀 이서가면은 팽이가 닳으니까 뉘 도니까 뉘을 꺼꾸러 박으며는 오래셔도 닳으지 않으니깐 그걸 이용해서.

111063 @ 그러면 그 팽이채는 뉘로 준비혜나수과?

111063 # 팽이채는 게 형겘으로.

111063 @ 노곗은 뉘로 준비혜수과?

111063 # 그때 배 닳은 거 이섯주게.

111063 @ 노곗은 재료가 뉘파? 썰로 짠거마썸?

111063 # 응. 썰로 짠 거. 노곗은 썰로 짠게 노곗이고.

111063 @ 옛날엔 웨 노곗하면 세나 이겘로 한 게 노곗이엇잖아예? 근데 팽이에 셔 사용하는 건 썰로 짠거마썸? 그거 실은 무슨 썰로 혜수과?

111063 # 보통 옛날에는 미녕썰.

111064 @ 팽이 싸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과?

111064 # 팽이사움은 부닥쳐서 죽어부는 것이 지는 거.

111064 @ 그 팽이를 준비할 때는, 그러면 만일에 팽이가 크면 작은팽이랑 하면 당연히 큰 팽이가 세니까 작은 팽이가 넘어가면 이러진 았아마썸? 팽이의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어서수과?

111064 # 그런 거는 어서. 팽이는 보통 만들면은 굽은 것도 있고, 높은 거 긴 거, 높이나 뭐나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돌기시작하면 높은 것이 더 힘이 세다 이거야. 그런 딱 규정이란 없고.

굴렁쇠

111066 @ 그다음에는 굴렁쇠렌 한건 데 굴러가면서 하는 거 이섯잖아예? 둥그란 거, 쪽 물면서 가는 거. 여기서는 머렌 고라신지 모르쿠다.

111066 # 굴렁쇠는 자전거 바꾸 돌리는 거?

111066 @ 예 그런 거 비슷한 건데.

111066 # 그거 뭐라고 하나.

111067 @ 그것도 돌리기 헤낫잖아예?

111067 # 그것이 많이 헛는데. 그 동그란 썬에다가 자전거 바꾸 사다가 썬을 오구려서 돌리는 거.

111067 @ 예 맞수다.

111067 # 그거 이름을 잘 모르켜.

111067 @ 그거는 뭘로 준비해수과 그러면.

그때는 보통 머냐하면 바게스 도당 바게스, 돌글랑 가는 철사. 철사 그런 걸로 해서 와마썬렌 해서 요만한 나무다가 썬박아서 요렇게 해서 둥글렁 그걸로 경주하고.

111067 @ 예 맞수다. 그럼 그 바게스를 잘라낸 행마썸?

111068 # 아니 보통 헛거를 아니면 철사 가는 거를 이렇게 구부려서도 하고. 나중에는 자전거가 많이, 해방 후에는, 법환리 같은 데서는 차도 없을 때니깐 자전거 바꾸, 빼고 다이아 떼붙고, 요거 가지고 썬로 해서. 요거는 왜냐면 그거를 따라가면은 지각은 안헤여. 따라오민 그래서 학교 올 때도 그거 행 오고 갈 때도 그거 행 가고. 해방 후에 핑장히 많이 해서.

111068 @ 그거를 뭘렌 헤나신고예?

111068 # 일본말로는 와마와시라고 하는디. 동그란 걸 둥근다고 해서.

(깡)통차기

111069 @ 그다음에 깡통차기라는 것이 잇지예? 깡통차기도 헤낫지예?

111069 # 조금 헤난 거 같애.

111069 @ 그 깡통 차기는 어떻 준비합니까?

111070 # 깡통도 옛날에 힘들었주만은 작은 돌 매달아놔서 소리 나게 해서, 발로차서 저 멀리차고, 그런 식으로 헤난 거 같은데 많이 안 해서.

111070 @ 깡통이 어서그네 많이 안헤신가마썸?

111071 # 응. 깡통도 귀했고.

111071 @ 그 멀리 차면 그게 이기는 거고예?

111071 # 응.

뽕기치기

111072 @ 그 다음엔예? 뽕이치기라는 게 잊지예? 여기는 뽕이를 뒤편 고라수과?

111072 # 여기도 뽕이.

111072 @ 뽕이 치기도 그냥 뽕이치기고예?

111072 # 응.

111072 @ 뽕이치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수과?

111072 # 뽕이치기는 상대 둘이가 하는 건데, 뽕이를 잡아서 처음에 몇 개씩 내놔가지고 요걸 잡아서 이렇게 뿌리면은 삼각형이 나와. 삼각형이 크게나오면 여기 심어당 많이 집어노면은 따먹는 거고, 삼각형이 작아버리면 서너 개 밖에 못하면 서너 개 밖에 못 따먹는 거고.

111073 @ 그러면 만약에 서너 개를 삼각형 안에 어떻게하는거마썸?

111073 # 여기 잡을, 많이 잡으면서 여기 몇 개씩 잡아서 싹 뿌리면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크면은, 저 자기 걸로 해서 건드령은 안되고, 딱 거기서가 건드리면은 따먹고.

111073 @ 그러면 상대방이 건드리지 았앙 세모 안에 집어넣 거 만큼 숫자를.....

111073 # 일레 들어가면서 찍은 거만큼 이 숫자만큼 상대방이 받아와야 돼.

111073 @ 그 혹시 뽕이치기 할 때 볼목리에선 어디강 뽑아와수과?

111073 # 옛날에는 세 많으니까, 세뿔이 나오는 게 뽕인디이.

111073 @ 세에서 나오는게 뽕이파?

111073 # 세 저 띠. 뽑아서 학교 갈 때 배고프민은 뽕이 뽑아서 속에 하얀 거 그게 저 먹고, 뽕이.

111074 @ 뽕이치기는 하면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어수과?

111074 # 뽕이치기는 별로 기억나는 건 엇고.

고무줄놀이

111075 @ 고무줄놀이가 이신디예. 고무줄놀이 할 때 해방 전에도 이서수과?

111075 # 해방 전에는 별로 없고. 해방 후에가 많이 는 거 같애.

111075 @ 고무줄은 어떻 준비 해나신고예?

111075 # 옛날에는 고무줄 어시 헤신디이. 하여튼 뭐 검은 고무줄로.
111075 @ 어디 강 사와그네마썸?
111075 # 그 당시는 사오던지, 고무줄파는 디 이서신지는 모르겟는데.
111076 @ 고무줄놀이 동작 같은 것들은 혹시 기억나는 거 이섬수과?
111076 # 동작 같은 것들은 여자들은 감앗닥 풀엇닥 하는 거.
111077 @ 혹시 그때 불렀던 노래 같은 거 기억남수과?
111077 # 그런 거는 안 나고.

줄넘기

111078 @ 줄넘기도 잇잖아예? 이것도 여자도 남자도 다 헤난거잖아예? 줄넘기 할 때는 어떤 종류가 이수과? 옛날 줄넘기를 뭐렌 마라수과?
111078 # 줄넘기주.
111078 @ 혹시 배뿔락이렌 안 헤나수과?
111078 # 배뿔락 맞아.
111078 @ 기지예? 배뿔락 할 때 배는 뭘로 준비헤나수과?
111078 # 주로 짝배는 아닐거고, 배뿔락은 혼자하는 배뿔락도 잇고 여러 사람이 해서 혼드는 배뿔락도 헤는다. 무신 배로 헛는다 확실히 기억은 안나.
111078 @ 배뿔락도 보면 혼자하는 것도 잇고, 혼자 하는 건 숫자 많이 해야 하고 해야지예? 여럿이 할 때도 보면 줄줄이 한사람 뛰영 넘어가고, 한사람 뛰영 넘어가고, 하는 것도 잇고, 여러 사람이 같이 뛰어가는 것도 잇고. 또 한사람은 일로 넘어가고 절로 오고하는 하는 것도 잇잖아예? 그거 혹시 이름들 어서수과?
111078 # 이름은 이슬건디 기억이안나이.

그네뛰기

111080 @ 여기서 혹시 그네 이서나수과?
111080 # 여기서는 그네는 잘 안타봐서. 가끔 여름 같은 디 낭 아래 해서 타기도 헛는데 많이 허지는 안 허고.

한다리인다리

111082 @ 그다음엔 한다리인다리렌 현 놀이 알아지쿠과? 여기서는 머렌고라수과?
111082 # 여기도 한다리인다리 헛져. 한다리두다리디 여기 다리 가운데 두두리 면서 하는 거.
111083 @ 남자어른들도 아이 때 이거 헤나수가? 같이 앉아가지고예? 혹시 한다리인다리 할 때 어떤 노래 불려나신고 기억남수과?
111083 # 잘 기억이 안나.
111084 @ 한다리두다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고 결정나나수과?

111084 # 그 노래 나 생각인디, 노래 딱 끝나민 다리 된 사람이 지는 거.

111084 @ 예. 알았습니다.

13. 민간요법

113001 @ 민간 요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예?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어, 옛날엔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막 나삿잖아예? 만일에 지금 뱀 물어시문 죽을병으로 생각할 텐데도 낫는 거처럼예.? 그렇게 헛을 때 우리가 기계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머리 밀어붙었잖아예?

113001 #1 이발충.

113001 @ 이발충이렌 헤낫구나예? 이발충일 경우엔 어떻 치료해수과?

113001 #1 치료? 치료는 벨로 뿔, 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13001 #2 이발충엔 무신거 기름, 비만지 기름 빼어그넝 그거 불랏젠 말 들어진 거 닷다.

113001 @ 아이들은 그거 안 걸려봐수과? 비만지 기름 마씨? 비만지 기름이 뭔고? 혹시 비자나문가마썸?

113001 #2 아니 아니. 나무 길쪽하고 이파리 영 갈래로 혼 삼갈래로 갈라지곡 거기 열매가 열아.

113001 #1 피마지라고 할건디, 표준말로.

113001 @ 피마자인가?

113001 #1 피마지 열매잇는 거. 그니까 그거 기름인디이.

113001 #2 익으민은 이렇게 깨져그넝 땅콩식으로 나와, 열매가. 계민 그걸 그뎨 기름짜는디도 어시난 무슨 양푼 곱은 것에 백상 싸그넝, 그걸 막 짜그네, 그 기름은 호끔 데피는 식으로 양푼에 노민 데와지구게. 겨민, 무시거세 가지 곱은 것에 짜그네 그럴 불른 거 닷아.

113001 @ 아 경헛구나예. 비만지 기름으로예?

독창

113002 @ 그다음엔 독창이렌 헤가지고 머리에 둥글둥글락 헤져가지고 굵은 점이 생기면서 막 머리털이 빠지는 그런 병이 이서나서예. 독창이렌 헤수다. 여기서 뉘런 그라? 여기서.

113002 #2 그건 들어본 예가.

113002 # 그건 들어보질 안해서.

113002 @ 기파? 그 @ 일종의 탈모증은 아닌데, 일단은 그런 건 안 들어 보고 예?

비듬

113003 @ 그다음에 비듬을 그땀 빈땡이렌 헨덴 헛잖아예. 그 비듬은 어떻게 치료해수과?

113003 #2 빈땡이 하영 일민 머리 깎는 건, 옛날에 비누 어시난 찰흙, 촌역이렌 헛주게. 그거 가그넝 그 이신디 강, 뉘헤그네 그깡 봉가당, 그걸로 머리 깎고, 그거 비누로 써시난.

113003 @ 경혜시난예. 경헛구나예.

버짐

113004 @ 그다음에는 버즘은 옛날에 뉘렌 고라수과?

113004 #1 그것도 버짐.

113004 #2 기냥 버즘.

113004 @ 그 버짐은 어떻게 그거 나사수과?

113004 #2 버짐에도 비만지지름 불른 거 닳아.

113004 @ 버짐에도 예?

113004 #2 버짐에도.

113004 @ 우리 어릴 때 저도 막 버짐 나면 어머니가 달팽이 잇지예?

113004 #2 달팽이로도 문질르고.

113004 @ 경혜난에 나중엔 끈적끈적한 거 떼젠하면 막 울고 헛던 기억이 나고 현 거 생각 나거든마썸. 어릴 때 저도.

113004 #2 들팽이 무친 것도 이서.

113004 #1 들팽이 무쳤던 현 뉘도 이서.

113004 # 그땀 초약이렌 현건 무싱거 별로어선, 뉘 현거 닳아도 비만지 지름 헛 하영 고쳐주.

113004 #1 비만지 지름을 이용을 많이 헛. 요즘 말허는 식중독 체 한 거 체 헛 때, 그 때도 비만지 먹으민, 식중독도.

113004 #2 그것이 막 많이 이용해서.

113004 @ 혹시 요즘엔 비만지라는 거 어디 못 봄니까? 어디신 거?

113004 #2 못 봐 양?

113004 #1 요즘 잘 안보여.

113004 @ 혹시나 그거를 어디 다니다강이라도 보이면 고라줍서. 일단 걸 찍어야 할거난.

113004 # 피마자엔가. 것도 뉘시엔가?

113004 @ 피마자인가? 잎이 경한 거 보민 피마자 닳은디.

113004 #2 잎이 여러 개도 안 나고 영영 나민 이파리 하나가 울로 텅구리민 요 른 망치로 세 갈레로 영 갈라진 거. 영~ 이것이 상 뉘민 일로 갈라지곡 일로 갈라

지곡. 또 다숫 개로도 갈라질 수 잇고 허난.

113004 #1 그건 가지고 열매는 똑 땅콩모양으로 속에 알맹이 있고 우에는 털식으로.

113004 @ 그 열매는 매끌매끌 현 것과?

113004 # 예. 꼭 땅콩 모양 식으로,

113004 @ 땅콩처럼예?

113004 #2 까만 까만 까무로몽 현 뒤에 줄 이서, 열매가.

113004 #1 털 닳은 털 닳은 것도 있고.

113004 @ 잇당 그것도 한 번 찾아보야 돼쿠다예.

113004 #2 털은 영 뒤에 연디서 허곡, 까지민 그 땅콩 닳은 거만.

113004 @ 매끈매끈 현 거예.

여드름

113006 @ 그다음은 옛날 막 여드름 난건 어떻게신고예? 여드름들 난 건.

113006 #1 여드름 난건 뭐 치료한 건 뭐시.

113006 #2 여드름 난 건 기냥 네비영 어떻게했주. 그때 무신 여드름 난거 약 허곡 무시거.

113006 @ 막 여드름만 난 막 특별나게 여드름 막 많이 난 아이들 이섯지예? 그때 당시에도.

113006 #1 옛날에는 그 여드름도 별로 어서서.

113006 #2 옛날에는 그다지 어서서.

113006 @ 경헛구나예?

기미

113007 @ 그다음엔 기미는 어떻게수과? 기미. 기미가 생기면.

113007 #2 옛날에는 기미가 생겨도 기냥 살앗주게. 날추룩게.

113007 @ 기미 안 생기게 하젠 머하진 안혜수과?

113007 #2 아이고게 그땐 무신 화장품이 무시거가 이서.

113006 @ 계난.

주근깨

113008 @ 주근깨는 마썸?

113008 #2 주근깨도 기미랑 기냥 ㄴ치.

사마귀

113009 @ 사마귀 낫을 땐 어떻게나수과?

113009 #2 사막 날 때도 기냥 내불고, 말축, 이룬디 손에나 어디 말축 나민 멍

지썰로 감아그네 하나, 켈 먼저 난거 감양 떨어치민 나머지도 준 건 털어진다 해낫 주게.

113009 @ 멧지썰로예.

113009 #1 거 말축,

113009 @ 말축, 사마귀, 계난예.

113009 #1 또 영장 나갈 때 가서 빗자루로 이거 썰영.

113009 @ 씨러텐 헛잖아예. 근데 그게 참.

다래끼

113010 @ 그다음엔 다래끼 날 땐 어떻게수과?

113010 #2 다래끼 날 땐 할망들 발창에 글씨주곡.

113010 @ 천평지평 그거마씨?

113010 #1 응. 천평지평 쓰곡, 돛통담 강 가그네 뒤집고.

113010 @ 돛통담 가그네 뒤집어마썸?

113010 #1 담 가그네 뒤집어. 방법으로.

113010 #2 옛날에는 돼지 질르는 데 건디 허민, 그거 돛통담을 해떠올 해 발른 디 거 가그네 담을 영~ 강 탁 뒤집어 놔불민, 허허허.

113010 #1 그런 방식으로.

눈 충혈

113011 @ 그다음엔 눈에 막 눈에 먼지나 머 껴그네 벌겍게 충혈 돼거나 아니면 눈병 같은 거 낫을 때 눈 충혈된 건 어떻 치료해수과?

113011 #2 그때 눈에 약이 이서수과? 어섯주.

113011 @ 애기들 어떻헛디가? 애기들 눈 아팡 와실 때.

113011 #2 애기들은 눈 아프나 만약에 무시 거 눈에 들어가나 허민 애기 젓떡 이는 젓 놔그네, 어른들은구완 허곡, 애기들은 세로 영 뒷 해주곡.

충치

113012 @ 그다음엔 애기들 막 충치먹어그네 이빨 아팡 헤가민, 치통, 이빨 아팡 헤가민 어떻해수과? 이빨 아플 때.

113012 #1 아이들은 어떻해도, 어른들은 그저 속 헤그네 연기도 빨고 헤봤는다.

113012 @ 속 구워가지고마썸?

113012 #1 응.

113012 #2 아이들 헛 땐, 물 먹어불라, 물 물어불라 헤실거라.

113012 @ 물. 물 물어불라.

헛바늘

113013 @ 그막 그 헛바늘, 세까지 돌아실 땀 어떻게나수과?

113013 #2 세까지 돌아실 때 할망덜, 이제 끝으민 정구지? 그걸 막 머헤그네 꿀에, 꿀 헤그네 막 세, 손가락으로 영영 감양, 손가락으로 문 땀아그네 헤낫주.

113013 @ 그걸 여기서는 그걸 정구지렌 헤나수과?

113013 #1, 2 세우리.

113013 @ 세우리렌 헛지예? 세우리.

113013 #1 또 꿀, 청도 바르고.

113013 @ 꿀은 또 청이렌 헛고예?

113013 #2 응.

천연두

113014 @ 그다음엔 그 지금 사라졌데는 헤도 옛날에는 이것텐 하거든마썸? 그 마마 마썸게. 천연두, 마마 걸렸을 때, 마마 걸린 건 안봐나수과?

113014 #1 마마, 우리는 저 무시 거 홍역을 주로 허지. 마마는.

113014 @ 기지예? 그때도 마마는 어서젓구나예.

홍역

113015 @ 그럼 홍역 걸렸을 때 어떻게수과?

113015 #2 홍역 걸렸을 땀 무시거 뭐 그냥 내불곡, 누게 왕 무시거렌 고라불카 부텐 어디 아이 들양 나가지도 안 허곡, 집이 사람 들어오지도 못 허게 허곡.

113015 @ 그다음엔 아이안티 어떻게취수과?

113015 #2 아이안티 기냥 자연히 나뒀당 나시민 걸로 꾀 헤불주, 어떻 헤 줄 수가 이서?

113015 @ 기지예. 혹시 이 동네에 홍역 걸려난 다음에 뭐 다리라던가 팔에 뭐 생긴아인 어신가마썸?

113015 # 어서.

학질

113016 @ 그다음에 학질예? 모기에 물렸을 때 걸리는 거예. 학질 걸렸을 땀 어떻게수과? 학질 걸렝 뭐 죽엇다 라든가 막 많이 아팠텐 한 소리 안 들어봐수과?

113016 #1 여긴 학질 관계는 건 별로 없엇던 거 닷고.

113016 #2 들어본 예 어신게.

113016 @ 웨염 걸려난 건마썸?

113016 #1 웨염은 근래 와서 웨염, 웨염하지. 옛날엔 웨염 이신지도 몰랐고.

113016 @ 계난 옛날에는 웨염 뒀렌 마라나신지 모르쿠과? 옛날엔?

113016 #2 아이들 홍역 걸린 건 무시거렌 마라나신고.

113016 @ 그럼 옛날에 모기 물렝 학질 걸려도 이게 학질인지 뒀지 몰랑 넘어

강, 살거나 죽어도 홀수 어시고 경혜난지도 몰라예?

불거리

113017 @ 혹시 불거리는 아이들 걸렸던 건 기억 나지예? 아니 혹시 본인이 걸려난 건 어수과? 요기 막 딱딱하게 굳어그네 막 열나명 아픈는 거.

113017 #2 어서 어서.

113017 #1 그런 것도 어섯고.

113017 @ 혹시 동네에 경 걸렸을 때 어떻게나신지 모르쿠과?

113017 # 것도 잘 어섯고.

113017 #2 나력이렌 헤지 안혜수과?

113017 @ 아. 나력. 나력.

113017 #2 나력. 이런 꿋등에나 이런 모가지에 뭐 난거.

113017 @ 예, 맞수다. 그걸 어떻 치료 혜나신고예?

113017 #2 그건 그땐 뭐 초약을 붙찌나 행, 막 이걸 뽑아내젠 신경써넌.

113017 @ 초약이민 어떤 초약을 붙여수과?

113017 # 고약 끝은 거.

113017 @ 고약? 그건 약국에강 사당마씨?

113017 # 응.

113017 @ 옛날에도 이서나수과?

113017 # 사당도 허곡, 또 소낭에 송진. 송진 따그네 그거 막 불에 영영 허멍떡을 만들어, 그것도 붙여나고, 구진 허물에 송진 붙져 나고..

목걸이

113018 @ 혹시 그민 그게 목걸이라는 병은 어서나수과?

113018 #1 목걸이가 나력인가? 잘 안들어봐서. 보통 나력나력 헛는데.

113018 @ 목걸이가 나력인가 마썸? 저는 예 목걸이라는 말이 잘. 나력이 목걸이하고, 불거리 하고. 나력 걸렸을 때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저기 뭘 혜난거과?

113018 #2 응.

113018 @ 나력이라는 거는.....

113018 #2 나력은 그때 고약들 구진 허물에 붙지난 것도 구진 허물이다 헨 붙져난 거 알아져.

113018 @ 그때 나력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병명이 이신게예. 나력이라는 건. 뭇가 막 결핵균이 볼록볼록 헤그네 염증 생경 굵아 터졌덴 나왔거든마썸. 아, 그러면 나력은 불거리하고, 목걸이하고, 아니 또 다른 질병이다예? 나력은예? 그때는 송진 헛다는 거잖아예?

땀띠

113019 @ 그다음엔 땀띠 낫을 땀 어떻게수과?

113019 #1 땀띠기?

113019 @ 맞아. 건 땀띠기렌 헤나서예.

113019 #2 땀띠기 낫을 때도 어린이들 그 땀 그루후제주마는 저, 분이엔 헤그네 분 요만한 통에 분.

113019 #1 지금도 분이주게.

113019 @ 그 분 나기 전에 삼촌네 어릴 땀 어떻게수과?

113019 #2 우리 어릴 땀 땀띠기 난건 뭐 헤줄 사람도 엇고 몰르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땀, 땀띠기, 분 헤네 블라난 거 고자 이서.

113019 @ 분 헛구나예. 웬만한 건 바당에 가그네 몸 곰아불고예?

113019 #2 몸 곰아불고. 촘물에 가그네 몸 곰아불고.

부스럼

113020 @ 허물. 부스럼 날 땀 어떻게수과? 허물 같은 거 낫을 땀?

113020 #2 허물 나도 마찬가지로 게. 막 나쁜 허물 낫젠헤민 고약헤당 붙이고.

113020 @ 아까 송진으로 하듯이예.

113020 #2 응, 송진으로도 허고.

113020 # 송진보단 고약이 하영썬주.

113020 @ 고약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써도. 삼촌네 애길 때도 고약 이서수과? 어릴 때도?

113020 # 우리 어릴 때도 이서서양.

113020 #1 고약, 고약이라고 이서서.

113020 @ 그건 일제 때 이서났구나예? 일젠데예? 혹시 그문 고약 종류 이름이 뭐였는 지 혹시 기억남수과? 일제 때?

113020 # 그것도 기억도 안 나고,

113020 #2 문 우린 고약으로 알아네 쓴 거 뿐.

113020 #1 고약은 여기 저 촌에 지금으로 말하민 한의사처럼 헛 사람이 이섯는디, 그사람이 무신 그 재료가 뭐 뭔지도 모르고, 까맣게 해서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서 종이에 해서 붙이고 헛는디, 경헛 그 고약으로만 해서.

113020 @ 그냥 고약으로만, 아, 경헛구나예.

헌데

113021 @ 그다음엔 헌데. 헌데, 쓰러져가지고 상처 같은 거 나잖아예? 쟁 혈어 블자나예 살이예? 그땀 어떻게수과? 아이들 무릎이나 이런데 막 까져그네 왔을 때.

113021 #1 상처난거?

113021 #2 상처난 거 치료방법이 알아지크라?

113021 @ 어딘가 막 씨러져그네 막 여기 막 피나고 막 글거먹고 헤그네.

113021 #1 그 상처 치료 곁은 거 별로 머.

113021 #2 우리 아이들 클 때깃장은 옥도정끼 아까징끼여 헛주만은 우리 대에
는 몰르크라.

113021 #1 옛날에는 춤는 거 베끼 약이 별로 없으니깐. 건디는 거지 뭐.

113021 @ 계난예. 하이고 참 하하. 계난예.

종기

113022 @ 종기 날 땐 어떻게수과? 종기 날 땐.

113022 # 종지 난 땐 고약 붙이는 거.

113022 @ 고약 붙이는 거. 영, 떤그네, 그 까망 거.

113022 #2 응, 그거 붙이민, 곱앙 터지민, 물 질질 헤가민 존거 허허.

113022 @ 기지예.

습종

113023 @ 그문 그 혹시 허물 중에서도 막 진물 나는 거 잇잖아예? 습하게시리
나고 할 때. 건 어떻게수과? 다리 같은데 나는 허물마씨.

113023 #2 진물 나는 거.

113023 @ 특히 그 살찐사람 안퉁게 막 나고 하는 건데.

113023 #2 다리에 나도 고약으로 붙영 안 터져 가민 옛날에 칼질로 헤그네 하
르방 영 쩌여그넹 뭐 하는 하르방들 이서낫주만은.

113023 @ 그 쩌며는 쩌 자리엔 뭐헤나신고예?

113023 #2 쩌 자리는 기냥 내볼민 그냥 좋아그네.

113023 @ 그냥 고름만 다 빠네그네마썸.

113023 #2 응.

113023 @ 아이고 맞아. 다 살고.

생손알이

113024 @ 그다음엔 생손알이렌 헤가지고 손가락 끝에 막 알리다그네 곱아그네
터지민 행, 생손알이, 여기는 뭐렌고라신지 모르쿠다만은.

113024 #1,2 여기도 생손알이. 마찬가지로.

113024 @ 옛날에 생손알이렌 헤수과? 그땐 어떻게나수과? 그건 잘도 아프고.

113024 #2 생손알령 우리 대엔 생손알령 헤그네 뭐헤가민 애기베젠 험쨌, 무시
거 험쨌 헤봐도 고찌는 방법은 몰르크라. 고찌는 방법은.

113024 @ 그냥 그냥 견더넹예.

113024 #2 응. 생손알려가민 무신 일어나젠 험쨌.

두드러기

113025 @ 아까 그 땀띠 말고 두드러기 잇잖아예.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어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난, 고등어를 못 먹거든마씨. 그럴 때 두드러기 낫을 땀 어떻게 치료 해수과?

113025 #2 두드러기는 소금물 헤네 박박 문데연 헤나신가? 것도 몰르큰게. 두드러기 난 무신 약을 이시나 무시거 헐 뭐가 아니난.

113025 @ 케메, 저 우리 집에서는 저가 두드러기 잘나고 하면 많이 소금 잇잖아예? 그 소금을 입에 낵 호끔 삼키라 하민 그 짠 걸, 막 죽어지명 막 소금 구워주면 구워준 소금 헤그네 쪼금씩 삼키고 헤낫거든마씨.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체 헷던 거 같애예? 체하고 고등어가 안 맞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먹어나고 헤나신디. 두드러기 낫을 때 막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이러 때 어서나수과?

113025 #1 그런 건 어서서.

113025 #2 그럴 땀 어서. 봐난 거 담진 안허고.

113025 @ 음~ .

113025 #2 우리 이디 할머니 이실 때 두드러기 나가민 소금헤그네 검은 헌벽에 싸그네 흐끔 뜻뜻하게 헤영 영영 밀렌 헤난 거 닳아. 이제추록 흐쓸 아파가민 엄살을 헤지카게 막 아팡 어떻게허당보민 좋곡 헷주게 . 겐 약이 이서서 병원이 이서서.

경기

113027 @ 아, 근데 경기도 아이들 키우멍 두 분 안헤나고예? 두 분 어릴 때 경기 헷헷말 안 들어봐수과? 혹시 주변에 경기하는 아이 어서난마썸?

113027 # 몰르큰게. 녀의 집이사.

113027 @ 혹시 안 들어나수과? 경기헤난 거는 마을마다 좀 달라서 이건 좀 특별이 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예? 경기 하는 건.

113027 #2. 정기가 아니고 역은 사람이주마는 이제는 좋앗주마는. 간질이렌 헤낫주간질.

113027 @ 간질. 그 경기 심해가민 산질이렌 헤낫구나예?

113027 #2 음, 몰라게.

113027 #1 정기가 간질이주. 간질이엔 헤네 이제.

113027 #1 한참잇땅 자빠지고.

113027 #2 사람들 많의가민 원 무쪼건 누워불고, 자빠져불고.

113027 @ 지금도 경합니까?

113027 #2 아니 지금은 고찌고. 다 고완해서 이제. 정만이나 저디 청문이 각시나.

113027 #1 기택이네나.

113027 #2 죽어분 사름은 킬피로 없고.

113027 @ 아, 이게 정끼라고 했다고예?

113027 #2 응.

113027 @ 정끼날 때 사실 이 간질일 수도 있지만 간질이 아닐 수도 잇거든마씨. 예를 들어 아이들 막 어릴 때 열나가민 막 정끼 하잖아예? 그거를 그렇게 해서 키운 사람 어실건가마씨? 애기들 고열 나가면 하잖아예?

113027 #1 정끼 걸리민 뭐 이런 데로 피뻘다, 이런 말도 이서신디이.

113027 @ 피 뻘덴. 그 간질 하다가 구한뉼 사람은, 그 사람은 혹시 뭘 먹었다든가 이런 건 모르지예? 그 분 혹시 나중에 연락처 고라줍서예? 요거는 쯤금 저 조사 더 해야.

113027 #2 가그네 간질 해났덴 허민 고라준덴?

113027 @ 아, 왜냐면 민간요법이 사실은 상당히 유용한데도 모르고 그냥 현대 의학에만 의존해서 막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잇거든예.

113027 #2 계난 옛날엔 그 간질 하는 사람, 매나 옥뻘이나 옥뻘.

113027 @ 올빼미. 예 옥뻘 옥뻘.

113027 #2 그거 헤그네 어떻사험신디 그거 약행 먹으민 고완헛젠 한 사람도 잇주게.

113027 @ 아, 그렇구나예.

113027 #2 매가 옥뻘 아니꽈?

113027 #1 아니.

113027 #2 매나 옥뻘이나 두 가지 헤그네 것도 약으로덜 헛 먹엇젠 현 말 들어 나신디게.

113027 @ 음, 그지예.

화상

113028 @ 화상입엇을 땀 어떻혜수과? 화상 입엇을 땀? 물에 데거나 불에 데거나 헛을 때.

113028 #2 화상 입을 때 어떻 현 줄 알아지크라?

113028 #1 화상 입어도 별로 그 당시엔 중간에는 술도 바르고 헛는다, 우리 어릴 때도 술 같은 거 바르고.

113028 @ 술만마씨? 뉼장 같은 거 발라났덴 하는 소린 안 들어봐수과?

113028 #1 화장 한디는 뉼장 아녀. 뉼장은 개 문디 곁은 디, 또 뉼장으로, 뉼장도 약으로 많이 쓰긴 썬지.

113028 @ 물에 덴 때 불에 덴 때, 혹시 주변에서 그런 혹시 곁으로 막 흥터 잇고 한 사람 어서마씨?

113028 #2 응. 어서 어서. 안 씨 잇주마는 간 무시.

113028 @ 아 화장 입어가지고 흥터 이신 채 사는 사람 이수과? 아, 할머니예? 연세가 어떻썬 뉼수가?

113028 #2 이른~ , 칠십.
 113028 #1 누게?
 113028 #2 안 씨.
 113028 #1 안 씨? 안 씨 간질 해나서?
 113028 @ 아니, 화상, 화상.
 113028 #2 아니게 화상.
 113028 #1 아, 화상.
 113028 @ 아니, 몸에 물이나 불에 데가지고.
 113028 #1 건 실수해네 죽으카부덴 허난 살앗주게.
 113028 @ 그땐 어떻 치료 해나신고예?
 113028 #1 병원 가네.
 113028 @ 아 그때 병원 이서수과?
 113028 #2 그건 옛날이 아니고 근래에.
 113028 @ 아, 경헛구나예.

동상

113029 @ 그담엔 그럼 동상 걸렸을 땐 어떻혜수과?
 113029 #1 동상 걸령 뭐하민 가지. 이제 가지낭 그거 눈 맞기 전에 잘라그네 막 딸려그네 발 담그꼭 허렌 해나신디.
 113029 @ 가지 낭으로 예.
 113029 # 눈 안 마진 때 뽑아그네.
 113029 #1 또, 콩 구덕에 놓아서 발 놔서, 콩에다가 발 놔서.
 113029 @ 생콩마씨?
 113029 #1 응. 생콩.
 113029 @ 콩을 찌거나 뭐 하지 않고?
 113029 #2 아니 아니 안 익여.
 113029 #1 생콩에다가 바구니에 놔그네 발. 잘리에 잘리에 발 집어 놔그네. 주로 그걸 많이 헛주.
 113029 #2 바구니에 노거나 옛날에 잘리에 기자 논차, 발 집어놔그네 뗏 시간 씩. 그거허꼭 가지낭 허꼭.
 113029 #1 발 고사실 때.

감기

113030 @ 감기 걸렸을 땐 어떻혜수과? 아이들 막. 아니면 삼춘네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113030 #1 감기 걸렸을 때, 그때도 어릴 때지만은 뎅우지 곶은 거 달려주주.
 113030 @ 아 뎅유지예. 뎅유지 난 딸릴 때는 뭐 안 낳 뎅유지만 혜수과?

113030 #1 아니. 옛날엔 뭐 아무것도 잊고.

113030 @ 그럼 텡유지가 지금이야 나지만 봄에나 여름 가을엔 업잖아나예? 그 땐 어떻게수과? 텡유지를 항상 집에 놔신가마씨 웬만하면?

113030 #1 그땐 텡유지가 하난 이철 넘어가민 낭에꺼 떨어져어. 거민 그거 낭에 거 주서다그네 단지에 헤영 놔두주게.

113030 @ 단지에 놔뒀당 아파가민 거 달런 먹엇구나예?

기침

113031 @ 그다음엔 기침 심하면, 감기에 기침도 잇겠고 마른기침도 잇겠고, 그런 기침병 걸린 사람도 잇겠고, 그 땐 그런 기침에는 어떻게수과? 기침이 막 심해가면?

113031 #1 기침 심해도 기침약이다 헌건 기억이 안남서.

113031 @ 뭐 풀뿌리 같은 거 끓영 먹거나 파뿌리 같은 거 안 먹고예?

113031 #1 할망들 쪽과에 뿌리까지 헤놓고 모물 쓸마그네 죽쌍 먹으레는 헤낫주.

113031 @ 먹으렌예? 기침 헤가문예?

113031 #1 감기 걸러그넨.

113031 #1 먹낭 기름도 헤그네 먹으렌 헤낫주 마는 옛날에.

113031 #1, 동박기름, 동박기름은 이제덜토 먹는 사름은 먹어.

113031 @ 계난 맞수다게.

딱꼭질

113032 @ 딸꼭질 헤나민 어떻게수과? 딸꼭질, 특히 애기들은 딸꼭질 멈추질 안 허잖아예?

113032 #2 딸꼭질 헤가민 무시거 혼자 도둑질 헤먹어시넨 허멍 물 먹어불라 물 먹어불라 헤낫주.

113032 @ 애기 땐마썸. 물애기 땐.

113032 # 애기 때는 짓 맥여불고.

113032 @ 아 맞다. 나도 경헤수다.

113032 #1, 2, @ 하하 허허. 맞아.

코피

113033 @ 그다음에 코피가 막 심한 아이들 잇잖아예. 코피날 땐 어떻게신고예?

113033 #2 코피 날 땐 영~행 고개 젓혀그넨 여기까지 심어주고, 머하당 멈추고, 약은 헌 거 담지 안헤여. 코피 나네 막 심할 땐 혼 15 년 전이까지장은 문어 속에 꺼멍한 떡통 그거 썸마그네, 문어차 썸양, 그거차 빼영 먹으렌 헤낫주게.

113033 @ 아, 코피 날 때는?

113033 # 어, 코피가 자주 나갈 때.

113033 @ 음, 기구나.

가래

113034 @ 그다음엔 가래 같은 거 막 글그랑 글그랑 켜를 땀 어떻게수과? 애기들.

1130342 # 애기들 무신 약초가 이서서?

113034 #1 특별한 것이 어서서.

113034 @ 막 담배 피우는 어른들 막 가래 끼고 할 땀 건 어떻게 그걸 이겨내신고예?

113034 #1 담배 피우는.

113034 @ 그 삼춘은 담배 안 피워수과?

113034 # 옛날은 뭐 약도 어섯고.

가래뿔

113035 @ 가래뿔이렌 헤가지고 허벅지하고 사타구니 사이에 그 부어가지고는 막 켜경 걷기 힘들어하는 질병 이서낫주게 마썸. 여기서는 뿔렌 고라신지 모르쿠다만은. 질병이름으로 가래뿔인데, 여기 막 아파그네 명을 정 걷지 못하고 하는 거 본격 어수과?

113035 # 요런디?

113035 @ 예예. 그거 어떻게나신고예?

113035 # 그것도 기억이 안나. 명을뿔 요런디. 경헤난 건 이서나신디 치료는 어떻게 헨지.

113035 @ 그냥 내불영 나산마씨?

113035 # 약치료 머는 어섯던 거 같애. 명을은 많이들 해서. 그때 어덜로 침놔그네 명을 산덜로 침놔그네 뿔헤나신가?

설사

113036 @ 설사 날 땀 어떻게수과? 아이들 막 심행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땀.

113036 # 설사 나도 특별히 약 뿔가 어신

거 닳은디.

113036 @ 설사 날 때 뿔가 특별히 헨 뿔인 건 어서나수과?

113036 # 계란하고 사이다. 우리 머헨 헨주만은. 우리아이들 키울 때 사이다도 어섯주.

113036 @ 계란마씨?

113036 # 독새기에 그 노른자만 헤영 사이다에 그 뿔일 때도 혼, 거의 혼 15년 넘어서.

113036 @ 우리 어릴 땐 호박죽을 썬서 줬던 거 기억나멘예.

113036 # 호박죽 썬?

113036 @ 호박만마씨.

113036 # 하튼 뭐 먹으면 멈췄다 하느디 기억 안남신게.

113036 @ 분명 설사 나긴 나나실거라예.

113036 # 응. 나가 애기를 키울 때 설사나민 우리 어머니 언디가넨 나가 무시 거 잘 못먹엇덴. 젓 먹일 땐 애기 똥 포란 한 걸로 나민, 무시거 풀 잘못 먹엇덴 무시 거 하렌 한 건 모르큰게.

113036 @ 삼촌네 어릴 때는 설사 안 나나수과?

113036 # 안나난.

이질

113037 @ 그다음 혹시 이질 같은 거 걸렷덴 소리 안 들어봐수과?

113037 # 이질에 대한 것도 모르고 약도 모르고.

113037 @ 왜냐면 저 15년 전에 남원읍 쪽에 초등학교에 이질 막 걸렷들 병원에 집단으로 입원해나고 헤낫주게마썸. 그 옛날에도 헤나실건디예.

113037 # 뭐 이질이라고 해도 뭐 이질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113037 @ 계난예. 이질이라고 하는데 막 피똥 싸고 하는 게 이질이잖아예. 설사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병 걸린 게 본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예.

곽란

113038 @ 그다음에, 그 갑자기 위가 아파가지고 위경련 일어나서 막 못견디는 거 잇잖아예? 그걸 곽란이라고 하는데예. 토사곽란이라고 해서 토하고 아니면 뭐 막 위아파가지고 똥굴고 하느디 그런 건 어땡 치료 헤나신고예?

113038 # 배꼽 돌려. 배꼽을 손가락에 영 헤그네 몇 번. 일로 몇 번. 일로 몇 번.

113038 @ 따로 맥이는 건 엇고예.?

113038 # 대산이. 대산이 뽀사그넹 물로 맥이고.

체했을 때

113039 @ 그다음에 체했을 땐 어떻게나수과?

113039 # 체했을 땐 손가락 따는 거.

113039 @ 손가락 직접 따줘수과 어떻게수과?

113039 # 손가락 그냥 실 감아그네 옆 사람이 해주주게. 본인이 못하고.

113039 @ 손가락 어디마씨?

113039 # 여기.

113039 @ 손가락 엄지부분예, 손가락 등에예.

113039 # 영하민 여기 실 감으민 여기, 체한 건 피가 세카말게.

113039 @ 게민 싹 나아져마씨?

113039 # 응.

베인 데

113040 @ 그다음엔 칼로 베이기도 하고, 옛날엔 억세로도 베이고, 베었을 땐 어떻게수과?

113040 # 베었을 땐 속 해당 허나, 담배 해당 허나. 담배를 처음에 해난.

113040 @ 아 담배가루 땡마씨?

113040 # 그때는 잎담배들 할 때난 그걸 잎 하날 뜯아다그넝 하던지 속을 하던지.

모기에 물린 때

113041 @ 모기에 물릴 땐 어떻게나수과?

113041 # 모기물릴 땐 꿈 발르는 거마씨.

뱀 물린 때

113042 @ 뱀 물릴 땐 탕 떨어지기 전에 뱀 떨어지기 전에 흑을 확 즈얏 먹어분 거예?

113042 # 뱀은 딱 물며는 또 뱀은 왔다가 또 다시 왕 무는 때문에 그 순간에 빨리 흑을 잡아 먹어비사. 그 말은 빨리 피하라는 소리디. 뱀 보다 빨리 흑 물어사 안 물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뱀 물면 딱 흑을 물라 허는 거주게.

113042 #2 정신적으로 빨리 피하라는 거주게.

113042 @ 삼춘은 그냥 나삿주 만든 다른 사람들은 나슬 수 못헤가지고 뱀 물린 자국에 멀 한다던가. 뱀 물린 데서 입으로 빨아그네 독 뺀덴 헛잖아예? 여기서 어떻게신고?

113042 # 여기서도 그런 거 뉘시기 이션. 독 읍으민 입으로 빨아붙어.

113042 # 2 심하게 물영은 베염이 도망가민은 그 사람을 눕혀그네 이런 다리 끝은디 물민 판사람이 막 었어정 독을 빼주주게.

113042 @ 그렇게 당하면 무신 약초라든거 뭐 행 처멧덴 한 소리 안 들어봐수과?

113042 #1 약초로, 뱀문데 무신 약초 해난 건 통 기억이 안나. 주로 빠는 것이.

113042 @ 흑시 뱀 물령 죽엇덴 헛 소리는 안 들어봐수과?

113042 #2 옛날은 어서서. 이글렌 별초 강 독사 물령 죽엇져 하는 방송은 나오는다. 본적은 었고.

113042 @ 여기 보몽리에션 어서.

벌에 쏘인 때

113043 @ 아까 벌에 쏘일 땐 어떻게수과?

113043 #1 벌? 벌 허민 세, 그당시 세 씹어가지고 글로 문데불고.

113043 @ 세 씹어가지고 문데고. 오줌 싸고 혜수과? 그거 말곤 어서수과?

113043 #1 오줌 싸고. 오줌 싸고 세 씹어서 걸로 막 문데고.

113043 #2 세 씹엉 문덴 건 기억나도 오줌 싸고 헨 건 기억 안 남져.

113043 #1 난 오줌 쌍, 손대서 오줌 상 대어 낫다고 오줌 쌍.

옷 오른 때

110044 @ 아까 칠, 옷 올랐덴 말, 여기선 뭐 올렸덴 ㄹ라수과?

110044 #1 칠 올랐젠.

110044 @ 칠 올랐덴 헛잖아예? 그 땐 아까 소아쿨.

110044 #1, 2 담쟁이.

110044 @ 아간 뭐 구체순?

110044 #2 구체순.

110044 @ 구체순이나 담쟁이 태워가지고 연기를 쏘거나. 아까. 삶아네 뭐 담그고예? 옷 올를 때예.

멍든 때

113045 @ 그다음엔 멍들 땐 어떻게수과? 어디 크게 행 시키멍허게 멍들 때.

113045 #1 득세기로 영 궁굴려그네 득세기로 까망 헤그네 멍든 거 까만데 타박상 입은 거 득세기로 궁굴령.

110044 #2 건 이제도 허난.

말을 더듬을 때

113046 @ 그다음엔 가끔 아이들 커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애들이 뭐하면 말 더듬는 경우들이 잇거든마씨. 막 커갈 때 고치기도 하고 못 고쳐서 말할 때 무신, 책이면,

채...책 가...가져 와수게 그런식으로 말더듬고 하는디, 치료 어떻 혜나신지 알아 지쿠과?

113046 #1 치료는 뚜렷한 건 기억 안 나고. 그거 똑 춘세맥헛덴은 하는디, 아이들 추룩. 말 빨리 못해서 드드드드, 특별한 약은 없는 거 같고, 기억이 안 나고.

113046 @ 그 혹시 말더듬엇던 사람이라든가 말더듬엇던 아이를 키운 부모 혹시 우리 주변에 이수과?

113046 #1 무시겨 윈 그런 것이 어서난 거 같애.

110044 @ 게 옛날에, 옛날에. 혹은 헛던 아이를 키운 사람.

110044 #1 거 기억이 안나네.

허리 빠였을 때

113047 @ 허리 같은 거 빠였을 땐 어떻게수과? 허리 같은 거 빠였을 때. 우리 허리 뻐 걸 뒀렌 고라수과?

113047 #2 허리 꺼졌젠.

113047 @ 허리 꺾꺼지민 어떻게합니까?

113047 #2 어떻게여? 그냥 내불민 어떻게 좋아불주 허허.

113047 #1 아니 무시거 차메명도 헤나실건디.

113047 #2 저슬살이.

113047 #1 응, 저슬살이.

113047 @ 저슬살이라는?

113047 #1, 풀, 풀. 줄거리라 그것도. 경허고 무시거과, 산에 나는 거. 길죽길죽 헤네. 이디서 이선 말제 파떡 현 거. 저슬살이 말고.

113047 @ 줍마씨? 칙?

113047 #1 요즘 약초?

113047 #2 약초가 아니고 그때 허리아픈 때 그것도 헤그네 헤나지 앓아신가 요 전에.

113047 #1 주로 저슬살이주.

113047 @ 저슬살이는 어떤 식물이과?

113047 #1 그것도 담염으로 줄거리.

113047 #2 그것도 저거 식으로 줄거리 담 쪽~ 이서. 그건 꽃 피민 하얀 거.

113047 @ 아, 혹시 하늘타리 애기험신가 열매 똥그렇게.

113047 # 열매 안 열아.

113047 @ 아, 안 열아. 꽃은 하얗게 피고예? 저슬살이예?

113047 #2 꽃 퍼도 열맨 못 봐서. 응.

113047 #1 저슬살이 헤그네 불이명 허고.

113047 #2 그거 헤당 쩌그네 꺾은 형겘에 소금허곡 그거 허곡 ㄹ쨌 쩌그네, 허 리, 깔양 늪도 허곡, 이렇게 울러그넹 좋텐 현 사람도 잇주.

발목 빠였을 때

113048 @ 그럼 발목 같은 거 빠였을 땐마씨? 발목 같은 건 잘 빠잖아예?

113048 #2 그것도 별로 약헌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113048 #1 발목 같은데 뽕 때는 치자.

113048 @ 치자?

113048 #2 치자, 요런 거. 그거 이제도 저 약국에 한약방엔 이실거라. 겐디 그걸 뒀헤그네 까그네.

113048 @ 치나 열매마씨?

113048 #2 응 열매 까그네 그 노란 거 이런디 험벅 헤그네 그거 소금 농곡 뺀 사그네. 그거 처메나서.

113048 @ 치자열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꽃 피는 그 향기가 강한 그 치자 얘기하는 거지예?

113048 #1 응. 치자 든 뺀사그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113049 @ 그다음에 여기는 볼목리는 바당이난 사람들 막 바당에 강 이이들 몸도 많이 굵고 헤실건디. 물들었을 땐 어떻혜수과? 귀에 물들었을 땐?

113049 #1 귀에 물들었을 때는 따뜻한 땀물에 귀 대면은 빠지던지 주로 바당에 서는 그거.

113049 @ 바당이면 무신돌마씨?

113049 #2 맨작한 땀돌.

113049 @ 맨작한 돌을 여기선 땀돌이렌 혜수과?

113049 #1 땀돌 저 따듯하민 영 귀에다 대며는 속에 들어간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주로 그렇게.

113049 @ 물에 들 땐 게른 흑시나 귀에 물들카부덴 라든가 귀에 뭐 혜수과?

113049 #1 속.

113049 @ 속?

113049 #2 옛날엔 속 막고 이젠 다 막는 사람들이, 밀, 밀이엔 헤그네 하얀거 막 끈덕끈덕덕헌 거 잇주게.

113049 #1 밀, 밀. 저 꿀 빼난 거 찌꺼기. 밀납.

113048 #2 또 그거 허다네. 미처 정리 못헌 사름은 껌. 이제도 껌도 하는 사람도 이서.

113048 #1 옛날엔 보통 물질갈라민 민 가다가 속 트당 막 이렇게 부벼서 귀막아서. 옛날엔 그것을 많이해서.

무좀

113050 @ 그다음에 그 발에 무좀 걸렸을 땐 어떻 치료혜수과?

113050 # 물라.

113050 #2 기억이 안나멘.

113050 @ 무좀, 군대 같은 거 잣다 오민 막 무좀 걸리고 안혜나수과?

113050 #1 무좀 뭐하면 옛날 한약으로 며헝 기억이 나는데, 요즘 최근 무좀도 많이 안 걸렸고 옛날엔 초신 신고, 요즘처럼 다 이렇게 할 때 아니라노니까. 무좀이 덜 걸렸지만은 지어낸 약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

113050 #2 군대강 역화들 신곡 행 무좀 걸리는 사람도 이서신디. 당신은 안 걸련? 허허허.

113050 @ 집에 와그네 뭐 안해주어수과?

113050 #2 근대 갖다와네 해도 결혼했주마는 그런 거 저런 거 어서. 기억 어신 계.

113050 @ 그 혹시 동네 무좀 막 심하게 걸렁 고생하는 사람 엇고예?

113050 #2 어서 어서.

113050 #1 기억이 안나요.

습진

113051 @ 그다음엔 무좀 말고 습진 같은 거 걸렸을 때마썬?

113051 #2 습진? 습진 걸러그네 뭐해도 특별헌 약 써난 거, 기억이 안남서.

113051 @ 음, 뭔가 끓여가지고 발 담그고 이런 것도 어섯고마썬?

113051 #2 음, 그땐 식초가 어섯주게. 이젠 식초해그네, 뭐 몇 번에 놔곡 정로환 같은 거 뭐해그네 발 담그렌 했주마는 그때 어서서.

113051 #1하여튼 소금물 데와서 발을 씻던지 그런 방법벳기는 별로.서.

113051 #2 주로 소금으로 약이 습진 같은 거. 경헌 거 닳아.

113051 @ 습진을 볼목리 말로 뭐렌 곳진 안해나수과?

113051 #2 습진.

113051 @ 그냥 발에 습진 헛덴.

까치눈

113052 @ 혹시 까치눈이라고 해서, 까치누이라고 해서,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멍 생기는 거 잇잖아예? 그건 뭐렌 고라수과 여기선?

113052 #2 발에 무시거 짜정 헛 거 무시거 어떻게엇져 고라나신디, 무시거엔 고라나신지 몰르고, 그거 허민 옛날에 머리에 니. 니 잡앙 거기 노렌 헤낫주.

113052 @ 아, 이 잡아가지고마썬?

113052 #2 응. 머리에 아이들 머리에 니도 하영 일어낫주게. 니주마는, 옛날엔 니엔 글아낫주.

113052 @ 니 잡앙 거기에 뉘예? 그럼 그거를 놓으면 빨아 먹어 불건가 마썬?

113052 # 어떻게해신지 경허민 좋암젠 고라난.

113052 @ 살아 잇는 거예? 죽영 놓는게 아니라.

113052 # 응응. 발눈 텃젠 허주.

113052 @ 눈텃젠예. 눈텃젠.

113052 #2 아이고 이발 발그레기에 눈텃져 경해나서. 요런 요런 벌 무디에 이런 디 굽이에 영 벌러지민, 발 눈터빃져 영해여. 막 아광. 경허민 머리에 이 잡아그네 이런디 낡. 험벅 해그네 감앙 내불민 좋아나고, 건 기억남신게.

113052 @ 하하하 기구나예.

이밖에 알고 있는 민간요법

113053 @ 그다음엔 저가 그 여쭙보지 못한 것들 혹시나 다른 민간요법들 특별하게시리 기억나는 거 이시민 고라줍서.

113053 #1 마 그 웨에 별다르게시리 기억 안나는데.

113053 @ 막 특별하게시리 아이가 막 아프민 잘 안 낫고혜가면 어디강 막 빌거나 그런 건 안해반마씨? 교회 다녀부난? 안 해나수과?

113053 #1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은 같은 데는, 좀 기절헌 사람은, 오줌 싸서 맥이는 거는 이서서. 나무 올라갓다 떨어져서 기절한 그런 사람은 저 뜨거운 오줌 싸면서 맥이면 낫는덴 해서.

113053 @ 뜨거운 오줌 누구 오줌을마씨?

113053 #1,2 아무라도.

113053 @ 금방 오줌을 싸면 뜨거우니까 바로 맥여예. 오줌을예? 기절한 걸.

113053 #2 옛날에는 폭 타먹으레 나무 올랐당 나무 뿌러지민, 바닥으로 떨어지민은 기절 허다싶이 헌 사람은 위급힐 때는 아무라도 오줌 싸서 맥여서.

113053 @ 또 다른 건 마씨? 다른 건 어서수과?

113053 #1 다른 거는 기억이 안나는데.

113053 @ 혹시 물에 들 때 들당 막 숨차가지고 뭐 기절하거나 이런런 거 어서수과? 사람들?

113053 #2 해녀들 기절헤그네 머헤그네 곳들에 다 읍경 헌 기억은 엇고.

@ 지금의 삶과 예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느 삶이 더 좋다고 생각햐수과?

#1 인심이나 모든 것은 그 당시가 나은디, 생활이 곤란하고 딱딱하니까 화합이 잘 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물질이 잘 뵈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늑의야 잘 살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뵈다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은 예전의 우리의 삶이 좋다고 생각햐수다.

@ 삼춘은 어떻 생각들엿수과?

#2 개인으론 췌헌디, 요즘 사름들은 나 배불르민 늑 배고픈 줄 몰른다는 식이라. 이제. 옛날에는 나가 배 부러도 늑 배 고평구나 허는 배려가 이신디, 이제는 그런 것이 어서. (짧은 시간 많은 양을 허려고 허단보난, 많이 부족허우다. 다음엔 잘 혈게예. 모두 고맙고 하영 속아수다.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데가리
201002	대가리	데맹이
201003	크다[大]	크가
201004	숫구멍	숨골
201005	제비초리	총데기, 생끼머리
201006	머리털	머리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낭얼레기
201012	참빗	참빗
201013	땡다	다우다
201014	비녀	빗네
201015	고수머리	고실락머리
201016	가마[旋毛]	상감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가메
201019	이마	임덩이
201020	넓다[廣]	*
201021	이마빼기	이마뺨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놋
201024	낮[面]	놋바닥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놋사레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맹정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양지

201032	뺨따귀	귀야지
201033	때리다[打]	뜨리다
201034	볼	양지
201035	볼따구니	뺨따귀
201036	볼거리	나력
201037	광대뼈	볼뼈
201038	보조개	보조기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망뎡이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눈동메기
201043	눈꺼풀	눈꺼죽
201044	거적눈	덕게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
201047	속눈썹	곱은산
201048	양미간(眉間)	눈썹사이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맹줄
201051	폐롭다	*
201052	눈꼽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눈깍
201054	사팔눈	사팔떼기
201055	눈웃음	눈우심
201056	코	콧주뎡이
201057	만지다[撫]	젹다
201058	콧마루	코마게
201059	세다[強]	*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페렝이
201062	콧물	덴코
201063	뉘다[拭]	썰다
201064	콧수염	콧시엄
201065	인증	맹줄
201066	입	입주뎡이
201067	쓰다[苦]	씨다, 쓰다
201068	참말	츄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
201071	답달하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바이
201073	헐다[毀]	카지다, 구감일다
201074	입놀림	*
201075	말하다	긋다
201076	입방아	소도리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ㄴ락ㄴ락하다
201079	침[唾]	꿈
201080	삼키다[吞]	숨지다
201081	가래침	게침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대
201085	혀	셋바닥
201086	훅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세까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든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막니
201095	옥니	오근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왔다(근쫄방울 나왔져)
201098	옥물다	양물다
201099	턱	아굴턱
201100	턱살	*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시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
201105	귓볼	귓자락

201106	꿇구멍	꿇고망
201107	귀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귀밤
201109	귀이개	*
201110	가는귀	ㄱ눈귀
201111	귀밑	귀알레
201112	구레나룻	아굴턱에 수염
201113	목	야가지
201114	꿇다[𪗇]	슬지다
201115	모가지	야가지
201116	먹살	질목다리
201117	잡다[執]	심다
201118	뒤통수	뒗데가리
201119	꼭뒗	뒗야가지
201120	뒗달미	*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짱
201123	어깨죽지	등어리, 어깨독지
201124	겨드랑이	저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따시
201127	새기다[刻]	*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슬
201131	팔꿈치	폴꿈치
201132	팔목(=손목)	손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뺨따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착손
201137	오른손	오른착손
201138	왼손잡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톱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흥글다
201144	거스러미	거심
201145	할퀴다	굽어불다
201146	손가락	손고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ㄴ락
201148	검지손가락	곤지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ㄴ락
201150	약손가락	피다리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ㄴ락
201152	손살	손거름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떨어지다
201155	젓가슴	젓가심
201156	명치	오목가심
201157	명자리	봏뜰르디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울
201161	짜다[攢]	접지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베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겍시다
201166	배꼽	배뚜름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옆갈리뼈
201169	등	등어리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오그지다, ㄱ부라지다
201172	등매기	등따리
201173	가렵다[癢]	고릅다
201174	굽다[抓]	굽다
201175	결리다	숨맥히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실린물

201178	등마루	등어리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옆팔리
201181	잔허리	옆팔리
201182	가늘다[細]	깁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잠지폐기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 짱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꼬망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201192	가볍다[輕]	게법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
201195	가래똥	살쟁이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동무리
201201	무릎뼈	동무리짱
201202	뼈다[樑]	고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쟁이
201204	정강뼈	정쟁이짱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주슬
201207	오금	사쟁이
201208	복사뼈	귀마리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긫다[凶]	긫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꺾어지다
201215	발등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부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고롭다
201220	간지럼	저글럼
201221	발가락	발ㄱ락, 발ㄱ레기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 발ㄱ락
201221-2	둘째발가락	검지 발ㄱ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상발ㄱ락
201221-4	넷째발가락	
201221-5	새끼발가락	죽은 발ㄱ락

201222	발살	발거름
201223	까치눈	눈뎡저
201224	티눈	물축
201225	고린내	고랑내
201226	발톱	발콥
201227	발뒤축	뎡척이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과	페
201230	마음	ㅁ심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베설
201232-1	큰창자	대창,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죽은베설
201233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들어서다, 배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지꺼지다
202004	입덧	*
202005	낳다[娩]	몸갈르다
202006	태(胎)	애기뿔
202007	탯줄	뱃도롱줄
202008	나이	혼술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모지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역은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눔
202015	계집아이	*
202016	아깁다	을큰허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업저지	*
201019	품다	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
202023	오줌싸개	오줌싸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리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하다
202029	배냇저고리	뿔대적삼
202030	기저귀	지성기
202031	배두렁이	배부레기
202032	포대기	뚜데기
202033	보자기	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모잔풀다
202036	끄르다	크르다
202037	치네	*
202038	띠	걸렁이
202039	개구멍바지	정뱅이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좀메좀메
202041	곤지곤지	끈지끈지
202042	따로따로	섬마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짜짜꿍	짜짜꿍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발
202047	걸리다	*
202048	곤두박질	*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
202054	흉내	뿐
202055	흉내질하다	뿐따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계심
202058	자라다[成長]	자라다
202059	부아	부에, 북베기
202060	참다[忍]	춌다
202061	심술	몽니
202062	밉다[憎]	긌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빠짱치기
202067	통차기	깡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은산기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떼기
202073	풍계물이	물건춧기
202074	줄넘기	배뜰락
202075	줄다리기	배동길락
202076	수수께끼	*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뺨기	땅치기
202082	사금파리	물딱지
202083	말놀음질	물탈락
202083-1	생말타기	물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물탈락
202084	대말[竹馬]	산데
202085	달음박질	달음상기
202086	겨루다[競]	내기하다
202087	제기차기	조끼차기
202088	혜엄치다	쉬엄져
202089	웃놀이	넉등베기
202090	웃가락	넉뚜베기물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케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관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토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케케 업었져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업었져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오리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위기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페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닥치기
202100	편벽하다	펜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칠락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보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방패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대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대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인 대	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대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
202120	밀싯개	*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
202123	썰매	*
202124	자전거	*
202125	키[身長]	*
202126	키다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허다
202132	놀라다[驚]	노레다
202133	졸음	졸암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허다
202144	트림	게틀
202145	딸꾹질	털구지
202146	재채기	하깽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방구
202149	방귀뀌다	똥끼다
202150	방귀장이	똥 잘 끼는 사람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극끼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한집
202157	학질	물 먹는 병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허물그릇
202160	비듬	빈댕이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202164	웃	칠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뱃버짐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포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촉
202171	여드름	니끼미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거멍허다
202174	굳은살	멍구쟁이
202175	부스럼	멍구쟁이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허물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구진물
202182	고장물	구진물
202183	낫다[癒]	좋았다
202184	아물다	*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손알리다
202187	얇다[痛]	아프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떼기
202190	소경	눈봉서
202191	청맹과니	*
202192	면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외눈베기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계쌈, 들럿
202195-1		들럿
202195-2		계쌈
202196	언청이	청부
202197	외언청이	청부
202198	쌍언청이	쌍청부
202199	귀떡다	귀막시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몰레기
202202	말더듬이	중치 맥힌 사람
202203	혀짤배기	세단은 사람
202204	입비뜰이	입클레기
202205	구안패사	아살풍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등곱새
202209	절뚝발이	절뚝다리
202210	얇은뱅이	아진뱅이
202211	문둥이	문뎡이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굿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소나눔

203012-1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족은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인녁 아덜
203014	의붓아들	돌양 온 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이녁 딸
203017	의붓딸	돌양 온 딸
203018	자식	조식
203019	없다[無]	웃다
203020	자손	조순
203021	어비딸	에새끼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딸
203025	어이아들	에새끼
203026	말이	큰아이

203027	막내	막당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이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독제, 웨아덜
203034	외딸	웨딸
203035	쌍둥이	골레기
203036	다르다[異]	달르다
203037	같다[如]	답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
203038-2		양제났저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잔치
203042	날[日]	흐루저무랑
203043	사주보다	점지다
203044	중신	세화
203045	권당	방상, 곤당
203045-1		나쁜뜻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203045-2	친척	친척
203046	얕은잔치	모든잔치
203046-1	암창개	날 받아 논 잔치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어머니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삼촌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어르신
203060	꾸정꾸정하다	*
203061	살다[生]	맹질다
203062	고로롱팔십	*
203063	병추기	병쭈시
203064	거동하다	*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곤당
203072	외척	웨웬곤당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삼촌
203079	작은어머니	삼촌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삼촌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삼촌
203085	외삼촌	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
203087	넋할머니	*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정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옴딸	봉근딸
203096	누구	누계
203097	남[他]	남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천
204002	끓다	물르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들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홀근미녕
204010	엿새무명	옷세미녕
204011	생목	통미녕
204012	광목	미녕
204013	베	삼베
204014	베옷	삼베옷
204015	베치마	상복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풀숨	*
204018	숨틀	소게틀
204019	숨틀집	소게 태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씨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즘박
204024	번데기	고치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잎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개뽕낭
204029	오디	뽕낭여름

204030	다듬잇돌	멧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풀마개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세답허다
204034	거품	거끔, 버끔
204035	물거품	물버끔
204036	빨랫돌	서답멧돌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개
204038	빨랫바구니	출구던, 질구덕, 출락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베줄
204041	마르다[乾]	믈르다
204042	마지랑대	거린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건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물벗어지다
204046	헹글	헌번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헌벽쫓가리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지가달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맷단
204054	풀치마	돌름치메
204055	웃고름	곰
204056	웃깃	깃
204057	웃섞	앞섞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돌메기
204060	동정	저끔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정벙이
204063	갈중의	감중이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큰옷
204066	두루마기	두루메기
204067	장옷	*
204068	고쟁이	소쟁이 , 소진이
204069	토시	소대
204070	누더기	준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뿔쟁이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허리끈
204074-1		*
204075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게앗삼
204077	널다[入]	질르다
204078	버선	버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버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뒗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수늑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앞치기

204079	길목버선	*
204080	버선발	맨버선창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훗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얇롭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호칭
204090	이불잇	이불짓
204091	홀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

204094	누비이불	플레이불
204095	이불보	포
204096	보풀	터럭
204097	홀청	이불거죽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호청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차부동
204104	앉다[座]	안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개겹질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베개오메기
204109	목침	*
204110	삿갓	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건대
204113	병거지	휘양, 휘양두레기
204114	밑짚모자	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짚신
204117	제총박이	새각신
204118	딤총박이	초신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래하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죽신
204123	부르뜨다	버즘들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
204127	부채	선제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꾸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늘싼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손골메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
204136	실패	*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찔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줍다
204143	실밥	모작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곱치다	곱이지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저븐클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화리
204152	누르다[壓]	누루뜨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지둥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꼬장앉는새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매기처럼 생긴 톱니	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즌룩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켓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켓머리지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바키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즈룩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정당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가레기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곰베꼬리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정쌀

204155 자세 머랭이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솔
205003	쌀독	솔항
205004	담다[入]	담아났저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저
205007	빠다[湯水]	보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떨라내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팥밥	팻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물맞은 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랭이
205016	눌은밥	깡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씨농헌 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괘밥	괘밥
205019-2	과래밥	*
205020	밥보	배크다
205021	밥술	숫구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혼때
205024	늦다[晚]	(ㄴ자)
205025	이르다[早]	재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송늬	누렁이물
205029	화독내	칸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늬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으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푼죽
205042	섞다[混合]	섞으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쓰레기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데우다	데웁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늬물짐치
205051	무김치	늬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춌늑물집치
205053	물김치	물집치
205054	나박김치	물집치
205055	갓김치	드릅늑물집치
205056	파김치	마농집치
205057	깍두기	늑뻘집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뒸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뎡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맛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하다
205069	콩나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늑디노물
205071	무나물	늑뻘탕시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탕시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꺾다[切]	꺾으다
205076	꺾[場所]	고지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내기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추
205082	푸성귀	습키
205083	오이	외
205084	물외	물외
205085	참외	춌웨
205086	수세미외	소게웨
205087	만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감절기
205090	원두막	막
205091	갯잎	유썸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 ㄱ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즌즌하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섭
205100	시들다	ㄱ뭉땀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친떡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쥬
205113	고물	쥬
205114	도래떡	솔편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디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205122	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계역
205125	볶다[炒]	볶으다
205126	봉지	봉투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지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배기
205133	붓다[注]	노우다,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비우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사기甕
205138	엮다	눅지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춘이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시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드럿시다
205146	갑시다	체걸다
205147	지짐이	지짐떡
205148	누름적	지짐떡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제문
205152	불때다	불숨다
205153	불등걸	불망굴
205154	불뚱	뚱, 촛뚱
205155	부엌비	정제비치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
205158	높다[高]	높으다

205159	그을음	불데미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다노다
205164	부뚜막	숫떡
205165	봇돌	숫돌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질메기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궤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 , 솔뚜껑
205171	솔귀	손잡이
205172	솔전	숫띠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꿈댕이
205176	부삽	갈레죽, 꾀갈레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205182	성냥	하약
205183	성냥개비	곽살
205184	성냥갑	곽집
205185	부시	부살
205186	부싷돌	부살돌
205187	부싷깃	불깨
205188	부시쌈지	주땡이
205189	부시통	부살통
205190	등잔	각제기
205191	관솔	송진
205192	호룽	등
205193	남포등	호야
205194	접싷불	지름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숯덩이
205197	검다[黑]	거명허다
205198	숯가마	숯무덤
205199	뜬숯	숯경
205200	숯검정	숯끔덩이
205201	불타다	불난다
205202	탄내	내
205203	불태우다	소람다
205204	불티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끼우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부섭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부섭화리
205210	화롯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추다
205212	화상(火傷)	데었다
205213	부손	불숯
205214	부젓가락	불접게
205215	다리쇠	세발손
205216	석쇠	적시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물바대
205217-2		물항
205218	담배	권련
205219	피우다	피암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폭세기
205221	담뱃대	담뱃대, 담배통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제따리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밥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엳다
205232	주발	눗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껍	개지
205235	접시	사라
205236	굽달이	굽들, 굽도리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제기
205240	간종지	간종지
205241	숟가락	숟꾸락
205242	젓가락	저뵈
205243	수저통	숟꾸락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차룽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배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콧
205251	뒤옹박	두렁밭
205252	조롱박	콧박세기
205253	쪽박보시	속박
205254	양푼	냥푼이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조막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창
205260	시룻번	*
205261	경그레	바드렝이
205262	함지박	속박새끼
205263	바구니	곤대구덕
205264	소쿠리	차룽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매운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수릿대
205269	제주조릿대	죽대
205270	굳은대	대낭
205271	무른대	축신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제칼
205278	빼다[拔]	아사네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골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놋슬다
205283	행주	상삐
205284	번철	술뚜께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소괴외
205289	떡살	분
205290	밀판	떡돔베
205291	밀개	*
205292	소줏고리	고수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수리장태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수리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바레기

205293	빚다	뒸다
205294	풍로	화리
205295	삼발이	세발손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한질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족다
206006	넓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에 집
206008	흙집	혁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흔거리
206012	안채	안커레
206013	바깥채	밖거레
206014	안팎채	안팎거레
206015	문간채	*
206016	결채	목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뒤으다
206020	장독대	뒤에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양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쉐양
206025	변소	도통
206026	부출돌	지들팡
206026-1	부출	지들팡
206027	기척	기침
206028	맞서다[拮]	ㄴ치서다
206029	냄새	네
206030	맡다[臭]	마치다
206031	올담	올레담
206032	올안	올레안
206033	터알	우녕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누다
206039	사닥다리	삼태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
206042	엮다[編]	여피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가지, 집지슬
206043-1		지슬
206043-2		풍채
206044	디딤돌	지팡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상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구들문
206048	마룻널	상방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창호지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고망귀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
206056	윗목	웃목
206057	아랫목	아랫목
206058	천장	도리
206059	닿다[觸]	것지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셋방
206062	방문	구들문
206063	비[帚]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빗조룩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땃겨불다
206067	바람벽	빈지
206068	걸다[掛]	돌아메다
206069	벽장	장빙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간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솔
206075	풀비	풀솔
206076	찾방	찾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놔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허다
206081	안뒤결	우녕
206082	지붕	모루, 상모루
206083	함석	도당, 양철
206084	지붕물매	모루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도리
206087	처마	서리
206088	처맛기슭	지슬
206089	낙숫물	지실물
206090	땃돌	지실물돌
206091	흙	혁
206092	진흙	촌역
206093	찰흙	출흙
206094	흙덩이	흑덩이
206095	새벽	개백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沓]	블르다
206098	산자(撒子)	서실낭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
206101	뒷기둥	입쟁이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도리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상모루
206108	반자틀	서실목
206109	귀틀	귀틀
206110	외(椽)	서실
206111	인방	입쟁이
206112	문설주	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
206117	문흙	식기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
206120	닫다[閉]	덕으다
206121	창문	문
206123	창호지	딱지
206124	뛰창문	*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밀장문
206127	여닫이	지계문
206128	살문	*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쩌귀	도출기
206133	암틀쩌귀	암도출기
206134	수틀쩌귀	숫도출기
206135	문고리	걸전
206136	배목	빗장
206137	퀘	퀘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개철
206142	부수다[碎]	*
206143	서랍	설협, 설납

연장

206144	툽	거두
206145	양날툽	거두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장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번자기
206150	옥자귀	끝
206151	노루발장도리	장도리
206152	못뽑이	빠루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빠루, 장도리
206155	끝	끝
206156	망치	함마
206157	방망이	덩드렁마께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사쿠리, 모도인찌
206160	송곳	기지
206161	뿔다[鑿]	뿔르다
206162	굽자	고븐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줄
206165	먹칼	쓰미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고데
206168	나무흙손	고데
206169	흙받기	고데판
206170	돌물레	호랭이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저끄띠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밭들랭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잡대즈룩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뺏어나간 나무	*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뺏은 나무	*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버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뜸’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
207011	벧밥	병대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산머럭
207014	밭두둑	산머럭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판이
207017	거웃	고랑
207018	극쟁이	쟁이
207019	씨레	논설메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설메즈록
207019-2	썩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괘이
207022	곡팽이	목괘이
207023	파다[堀]	좃다
207024	쇠스랑	소시랑
207025	삽	철삽
207026	따비	따뵤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기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백당이, 백당씨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맹텡이
207034	꾸게	소시랑
207035	남태	바레기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츄불메기
207040	두벌매기	두불 메기
207041	세벌매기	세불메기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
207043	호미	글게
207044	홍아기	검질 메는 노래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부리다
207047	품삿	품
207048	비싸다	*

207049	결두리	새끼점심, 중석
207050	폼앗이	수눔
207051	삼태기	글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호미등어리
207052-6	낫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눌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꽤기	셋부룩,
207055	새끼	노곶, 소끼
207056	꼬다[索]	웨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곶
207059	끈	노곶
207060	참마(바[索])	상강노, 상갑노곶
207061	짐마	깨
207062	질빵	배, 베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짝
 207074 익다[熟] 물긋다
 207075 개상 도깨
 207076 벼훑이 빠블랭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클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클

207078 타작하다 마당질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선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

207085 여물 출
 207086 쪽정이 나븐데
 207087 풀 늘풀
 207088 풀밭 출밭
 207089 풀꾼 늣
 207090 풀단 출다블
 207091 싣다[載] 식끄다
 207092 마차 밀구루마
 207093 복두 구루마배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

207096	거적	삿자리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걸음체
207100	말총체	체
207101	챗바퀴	*
207102	챗다리	코고리
207103	어레미	대체
207104	키[箕]	얼맹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풀다
207107	드리다	불럼질하다
207108	‘솔박’	속박
207109	풍구	선제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싸리
207112	되	뒹
207113	관되	관뒹
207114	사삿되	뒹악세기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도고리
207115-2	모말	말짜리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모자레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묵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맹텅이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꿇다[引]	동기다
207123	곡식	곡식
207124	흩다[散]	긋다
207125	자루[袋]	푸데
207126	부대(負袋)	잘리
207127	거두다[收]	장만허다
207128	계으름	일간세
207129	노라리	노네기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물긏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것보리
207138	쌀보리	츨보리
207139	맥주보리	지냉이보리, 줄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깜부기	*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슌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지장조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짚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꼬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피터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 꼬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밭
207162	밭벼쌀	산디츨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방엿돌

207164-1	멧돌짜	멧돌의 위아래 돌	물고래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쪽	*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쪽	멧돌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차경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지등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

207165	멧방석	고렛방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멧돌	쟁고래
207168	풀매	풀고래
207169	썰기	고래쫓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방에
207171-1		셋글방에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기겻방
207174	븀비다	몰리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방에
207178	방앗돌	고렛돌
207179	연자멧간	물고랑
207180	절구	도기방에
207181	절긋공이	방뎛기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머을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팔월배
207190	콩각지	콩각지
207191	콩짚	콩꼬질

207192	꼬투리	*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비제기
207195	뜨겁다	때블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둠비주시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춤팟
207202	팔알	방울
207203	팔밥	팟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유씨
207207	참기름	춤지름
207208	갯목	지름주시
207209	고소하다	코시룽하다
207210	메밀	모믈
207211	메밀밭	모믈팻
207212	나깨	모믈쏘레기
207213	메밀겉질	모믈체
207214	메밀국수	모믈우동
207215	메밀수제비	모믈저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믈칼국
207217	메밀떡	모믈정기
207218	메밀묵	모믈묵
207219	무르다[軟]	익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빠떼기
207222	찌다[蒸]	친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콥대산이
207225-1	마늘대	콥대산이썸
207225-2	마늘밀	콥대산이
207225-3	마늘종	부릅

207226	마늘장아찌	대산이지
207227	과	패마농
207227-1	과밀동	마농빨레기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물썸
207230	시래기	*
207231	장다리무	씨세울늪삐
207232	열무	츄늪물
207233	배추	배추늪물
207234	고갱이(배추)	속
207235	나물	늪물
207236	채소	숨키
207237	겉대	썸
207238	다듬다	툰다(윤거 툰아불라)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대죽
207240-1	옥수수	고고리
207241	수수	사탕대죽
207242	쌀수수	통지대죽
207243	비목수수	피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즘수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물적삼, 소진이
207249	물안경[水鏡]	오갈눈, 눈
207249-1		눈
207249-2		오갈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뜯채	족바지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코지
207258-1	이물간	박장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고불
207259-1	고물간	고물박장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배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돛줄
207263	활대	돛대꼭지
207264	외대박이	돛매
207264-1	두 대박이	큰풍선
207264-2	세대박이	큰풍선
207265	노(櫓)	넙, 네
207266	곁노	중짱
207267	상책(노착)	넙짱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배과락
207270	노뒤	뱃바위
207271	노손	너손잡이
207272	눅구멍	넛구녕 , 넛썩
207273	눅쫓	넛쫓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닷줄
207277	닷돌	닷돌
207278	닷걸이	닷돌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킷구멍
207281	키잡이	킷조죽
207282	강다리	공쟁이
207283	상앗대	사울대
207284	떼[浮筏]	테위
기타		
207285	이웃	우알력

207286	더불다[與]	*
207287	마을 부락	*
207288	고을[村]	*
207289	누리[世]	*
207290	윗마을	웃뜨르
207291	옮다[移]	웁기다
207292	아랫마을	알뜨르
207293	마을가다	*
207294	밤마슬	*
207295	가게	점빵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강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븨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싯다
207303	에누리	놀우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
207307	흥정	*
207308	빚	비채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돈새끼
207311	늘다[增]	새끼나다, 불어나다
207312	대장간	불미칩
207313	풀무	*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망근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결다[編]	*

207322	사냥	*
207323	사냥개	*
207324	사냥꾼	*
207325	쏘다[射]	마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덕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아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호나
208001-2	(2)	두개
208001-3	(3)	세개
208001-4	(4)	네개
2080015-	(5)	다섯개
208001-6	(6)	요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요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센다

208003 알다[知] 안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수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아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일흔
208004-7	(80)	여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되	흔말
208005-2	(2/두)	두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되	서말
208005-4	(4/너, 녀)	녀되	너말
208005-5	(5/닷)	다섯되	닷말
208005-6	(6/엿)	요섯되	옷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한개	흔되	흔말
208006-2	(2-3/두세)	두개	두되	두말
208006-3	(2-3-4/두서너)	세개	석되	서말
208006-4	(3-4/서너)	네개	녀되	너말
208006-5	(4-5/네댓)	다섯개	다섯되	닷말
208006-6	(5-6/대여섯)	요섯개	요섯되	옷말
208006-7	(6-7/예닐곱)	일곱개	일곱되	일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요답개	요답되	요답말
208006-9	(8-9/여덟아홉)	아홉개	아홉되	아홉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계뽕 조리
 208011 밭[單位] 풀따시
 208012 밟다 재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서른자
208014-2	명주	서른자
208014-3	광목	서른자
208014-4	베	수무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150~160평
 208016 못 단
 208017 묶다[束] 모리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둥 단
 208019-1 다불
 208020 조짐 무데기
 208021 바리(종류) 마차, 구루마
 208021

208021-1	보리	선다불
208021-2	조(이삭 있음)	설다불
208021-3	콩	*
208021-4	밭벼	*
208021-5	꼴	백다불
208021-6	띠	세마리
208021-7	각단	서너마리
208021-8	어욱	서너마리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병덩이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가지
208027	돌이(양태)	도름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208028-2		므리
208029	축	도름, 타
208030	퀘미	퀘미
208031	쌍(돼지)	*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무덤
208034	컬레(신)	배
208035	바퀴(운동장)	바꾸
208036	못	다불
208037	죽	개, 불,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
209002	아이서다	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보태창옷
209005	배넛머리	배속에 머리
209006	돌	첫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새서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여장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樛]	멜라지다
209019	이바지	*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여청사둔
209021-2	바깥사돈	남저사둔, 소나이사둔
209022	곁사돈	가지사둔, 붓디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난 집
209024	수의	죽음이웃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건테
209030	복치마	상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먹물
209031-2		맹전(붉은 천에 흰 백목 글씨)
209032	짚동	돌레착
209033	일포제[祖奠]	일פות날, 저녁제
209034	조문하다	괴견하다
209035	뒹자리	산자리
209036	지관	지관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생이괘
209040	보장(寶帳)	생이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담상꾼
209043	장삿날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장밭
209045	광중	관자리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층	*
209048	무덤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령
209052	산역	봉분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209055	묘위전	소분전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펜틀
209060	퇴물	킵시올린음식
209061	매	매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적, 적갈
209064	제편	친떡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우짚
209068	반기	테물
209069	반기하다	반는다
209070	뭇	짚세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구정명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명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장귀
209080	뽕과리	개지께(밥그릇 뚜껑) , 개지쟁이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는거
209084	모래찜질	모살뜸
209085	추석	팔월 멩길

10. 신앙

210001	점	점, 운수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올레 대위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 허는디
210008	명두	멩디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새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설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깨
210017	어둑서니	헛거
210018	무섭다	모습다
210019	겹쟁이	겹재
210020	고사(告祀)	코새
210021	고수레	*
210022	포제	정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벵디
211002	풀[草]	잡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번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넷엠
211007	물가	물저끄띠
211008	따르다[從]	*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절백
211011	다리[橋]	하시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제왈밭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불
211015	돌무더기	머듬
211016	갈림길	*
211017	묻다[問]	물다
211018	비탈길	*
211019	벼랑길	굴렁지
211020	내리막길	거병지
211021	오르막길	오룻질
211022	길가	질옆
211023	큰길	신작로, 한길
211024	분화구	*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노룻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상강
211031	구렁	구덩이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걸어감져
211034	넘어지다	씨러지다
211035	자빠지다	대갈라지다
211036	천상수	지신물
211037	숲	덕대진곳
211038	성(城)	성창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고시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든보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붕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그시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큰절
211056	굵뉘	브른바당
211057	물결	눗뎡이
211058	잔물결	멩지바당
211059	무수기	*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혼물	초아흐레
211059-2	두무날	두	열흘
211059-3	서무날	서물	열흐루
211059-4	너무날	너물	열이틀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열사흘
211059-6	여섯무날	여섯물	열나흘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보름
211059-8	여덟무날	요답물	열웃세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열일레
211059-10	열무날	열물	열요드레
211059-11	열한무날	열혼물	열아흐레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쭈무날
211059-13	(열서무날)	막물	쭈무호루
211059-14	아끈쨌기	아끈쨌기	쭈무이틀
211059-15	쨌기	한쨌기	쭈무사흘
211059-16	한조금	혼물	쭈무나흘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엽바위, 여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어오는 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노리는 물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래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제정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 아시날
211075	새벽[曉]	동
211076	꼭두새벽	새날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햇빛
211079	아침	소시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냐
211082	저녁거리	*
211083	초저녁	초저냐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린내
211092	달	돌
211093	차다[充滿]	*
211094	달무리	갓

211095	초승달	달
211096	보름달	보름돌
211097	그믐달	그믐돌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항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항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새철
211106	동지	애기동지, 할망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하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엿새
211110-7	이레	이레
211110-8	여드레	요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댓새	*
211113	대엿새	대웃세
211114	지나다[過]	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저물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섯달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맹년
211122	내후년	맹년그르해
211123	작년	묵은해
211124	재작년	작년그르해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쌀
211127	따스하다	뜻다, 멘드롱허다
211128	땡별	독한벧쌀
211129	가을별	가을벧
211130	양지받이	양지받이
211131	아지랑이	어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장막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211137-2		바람아래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브름의지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돌풍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든브름
211144	서풍	섯브름
211145	북풍	하늬보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튼튼허다
211148	빗줄기	*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장마
211149-2	가을장마	*
211150	곰팡이	늛

211151	소나기	주젯비
211152	여우비	주젯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실
211155	시원하다	씨원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보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펼개
211163	천둥	청동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하양허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아귀조삼다
211175	고드름	*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상강
211178	얼다[氷]	얼리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비눈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저곳디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이, 우에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븨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웬쪽
211191	오른쪽	노단쪽
211192	밀	알
211193	흐르다[流]	노리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끗디
211196	구석	귀역
211197	모서리	귀역
211198	가[邊]	*
211199	가장자리	*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부랭이
212005	흰소	황쉐
212006	불까다	불베다
212007	불알	불망텅이
212008	황소	황쉐, 밧갈쉐
212009	얼룩소	얼룩베기쉐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쉐석
212012	끝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새끼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름(1)	*	*
212015-2	이듬/두슴(2)	*	*
212105-3	사름(3)	*	*
212015-4	나름(4)	*	*
212015-5	다슴(5)	*	*
212015-6	여슴(6)	*	*
212015-7	이름(7)	*	*
212015-8	여듬(8)	*	*
212015-9	아슴/구름(9)	*	*
212015-10	열름/담불(10)	*	*

212016	작두	자귀툽
212017	쇠죽	쇄죽, 쇠것
212018	구유	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늬
212023	수말	수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검은말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노랑말
212028	얼룩말	얼룩데기말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마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3	쓰다[用]	*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랭이
212048	비루떡다	추접허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코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쟁이	*
212054	닭	득
212055	암닭	암득
212056	수닭	장득
212057	멀떠구니	*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
212060	닭장	득집
212061	달걀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비데기
212064	까다[剝]	깨우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잡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
212072	생둥이	*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dotong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고지

212078	굽다[炙]	굽다, 지지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르다
212081	둘치	지지렝이
212081-1	둘암소	지지렝이
212081-2	둘암말	지지렝이
212081-3	둘암돼지	지지렝이
212081-4	둘암개	지지렝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쉬	쉬프리
212087	쉬슬다	쉬아지다, 쉬쓸다
212088	가시	베렝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썩
212100	서캐훤이	참빳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회충
212103	거머리	거멀
212104	바구미	남새,
212105	콩바구미	죤베렝이
212106	굼벥이	굼버렝이
212107	땅강아지	*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주메누리
212110	노래기	*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준시
212113	진딧물내리다	*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이누니
212116	달팽이	웃입은 돌뱅이
212117	민달팽이	돌뱅이, 웃버신 돌뱅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엄지
212120	왕개미	큰게엄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산디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다귀
212126	귀뚜라미	공쟁이
212127	풍뎅이	둠베기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풍뎅이
212130	쇠똥구리	땅벌레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접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란제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하늘쇄
212139	잠자리	풋자리
212140	고추잠자리	즂자리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젤
212143	매미허물	젤겹데기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젤
212145	쓰르라미	고치젤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왕벌
212154	붓다[腫]	부수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진독의 새끼	진독
212155-2	늪은 진드기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소낭베렝이, 끄베렝이
212157	개구리	가가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꽁이
212160	두꺼비	가가비
212161	뱀	베염, 진거
212161-1	뱀띠	베염해치
212161-2	뱀허물	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해치
212163	도마뱀	장클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독사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소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챙이
212172	꿩	쓸다

212173	쥐구멍	헝이고냥
212174	박쥐	도람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지다리거죽
212179	멧돼지	산도새기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잔내비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랭이띠
212184	꼬리	콩뎡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	콩뎡이
212187	깃[羽]	놀개터럭
212188	새총	느레기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참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수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버꾸새	버꾸새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올빼미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세기
212206	꺼병이	꿩배애기

212207	두루미	올리
212208	기러기	그레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
212211	개울타리고등	츄ㄴ메기
212212	명주고등	멩지ㄴ메기
212213	눈알고등	문다닥지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보말
212217	두드럭고등	쉐
212218	대수리	쉐, 다살
212219	타래고등	고등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절방귀
212222	애기삿갓조개	벨망
212223	거북손	대우살
212224	따개비	적
212225	군부	금벗
212225-1		물군벗, 쉼군벗, 개금벗
212226	진주담치	가메기불
212227	소라	구지기, 구쟁기
212227-1		민둥구지기(큰 소라), 구지기(중간소라), 구지기새끼
212228	전복	생복
212228-1		암천복
212228-2		수천복
212229	전복갑	전복 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조개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지름게
212233	부채게	돌쟁이
212234	엽낭게	베염쟁이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거들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계	돌갱이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박래
212241	말미잘	문문주리
212242	성게	귀
212243	말뚝성게	슴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독게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국다귀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지
212254	바닷물고기	물래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어둡다
212257	잘다[細]	아우생 ^ㅎ 다, 즐다
212258	썩다[腐]	썩다, 벤허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네다
212261	생선(生鮮)	래기
212262	미끼	니깍
212263	갯지렁이	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참대
212266	만들다[造]	*
212267	낙싯줄	참대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참대
212270	낙다	올린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놀개, 풍뎡이
212274	아가미	아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멜갈치
212279	베도라치	보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랭놀래기	어랭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올데미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갯돔
212290	감성돔	논쟁이
212291	벵에돔	벤자리
212292	황돔	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보구치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승어
212303	쥐치	가죽괘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따찌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즌단이, 즌단이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수웨이
212320	돌고래	수웨이
212321	쥐돔	괭주리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검은무낭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대우리
213002	갈대	*
213003	억새	어웨이, 어웁
213004	새풀	미우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승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지스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모작쿨
213014	바랭이	제완이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올리빨, 고녕이빨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지장쿨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물피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도체비꽃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젓낭	*
213027	쇠비름	쉐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름
213030	땅빈대	보쿨
213031	애기땅빈대	아진보쿨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독쿨
213034	질경이	배채기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탓다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함박쿨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아진대우리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보리탈낭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왕이
213046	췌기풀	베염모시기약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하리비꽃낭
213049	별꽃	진쿨(개별꽃)
213050	병풀	함박쿨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쉐
213053	파리	장푸께
213054	땅파리	함박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내

213056	도깨비바늘	개마눔
213057	도꼬마리	개범블레기
213058	모시풀	모시기약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베염낭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개비룽개
213063	살갈퀴	꽃게기, 생이풀
213064	차풀	자쿨
213065	결명자	쟁맹지
213066	까마중	개부룽개
213067	하늘타리	두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9	부처손	푼채순이
213070	방가지똥	두물레지
213071	닭의장풀	고농클
213072	배풍등	*
213073	휩	꼭
213074	휩덩굴	꼭줄
213075	휩뿌리	꼭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소아꿀
213083	송악	송악쿨
213084	인동	인동고장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고녕이쿨
213087	계요등	정동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고름쿨
213090	수영(승아)	생게, 술래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근자리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능쟁이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비치락낭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너삼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동메기
213119	채송화	게나리
213120	민들레	난생이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꽃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래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유지름꽃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백년초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낭대
213144	가지	가진버리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꺾다
213148	삭정이	솔깨비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놀썸
213151	솔가리	솔잎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땃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똥구지낭
213162	버드나무	버들나무

213163	녹나무	*
213164	아카시아	아까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심그다
213169	벚나무	사꾸라낭
213170	왕벚나무	사구라낭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폭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댕유지
213183	유자나무	소유지
213184	비자나무	*
213185	치자나무	*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매죽나무	*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
213198	두릅나무	들급낭
213199	향나무	향나무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덧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개가시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가스룩낭
213219	머귀나무	*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
213222	말오줌매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복당낭
213225	참식나무	시남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릅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굴피낭
213230	후박나무	누룩낭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면나무	면낭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도굴리낭
213235	상수리나무	도굴리낭
213236	참나무	도굴리 낭

213237	산딸나무	*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가메기덕낭
213241	겨우살이	*
213242	모람	모람낭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순베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깍질	거죽
213251	깎다	베끼다
213252	벗기다	베끼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베염탈
213255	명석딸기	한탈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드룻탈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함박탈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함박탈
213262	개암	도토리
213263	머루	머위
213264	개머루	고냉이머위
213265	까마귀머루	까메기머위
213266	산머루	머위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로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풋볼레낭
213273	보리수	풋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볼레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실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통지
213282	탱자나무	통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쫄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풋감	풋감
213288	칭미래덩굴	벌레기낭
213289	맹감	벌레기
213290	찔레나무	독고리낭
213291	영실	독고리 열매
213292	사과나무	능금낭
213293	사과	능금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저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껍데기, 거죽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가메기여름, 유여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넛메역
213310	미역쇠	밀메역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밀낭, 프래
213313	톳	톨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너패
213316	지층이	지층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느쟁이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물망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까막살, 까막이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멍지도박
213327	갈래곰보	구두리풀
213328	풀가사리	무낭